



Seoul National University U.S. Alumni News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244호 2014년 8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952 Gallows Rd., #206
Vienna, VA 22182, USA
Tel. 703-462-9083 Fax. 703-462-9083
e-mail: snuaausa12@gmail.c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1조원 규모 'UAE 왕립병원' 운영권 "서울대 병원이 따내"

미국·독일·영국 제쳐... 인력 20% 파견

서울대병원이 1조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왕립 SKSH(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 전문병원의 위탁운영권을 따냈다고 지난 7월 10일 밝혔다.

국내 병원이 해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위탁 운영권을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탁 운영권은 앞으로 5년간 1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은 7월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달 말 셰이크 칼리파가 서울대병원을 위탁운영자로 최종 선정했다"며 "한국의 의료기술과 의료정보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셰이크칼리파 병원은 UAE 북쪽 해변 라스알카이마에 위치한 248병상 규모로 암, 심장, 어린이, 신경계 질환, 응급, 재활의학 등에 중점을 둔 병원이다. 이 병원은 향후 400병상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UAE 내 최고의 시설을 갖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9월 UAE 대통령실에 위탁운영 의향서를 제출하고 해외 우수 의과대학 병원과 경쟁 끝에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다.

이번 수주경쟁에 동참한 곳은 미국 스탠퍼드·존스홉킨스, 영국 킹스칼리지, 독일 샤리테 등 의료기술로 명성이 높은 의과대학들이다. 특히 독일의 병원은 노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왼쪽)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UAE 왕립 전문병원 운영권 진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벨상 수상자를 8명이나 배출한 병원이라 이들을 제쳐 더욱 의미가 크다. 실력과 열정으로 국내 종합병원이 미국·영국·독일의 유명 병원을 제치고 처음으로 수출 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오 원장은 "8월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한 뒤 향후 5년간 UAE로부터 1조 원 이상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의료서비스, 의료진 채용, 병원정보 시스템 구축 등 운

영 전반을 위탁 수행할 것"이라며 "위탁운영 수수료 수익만 연간 70억~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향후 인건비 1천 500억, 수수료만도 총 400억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현지 병원 인력의 15~20%에 해당하는 200여 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서울대병원 의사들이 UAE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MIT 정광훈(공대 01)교수

15명 Searle Scholar에 선정

3년간 30만 달러 연구비 지원... 지난해에는 신입 조교수 사상 최고 연구비로 MIT에 채용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정광훈(공대 01·사진) 화학공학과 조교수가 미 전역에서 15명을 선발하는 올해의 'Searle Scholars'에 선정돼 3년간 30만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Searle Scholars'는 Kindship 재단이 미 대학에서 화학이나 생의학 분야의 1년차나 2년차 조교수 가운데 젊고 유능한 학자를 선발해 개인 연구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특히 의학, 생물학, 화학 분야에 공헌도가 높은 연구성과와 잠재력을 지닌 젊은 학자 육성에 목적을 둔 것으로 1980년부터 시작돼 그동안 34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간 527명을 배출한 바 있다.

지난해 가을 신입 조교수 사상 가장 많은 연구비(약 27억원)를 약속받고 MIT 대학 강단에 선 정광훈 조교수는 2005년 모교 공대 화학생물공학과를 졸업하고 2009년 조지아 공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동창회비 30% Campaign

미주 동창회보 발행과 동창회 운영에는 동창회비를 비롯한 각종 후원금이 원동력입니다. 매년 미 전역의 동문 10명 중 3명(30%) 이상이 동창회비를 내 주셔도 미주 동창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기년도 동창회비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 회원 영입 Campaign

미주에 거주하는 서울대 동문들 중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서울대 동창회를 모르는 동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주위에 있는 그러한 동문들을 영입하여 동창회 행사에 참여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6대 성낙인 총장 임기 시작



모교 제26대 성낙인(64·사진) 신임 총장이 지난 7월 2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청와대에서 성낙인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헌법학자인 성 총장은 지난 2011년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탈바꿈한 이후 치러진 첫 총장 선거에서 선출됐다.

성 총장은 7월 21일 오전 서울대내 4.19 기념탑 참배를 시작으로 일과를 시작해 중앙도서관을 방문한 뒤 각 부서를 직접 찾아 인사를 나눴다.

성 총장은 부총장과 보직교수 인선을 마무리한 뒤 예산 확보, 학부교육 개선 등 산적한 과제들을 처리해나가고 있다. 공식 취임식은 8월 초 치러졌다.

성 총장은 언론사 기자들과 만나 서울대 법인화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법인화 단계를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 가는 '창조대학'"이라고 설명한 뒤 "국립대 법인화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진행되는 것인 만큼 부족한 점이 따르겠지만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으로 경기고와 1973년 모교 법학과를 졸업한 성 총장은 프랑스 파리 2대학에서 헌법학 박사 학위 뒤 1999년부터 모교 법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해왔다.

법과대 학장(2004~2006년), 한국 법학교수회장(2009~2013년), 한국 공법학회 회장(2006~2007년) 등을 비롯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 등 입법·사법·행정부에서 활동했다.***

<모교 홍보실>

병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고국의 성형외과나 중소 병원이 미국·중국·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한 적은 있지만 종합병원 해외 수출은 서울대병원의 이번

이 처음이다. <3면에 계속>

<기획> 8.15 69돌 4~7면



특히 정 박사는 스탠퍼드 대학 박사후 과정 연구원 시절 '뇌를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CLARITY)'을 개발해 뇌신경 세포의 3차원 연결망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술로 난치성 뇌질환 치료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평을 받으며 세계 학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그의 기술은 뇌 세포막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보다 2천배나 높은 해상도로 뇌의 구조와 신경세포 연결망을 속속들이 들여다 볼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세계적인 과학저널 Nature에도 소개된 그의 연구는 역시 세계적인 과학저널 Science가 뽑은 올해의 발견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앞으로 매년 10만 달러씩 3년간 30만 달러의 연구비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된 정 교수는 현재 MIT에서 뇌신경 과학과 연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NON-PROFIT
US POSTAGE PAID
DULLES, VA
PERMIT No. 645

제35차 SNU Homecoming Day 참가자 모집 안내

2014년도 제35차 'SNU Homecoming Day'는 10월 19일(일) 오전 9시부터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시작됩니다. 예년과 같이 미주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으며 당일 오전 9시에 모여 교정 접수처에 등록 후 모여서 미주 동창회 회장단과 함께 신임 서울대 총장을 예방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임 총장 예방 후 Homecoming Day 행사장으로 옮깁니다. 당일 점심은 총동창회에서 제공합니다. 숙식처 option 가운데는 호암교수회관도 있습니다. 전화는 02-871-4053, (www.hoam.ac.kr/rooms/reservation.php) ***

주필 칼럼

세월호 참사와 부작위(不作爲)의 죄



백 순(법대 58) DC 미 노동성 선임경제학자 미주 동창회보 주필

우리 고국의 미디어를 보면 세월호 참사의 사건이 발생한지 거의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월호 참사의 후유증 이야기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세월호 참사가 가져다 준 충격으로 들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호 사건과 같은 대형 안전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완전하게 방지할 수는 없었지만 사고의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기 위해서는 잘못된 내용과 절묘한 당사자들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국민에게 호소하고 약

속한 국가개조를 충실하고 올바르게 만족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내용과 당사자들을 모두 투명하게 들추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비극은 그 근본의 원인이 '부작위(不作爲)의 잘못(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수행해야 할 것을 수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바로 부작위의 죄입니다. 오래된 역사 이야기이지만 세계 제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많은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독일 나치에 저항하는 소위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고 있던 가운데 어떤 시골 감옥소에 프랑스 젊은이들이 내일이면 독일 나치에 의한 즉결처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때 무리 가운데 호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한 청년이 호느끼는 다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리 우느냐"고. "사실 나는 아무 운동에도 참여하지 아니하였는데 억울하게 잡혀 와 죽게 되었다"고. 그 때 질문을 던졌던 청년이 지적합니다. "프랑스 국민이라면 반드시 저항운동을 하여야 하는데 저항운

동을 하지 아니한 것이 죄다. 그래서 너는 사형처분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죄인 것입니다. 세월호 비극의 부작위 죄는 겹겹이 쌓여 있음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승객구조 조치 불이행과 선적기준 조치 불이행, 청해진 회사의 크루즈 운영규칙 불이행, 해경 및 정부 기관들의 구조대처 불이행 등등이 세월호 참사의 결과를 초래한 부작위의 죄들입니다. 이 엄청난 부작위의 죄를 감행한 당사자들, 즉 죄인들은 선장과 선원들, 청해진 회사 담당자들, 해경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의 사건관련자들임이 분명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제도와 법률과 장치를 일찍이 만들거나 마련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죄를 지은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부작위죄의 죄인들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위에 열거한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어느 칼럼리스트가 지적한 대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부작위죄의 죄인인지 모를 일입니다. 한국사회 전체가 분명한 책임의식을 뒤로 한 채 적당히 넘어 가도록 내버려 두는 부작위 죄를 지어 왔고 지금도 짓고 있는 한국 국민 모두가 부작위 죄의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개조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세월호 참사 부작위죄의 죄인이 선장과 선원들이요, 청해진 회사 담당자들이요, 관련 정부 부처의 담당자들이요, 국회의원들을 위시한 정치인들이요,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가 지칭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위시하여 모든 종교인들은 부작위 죄의 다른 죄인을 생각해야 할

동기 서관우(의대 62) 동문 작고 1주년을 맞아

포플러 나무



서윤석(의대 62) 현대 시인협회 회원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

친구의 유가족을 따라 쉼난도 숲 속으로 올라왔습니다. 내리던 비도 멈추고 폭염도 지나간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묻힌 소복했던 흔적은 뿌리로 스며들어 벌써 평지가 되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꽃다

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까만 예복을 입은 미망인은 쌓인 다발들을 가지런히 만지더니 그가 좋아하던 붉고 화려한 장미 꽃송이들을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꾸만 자꾸만 올려놓았습니다. 뿌리가 든든한 나무는 일년 사이에 높이 솟았고 하늘은 푸르고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목념을 드리고 있었지만 나는 바람에 잎이 살랑거리는 작은 금빛 이음표가 달린 포플러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 나무가 입은 정결한 옷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름드리 그 나무를 가슴으로 안아보았습니다. 단정하고 멋있는 그 포플러 나무를 자꾸만 자꾸만 안아보았습니다.*** *지난 6월 서관우 동문 작고 1주기에 쉼난도 수목장에서 미망인과 함께 그를 추모하며...

것입니다. 어찌 보면 부작위죄의 궁극적인 죄인은 종교인들이요, 특히 한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을 점하고 있는 기독교 교인임을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3-14절).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이 부작위 죄를 짓지 않도록 세상에 소금의 사명과 세상에 빛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였는지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했고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한 부작위 죄를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이 선진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 개조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저지른 부작위 죄를 철저히 들추어 내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고, 제도개혁을 위한 회개운동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관련자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정치인들은 정치적 및 정책적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며, 국민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인들,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잘못을 회개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아니한 부작위 죄에 대하여. 그리해야만 대한민국의 국가개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문 시 영역 감상

황톳길

김지하(문리대 59)

황톳길에 선연한
핏자욱 핏자욱 따라
나는 간다 에비아

내가 죽었고
지금은 검고 해만 타는 곳
손엔 철삿줄

뜨거운 해가
땀과 눈물과 모밀밭을 태우는
총부리 칼날 아래

더위 속으로
나는 간다 에비아
내가 죽은 곳

부죽머리 갯가에
송어가 뿜 때
가마니 속에서 내가 죽은 곳

Hwangto-Gil

I am following you
on this bloody red road, Dad

You are dead, and
Now, dark, only
the sun glowing,

Barbed wires in my hands
Hot sun burning sweat,
tears, and wheat field
Into the heat
under the guns and knives

I am following you, Dad
Where you died,
Trouts jumping
along the riverside
You were dead
in one straw bag.***



<영역> 供亮 김기형(상대 75) 남가주동창회 전 재무국장

워싱턴 주립대 김덕호(공대 대학원 98)교수

LSDF재단서 25만 달러 그랜트

줄기세포 약물독성 테스트 미세 심장조직 개발에 착수

워싱턴 주립대 생명공학과 김덕호(공대 대학원 98·사진) 교수가 워싱턴주의 유명 재단인 '생명과학 디스커버리 펀드(LSDF)'로부터 최근 25만 달러의 그랜트를 받았다. 김덕호 교수는 '마이크로·나노공학 기반 인간심장 모사 칩을 이용한 약물 독성평가 시스템 개발'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 올해 전체 5명의 그랜트 수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 LSDF는 필립 모리스 등 유명 담배회사들이 흡연 피해에 대한 사



회적 보상차원에서 출연해 지난 2005년 만든재단이다. 이 재단은 워싱턴주에 건강한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125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김 교수는 LSDF 재단 연구비를 이용해 제약회사들이 신약품을 개발할 때 심장에 해로울 수 있

는 독성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통해 사람의 심장과 비슷한 전기생리기능의 미세심장 조직을 마이크로·나노공학 기술을 통해 만들어 약물 독성 테스트를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김 교수는 포스텍 기계공학부와 서울대 기계항공공학 석사 학위 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원을 거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생명공학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워싱턴 주립대 생명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우수 과학저널에 6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고 2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 등록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미주 한국일보>

차 례

- 3.게시판
- 4-7.<기획 8.15 60돌>미육군사령부 군정청/ 60여년 전 이야기</> 내 생애 큰 영향끼친 스코필드/ 코리아의 노래 부르기 운동/<동문시 감상>구름 위에서
- 8.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신농업 기술
- 9-10.<모교소식>공대 1호벤처 양재혁 대표/가짜 서울대 잡지로 광고비 3억/ 여성도 군복무하고 담당해져요/ 김병중 교수작품 중

- 국서 살 수 있나/ 노벨상 수상자 세흐트만 교수 서울대 강의 의리지켜/기숙사 대형화재 13분만에 진화/ 재학생과 소통 위해 잡지제작/재학생 85% 시민·정치 참여 저조/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캠페인
- 11-13.미주 동문동정
- 14-19.미주 각 지역 동창회 소식
- 20-21.<관악세대 아크로 광장>오바마 대통령은 잘 하고 있나/ 팔꿈치 사회의 불편한 진실/ 사회정의와 상담의 함수관계/ 말레이 항공의 비극/<건강의학>간과 콩팥에 있는 낭

- 종/ 신뢰 실종사회의 유언비어
- 22.<영화 이야기>Liberal Arts/ 사랑이 아름다운 건 찰나기 때문
- 23.<Episode의 동문>초등학교 4학년때 천경자 선생을 짝사랑한 정대현 박사/ 서울대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 24.<My Journey to...>아메리칸 드림 50년<13>
- 25.<달러 속 주인공 이야기> 2달러 지폐의 토마스 제퍼슨
- 26.<역사칼럼>우리의 뿌리를 찾아서<하>/ <생활수상>새터민과 동지들기

- 27.<고국정치사회>오도된 여론으로 국가 중대사 결정/ 문 후보 퇴장과 민주주의 시계/ 문창극 보도 언론본분 망각
- 28-29.동문업소록, 동창회비
- 30.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 31-32. 광고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것은 본 회보가 Copy Right를 갖습니다.

워싱턴 DC 동창회 장경태(사대 75)신임회장 취임사

“보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즐겁고 가치있는 모임 만들 터

미주 동창회보 장경태(사대 75·사진) 편집위원장이 지난 6월 7일 버지니아 우래옥에서 열린 워싱턴 DC 동창회 총회(18면 참조)에서 제34대 동창회장으로 선출됐다. 다음은 장 편집위원장 겸 워싱턴 DC 동창회장의 취임 인사말이다. <편집자 주>



했습니다. 워싱턴 DC 지역에 계시는 동문들이 6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동문회와 연결을 갖고 모임에 한 두 번이라도 참여하시는 분은 절반 숫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문들이 60대 이상이 대부분이고 40-50대 동문들의 참

여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창회 활동이 많이 제한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 동창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창회는 ‘만나서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서울대학교’라는 특별한 조건이 붙어서 모임이 좀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서울대 동창회 임원들이 해야 할 일은 위의 2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일 것입니다.

동창회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많은 참여입니다. 선배님들이 후배들을 이끌어 주시고 후배들이 선배님들을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모습이 무엇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아래 광고에서처럼 9월 13일 첫 이사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임원구성을 모두 끝내고,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을 제출할 것입니다. 보다 많은 젊은 동문들이 적극 참여하여 활발한 동창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장을 맡은 장경태입니다.

저보다 더 나은 능력으로 동창회를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과분한 직분을 주신 선배님들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인사말을 드립니다.

지난 수년 동안 동창회 일을 도우면서 서울대 동창회 운영을 잘 하기가 쉽지 않다고 늘 생각

<1면에서 계속> ‘화상 소년’ 살려낸 의술 UAE 마음 크게 움직여

서울대병원이 이처럼 아랍에미리트 왕립병원 위탁 운영권을 따내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 2012년 서울대병원에 아랍에미리트(UAE) 소년 레시드(당시 9세)가 실려오면서부터였다. 당시 레시드 소년은 화재로 온 몸에 화상을 입어 뇌 손상과 호흡기 부전까지 심각한 상태였다.

UAE에서는 소년을 살릴 길이 없자, 아부다비 보건청이 선진국 병원들에 치료를 의뢰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병원들이 응하지 않을 때 서울대병원은 주저하지 않고 나서서 소년은 왕실 제트기를 타고 UAE에서 날아왔다. 소년은 서울대병원에서 수술 후 식달간 심리·재활치료를 받고 소년 레시드는 스스로 걷게 됐다. 레



↑ UAE 왕립 전문병원인 Sheikh Khalifa Specialist Hospital

시드의 사연은 현지에서 널리 알려졌고 서울대병원의 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쌓이게 됐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해 10월 말 UAE 대통령실, “병원운영에 필요한 인력(1천420명)의 15~20%를 한국에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UAE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주영 서울대병원 행정처장의 설명에 담당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새로 짓는 UAE 왕립종합병원의 위탁운영 사업권에 응찰한 세계 유수병원들은 극히 소수 인력만 보내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의 이같은 위탁 운영권이 본격화된 것이다.***<동아일보·중앙일보>



워싱턴 DC 동창회 정기 이사회 개최

워싱턴 DC 동창회가 다음과 같이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14년 9월 13일(토) 오후 6시
- ▶장소 : 우래옥(타이슨스 코너)
- ▶특강 : 특별한 주제 예정
- ▶참여대상 : 동문 누구나, 전임 회장단은 꼭 참석해 주십시오.

2014년도 송년회

- ▶일시 : 2014년 12월 30일(화) 6 pm
- ▶장소 : The West in Tysons Hotel
- ▶연례 장학생 시상식
- ▶송구영신 만찬과 여흥

게시판

미주 동창회 제14대 회장 후보추천 공고

미주 동창회는 미주 사회에서 활동하는 동문 회원 중 동창회 원간 친목도모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실 차차기 회장 - 제14대 동창회장 (임기 2017.7~2019.6) 후보자 추천을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정관 및 추천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장후보 추천서 접수마감 = 2014년 12월 31일 ▶2015년 1-5월 중 동창회보에 선거공약 발표 ▶2015년 6월 = 제24차 전국 평의원회의에서 투표. 차차기 회장 확정.

서울대 미주동창회 인선위원장 김은중(제11대 회장) 310-667-2350, ekim@npcims.com.

IRS감사대비 내부감사 일정과 담당 감사위원

- ▶감사기간 = 2014년 1 ~ 12월
- ▶박숙 위원 (Chicago, jhcspp@naver.com, 847-707-9693) = 달라스·록키마운틴·시카고·중부텍사스·휴스턴 동창회.
- ▶김창수 위원위원 (NY, changsookimcpa@hotmail.com, 212-760-1768) = 뉴욕·뉴잉글랜드·조지아·오하이오·필라델피아 동창회.
- ▶김지영 위원 (남가주, jkym@yahoo.com, 213-308-0009) = 남가주·북가주·샌디에고·아리조나·하와이 동창회.

- ▶노상문 위원 (DC, cpa_noh@yahoo.com, 703-749-1110) = 미네소타·워싱턴 DC·플로리다·캐롤라이나·테네시 동창회.
- ▶배규영 위원장 (Heartland, kybae8533@gmail.com, 913-709-2335) = 알래스카·오레곤·워싱턴주·유타·하틀랜드 동창회. 내부감사에 대한 문의는 배규영 위원장께 연락 바랍니다. Kiuyoung Bae, Ph.D. 전화: 913-709-2335 Email: kybae8533@gmail.com

Homepage활성화 위한 Strip Ad.모집

미주 동창회는 기존의 Homepage를 대폭 수정하여 다양한 기능을 추가하고 사용자에게 편리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자체적인 운영 비용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Monthly updates and maintenance를 위한 안정적인 비용 확보를 위하여 Homepage에 strip 광고를 넣기로 하고 광고 기증을 해주실 동문들은 물론 동창

회와 관련 있는 사업체와 광고 계약을 하고자 하니 관심있는 동문들과 관련 사업체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손재욱 IT 위원장 (267-736-2992)과 오인환 회장 (ioh0858@comcast.net, 301-775-3919) 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동창회 평의원 명단 제출

각 지역동창회에서는 2014.7-2015.6 회기년도 선출 평의원 명단을 9월 30일까지 미주 동창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은 미주 동창회 한정민 총무국장 (T.703-462-9083 snuaausa12@gmail.com)에게 해주십시오.

지역 동창회 주소록 정리사업 및 전문인력 자료수집 요망

각 지역 동창회에서는 동창회 원 주소록과 전문인력 자료를 미주 동창회 표준 주소록 Spreadsheet Template 에 맞추어

작성해 주시고 미주 동창회 한정민 총무국장 (T. 703-462-9083, snuaausa12@gmail.com)에게 보내주시십시오.

자랑스런 동문 추천 공고

각 지역 동창회 회원들 가운데 서울대 동창회 혹은 모교의 명예를 높인 동문들의 공적 사항을 6하 원칙에 따라서 요약하여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미주 동창회 정평희 사무총장 (301-661-9227, paulchungpe@gmail.com)

관악 및 젊은 세대 활성화 요망

지난 제23차 평의원 회의에서는 차기(공대 85) 남가주 관악연대 회원이 참가하여 젊은 동문들의 활동을 소개하여 좋은 반응을 받아 다른 지역 동창회에서도 유사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

로 미주동창회 homepage website 에 Acropolis Times 라는 link 로 들어가면 자세한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미주동창회 homepage URL은 www.snuaa.org

우수 작품상 모집 12월 31일까지 연장

미주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이미 공고한 바와 같이 시, 수필, 콩트등을 모집하고 있으니 모집 요강 (7월회보 참조) 에 따라서 많은 동문들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은 편집위원회 (snuaausa12@gmail.com, T. 703-462-9083) ***

<기획 8.15 69돌>

지난 7월호에 게재한 바와 같이 지난 6월의 제23차 전국 평의원 회의 일정 중 27일에는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인문과학과 오후 생명과학 session으로 나누어 총 8명의 동문 학자들이 각각 주제발표를 해주었는데 지면관계상 초록만 게재했다. 오(조)봉완 명예교수는 자신의 강연과 관련된 내용의 전문을 보내와 8.15 69돌을 맞아 이를 기획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조선 미육군사령부 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1945~1948



오(조)봉완(법대 53)CH
Georgetown대 명예교수

▶서문 = 1945년 8월 15일 정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천하를 진동하는 함성이 방방곡곡에서 울렸다. 36년간 일본 식민통치의 종말과 자유독립을 환영하는 환희의 폭발이었다. 그러나 이 황홀한 기쁨은 한 달도 못돼 실망과 분노로 돌아 갔다.

제2차 대전 후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해 공산정권을 세웠고, 1945년 9월 9~1948년 8월 15일 3년간 미국은 38선 이남에 군사정부를 설치해 통치했는데 명칭은 ‘재조선 미 육군사령부 군정청’이다. 미 육군 제24군단이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을 다스리던 군사통치 행정기관이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독립 후에도 1949년 6월까지 정치고문 및 군사고문 형태로 존속했다. 이것은 분단과 더불어 한인에게 큰 충격이었다. 일본 제국이 멸망해 한반도에서 물러나면 독립이 될 것으로 믿었던 우리는 또다른 외인지배하에 살게 됐다. 충격에 비해 이 제목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대한민국 설립 후 40년간 독재정치에서 언론의 자유가 없었던 것이 한 이유라 할 수 있고, 미국측에서는 군정시대에 많은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군정설립 배경과 군정의 실정과 과오를 검토하고 미 군정이 한국에 끼친 영향이 무엇인가 살펴 보려고 한다. 이 발표는 주로 남한의 미 군정에 대한 사언이며 기존 문서와 저서의 재검토와 재분석을 하여 이 시기 역사적 재조명을 기도하였다.

▶배경 = 미일 태평양 전쟁은 거의 4년간 지속됐으나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했을 때 미국은 준비가 안돼 있었다. 일본의 멸망이 가깝다고는 알고 있었으나 그해 연말까지 계속되리라 예상하고 일본 본토의 폭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일본이 19세기 말부터 불법정착한 영토의 전후 처리에 대해선 제2차 대전이 끝나기 몇년전부터 계획했다. 한반도에 관해서는 1943년 말 카이로 회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한국이 독립된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1945년 2월 알타 회담에서 이것을 재확인했고, 동년 7월 26일 포츠담 회의의 3대 국수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선언을 거듭했다.

그러나 일본항복 직전 1945년 8월 6~15일 사이 획기적인 일이 연발했다. 6일 인류 최초의 원폭이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8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입, 9일 2차 핵폭탄이 나가사키에 투하, 15일 일본천왕이 무조건 항복했다. 이런 관계로, 미국은 한국을 염두에 둘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 항복은 예기치 못했을 때 일어났다. 물론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의 치열한 투쟁이 30여년간 계속되고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우리의 해방은 미국

“한국전쟁 전문가 James Matre 박사는 ‘Hodge를 임명한 것은 미국의 대과’, 그의 실정을 ‘Hodge podge’ 라 했으며 ‘이는 한국의 분단을 선결한 것’ 이라 했다”

과 동맹국의 승리로 이뤄져 우리에게 발인권 결정권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열강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미국은 태평양 전쟁 전반에는 단독투쟁했으나 1944년 유럽의 전쟁이 끝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 전쟁도 속히 끝내기 위해 소련에게 참전을 청구했다.

소련은 역사적으로 일본을 적대시 해왔으며 극동에 영토를 가진 극동권 국가라 캐히 합의했다. 이것은 1945년 알타 회담에서 확정돼 독일항복 3개월 후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됐다.

일설에 루즈 벨트 대통령이 소련에게 너무 양보했다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 때는 유럽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예상할 수 없을 때였다. 소련은 참전 대가로 일본이 지배하던 만주를 소련권에 넣기를 요구했다. 미국은 일본의 정복을 누구와도 나눌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련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중간에 남은 영토가 한반도였다. 트루만 대통령은 한반도도 독점을 원했으나 군력이 부족하고 준비가 안돼 있었고, 극동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의 협조 거절로 소련과 공동관리해야 될 것으로 8.15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8월 8일 소련이 일본에 전쟁을 선포, 군대가 만주와 조선반도 국경을 넘었다. 미국 언론은 매일 소련군 남진을 보도했다.

미 정부는 응급조치를 해야 했다. 국방성과 국무성은 Charles

Bonesteel과 Dean Rusk 두 중령에게 해결책을 구했다. 국무성 지도실에는 National Geographic에서 1942년 출판한 조그마한 지도밖에 없었다. 두 중령은 몇 군데 표시를 해 상관인 George Lincoln 장군에게 전했다. 북위 38선이 그중에 포함돼 있었지만 다른 곳도 표시했다 한다.

그곳은 반도의 제일 좁은 곳, 즉 원산과 평양이 거의 직선으로 동북으로 위치한 북위 39도보다 조금 북쪽도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38선이 유일한 선이 아니었지만 반도 중간이고 수도 서울이 그 위도의 남쪽에 있으며 더 북쪽을 제시하면 소련이 거절할까 우려해 링컨 장군이 38선으로 정하고 트루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은 당시 소련의 군력에 대해 정보가 부족해 조심스레(소련의 위치가 유리해서) 제안했다.

스탈린은 뜻 밖에 쉽게 받아들였다. 소련군은 합의대로 38선에서 남진을 정지했다.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일본의 항복을 수락했으나 이남에는 미군이 8.15 후 3주 이상 남도록 도착하지 않았다. 일본 본토에 상륙한 군대 외에 제일 가까이 있던 미군은 7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John R. Hodge 장군 지휘하의 오키나와에 있던 24군이였다.

▶군정 실행 = 그 사이 일본인들은 한민들에게 최후의 발악으로 최악의 해를 범했다. 해방직후 정치·사회·경제 혼란에 빠져 있던 한국에 대해 잔재 일본 행

해 근본적으로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민에게 호감을 줄 수 없었다. 5천년 한국 역사를 볼 때 3년은 짧은 기간이나 한국과 한반도에 이 3년은 혹독한 시련의 시기였다. 이 중요한 때 우리 운명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고, 미 점령군 총사령관의 지배를 받아야 했는데, 그 총지배자가 하지 준장이였다.

한국전쟁 연구의 전문가인 James Matre 박사는 “하지를 임명한 것은 미국의 대과”, 그의 실정을 “Hodge podge” 라 했으며 “이는 한국의 분단을 선결한 것 이나 다름없다” 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저명한 한국학자 Bruce Cumings 박사는 “한반도의 영구분단이 숙명적으로 예정된 것은 아니었다. 군정초기 희망이 전혀 없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전후 냉전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후도 우편, 철도, 트럭, 선박 운송이 계속됐고 양 점령군 사령관 사이 공동 작업을 약속했다.

미 군정의 또 다른 치명적 과오는 미 국무성과 국방성의 이념과 정책에 차이가 상당해 하지 장군 참사관 중에도 합의가 잘 안돼 서로 의견을 좌절시키려는 예가 많았다는 점이다. Arthur C. Bunce와 Joseph E. Jacobs가 전형적인 예다.

번스는 경제 고문으로 남북의 경제협조와 단일정부 수립을 주장했으나 제이콥스는 이남 단독 행동을 권했다. 하지 장군은 제이콥스에게 더 귀를 기울여 국무

미국은 이에 동의해 다음 해 초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봄에 첫 회담을 가질 것을 약속했다.

이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전민족은 남북을 막론하고 거족적으로 반발했다. 전국 각지에서 정당, 사회단체, 학생들까지 반대 시위운동을 했다.

이 때 묘한 일이 일어났다. 남한의 공산당이 친탁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신탁통치 원인이 미국에 있고 처음 소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입장을 친탁으로 바꾸어 남한의 친소세력에게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모스크바 회담에서 처음 한민들에게 전해졌으므로 남한인들은 신탁통치 제안이 공산주의자들의 매국안이라 간주하고 결사 반대했다.

좌·우의 분열이 시작된 분수계(Divide) 순간이었다. 미국은 극렬한 반탁운동에 놀라 신탁통치의 원인이 미국에 있음을 공개하지 않았다. 자중을 권고한 우익 온건과 송진우가 12월 30일 암살당했다. 신탁통치를 둘러싸고 일어난 혼란의 첫 희생자였다.

▶한영우 교수의 재평가 = 모교의 한영우 교수는 다음과 같이 재평가한다.

연합국의 ‘신탁통치안’은 즉각적 독립을 희구하던 한국인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지만,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면도 없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승만·김구 등 우익세력은 대대적인 신탁반대 운동에 열거했다. 그러나 같은 반탁운동이라도 이승만은 남한에서만이라도 빠른 시일내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함이고, 김구는 즉각적인 남북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신탁에 반대했다.

한편, 좌익세력은 신탁에 찬성하고 나섰다. 1946년과 1947년은 이 문제로 좌우가 격렬하게 대립하던 시기였다.

▶미소 공동위원회와 좌우합작 정책 = 미소 공동위원회는 본질적으로 한국통일을 위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화합이었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이 친미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소련은 친소적으로 되기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1946년 5월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미 군정은 신탁통치 문제를 한국내 좌우합작으로 해결하려 했다. 미 군정 고문 버치 중위의 주선으로 김규식·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좌우합작운동이 추진됐다. 이때 군정은 비상한 노력도 했다. 조선공산당에 타격을 주고자 조봉암·여운홍(여운형의 아우)·장건상 등 온건 좌익인의 탈당을 유도하고 이들을 좌우합작 세력에 가담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송진우(45.12.30)·여운형(47.7.19)·장덕수(47.12.2) 등의 계속된 암살과 기타 피살 사건, 노동자·농민폭동, 대구폭동 등으로 조절은 어려워졌다. 남조선과 입법의원에서도 신탁통치 반대를 결의했다. 좌우합작을 통해 신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려던 미 군정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또한 미 군정에게 극우파로 알려진 이승만 역시 미 군정을 무시하고 Douglas MacArthur 사령관과 직접 상대하거나 미 국무부내 프린스턴 대학 인사들, 하버드대 인사들을 이용해 좌우합작을 좌파의 흉계라 공격함으로써 미 군정의 자유 민주주의 이식이 좌절됐다. <7면에 계속>

정인들은 유언비어를 미 사령관에게 전했다. 조선인들은 미개하고 거의 모두 공산당이라 했다. 공산주의 소련이 적국이 된 당시 극도로 반공산주의자였던 하지 장군은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하지 장군은 인천 상륙 4일 전 “조선은 적국”이라 선언하고 남아 있는 일본인들에게 조선 행정을 맡을 것을 명했다. 이에 따라 잠재해 있던 일본인 뿐 아니라 일제하 관리였던 한민들도 그대로 고용했다.

하지 장군은 인천에 7만 2천의 군사를 이끌고 1945년 9월 8일 상륙 다음 날 군정을 설립해 첫 1년은 독단적으로 활동했다. 기존 일본 식민지 정책을 계속하는 동시에 조선단체 일체를 해체했다.

그중에는 일본인 위탁을 받고 여운형과 안재홍이 9월 6일 세운 건국준비 위원회와 9월 8일 조직한 조선인민공화국도 포함돼 있었다. 이 두 조직체는 좌익, 또는 공산주의 단체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좌·우 분별이 명확치 않았고 많은 중도파 지식인, 언론인, 민족주의자들이 포함돼 있었으며 그때의 유일무이한 한인 단체임에도 단시일내 해체시켰다. 평화와 질서를 위한 정책이라 했다.

미 군정은 두가지의 큰 목적이 있었다. 제일 과제는 반공·친미 민주주의 공화국 설립, 둘째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이식이었다. 이런 목적으로 군정을 시작했으나 한민에 대

성의 지시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동을 여러 번 했다. 이런 정책 때문에 극도로 분개한 한국인들의 반 군정 태도를 완화하기 위해 하지 장군은 급히 Archibald Arnold 장군을 미 군정 총독으로 임명했고, 온건 우파 갑부 김성수를 두각으로 한인 자문회를 조직했으나 하지 장군이 계속 최고위장 역할을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미 군정의 목적 2가지 중 제1 항목인 반 공산국(친미) 건설은 빨리 실행했지만 제2 자유 민주주의의 이식은 완전 성취했다 할 수 없다. 이 두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미 군정은 4개 동맹국이 합의한 사명을 수행해야 했다. 이것이 신탁 통치다.

▶모스크바 3외상 회담과 신탁 통치 = 군정의 제1 사명은 한국을 신탁통치하에 두는 것이었다. 분단도 정당화 할 수 있었던 것도 신탁통치 때문으로 신탁통치는 전쟁 중 Franklin Delano Roosevelt 대통령이 제안하고 계획해 동맹국의 합의를 본 것이다.

이 안을 구체화 하려고 3개국 외상회담이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James Byrnes 미국무장관은 3가지 제안을 했다.

1)남북의 군정을 폐지하고, 2)한반도에 단일정부를 수립하며, 3)한국은 첫 5년간 4대 동맹국의 신탁통치하에 둘 것을 제안했다. 소련 외무장관 Molotov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미소공동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

<기획 8.15 69돌>



60여년 전 이야기<1>

홍용식(공대 51) VA

▶**일제 말기의 서울** = 세계 제2차 대전(1939~1945) 초기 일본군은 성공적인 진주만 공격과 동남아 진격의 승리로 기세를 올렸으나, 승세는 잠시였고 막강한 전력의 미국은 곧 전세를 역전시켜 일본의 패전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충포탄의 탄피를 만들기 위해 일본은 어린 학생들에게 집의 금속제품(주로 놋제품)을 학교에 가져오도록 하였다가 나중에는 일본인 앞잡이를 하는 한국인들이 가정집을 기습하여 놋그릇을 빼앗아가기도 하였다. 특히 조상대대의 제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소리 소리 지르며 반항했던 노인들이 기억난다.

우리 집에도 이들 한국인들이 탁쳐와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신발을 신은 채 방을 뒤지고 금속류를 가져가는 것을 우리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보기만 하였다.

미군의 한국상륙에 대비해야 한다고 서울 시민들은 가족을 분산하여 일부를 시골로 이동시키는 소개를 강요당했다. 우리 집도 나와 누이동생 하나만 남고 나머지 동생들은 시골로 보냈다.

▶**수많은 소녀를 정신대로** = 군수공장에 취직시켜 준다고 어린 소녀들을 꼬셔서 모집한 여자 정신대가 어깨띠를 두르고 일본군가를 부르며 시내를 행진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중 불운했던 일부는 위안부로 동남아·필리핀·태평양 섬 등으로 보내져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본 경찰과 한국인 협력자들이 시골 동네를 급습하여 동물사냥하듯 젊은 여자들을 끌고 간다는 소문이 자자했는데 실제로 그

←6.25 때 숨어 지내던 집. 한국 방문시에 들렀다.

지식은 이때 생겼고 아직도 일본 책은 한국 말 수준으로 읽는다.

지금의 남산 입구 근처에는 덴만구(天滿宮)라는 일본 신사가 있었는데, 이곳에서 매년 신년초에 전 서울의 국민학교 대표가 붓글씨를 쓰고 신사에 걸어두는 행사가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님께 종아리를 맞아가며 붓글씨를 배워서 곧잘 썼기 때문에 학교 대표로 붓글씨 대회에 나가기도 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붓글씨는 고사하고 펜 글씨도 초등학교 수준이라 형편없어 부끄럽기만 하다. 소질없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미국인과 영국인은 마귀와 짐승 취급** = 미국인과 영국인은 마귀와 짐승이라는 뜻인 기찌꾸베이에이(鬼畜米英)를 외쳤고 이들을 마귀와 짐승으로 묘사한 그림을 사방에 붙여 놓았다. 일부 국민학교에서는 교정에 미군 폭격기 B-29 외형을 실제 크기로 그려놓고 학생들이 그 안에서 발로 짓밟도록 해 적개심을 부추겼다. 한국 본토는 공습을 한 번도 받지 않았으나 B-29가 자주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하늘 높이 나는 B-29에 일본군이 고사포를 쏘는데 포탄은 B-29의 고도에 도달 못하고 중간에서 터지고 B-29는 서울을 관망이나 하듯 유유히 선회하고는 돌아가곤 하였다. 이 때

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연도는 기억 안나는데, 여자 사냥에 가담했다는 일본인이 한국 TV에서 한국민에게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결혼한 여자는 잡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어린 여자를 둔 집에서 누구에게 시집보내야 하나고 의논하던 우리 주위의 노인들은 나는 여러 명 보았다.

▶**성인 남자는 강제징용, 학생은 학병** = 한국인 노무자를 강제로 일본 본토의 탄광이나 중국,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의 최전선에 보내어 위험한 노무를 시켰다. 징용은 시골에서 많이 하였

“일본군 고사포가 미치지 못하는 B-29는 내게 큰 자극제로 Boeing 항공사에서 일하는 꿈을 갖게 됐다. 이로부터 정확히 13년 후인 1958년 나는 그 꿈을 이루게 됐다”

는데 부잣집에서는 자식에게 영장이 나오면 자기 집 머슴을 대신 보내거나 돈을 주고 다른 사람을 사서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학병 제도를 만들어 대학 재학생들을 징집하여 주로 중국 전선에 보냈다. 길가에서는 학병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나와서 지나는 사람들에게 흰 광목 천 어깨띠에 바늘실로 한 개씩 매듭을 만드는 센닌바리(천명의 바늘)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천 명의 소원을 받은 센닌바리는 생명을 보호해준다고 선전하였다.

전선에 나간 학병은 죽은 사람도 많고, 중국땅에서 도망하여 한국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도 있었다. 일본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고 한국 이름을 고집하면 불이익을 당했다.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우리 연배의 일본어

문에 우리나라에서 B-29와 제작사 Boeing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특히 어려서부터 미국 유학을 해서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던 내게는 큰 자극제가 되었으며 Boeing 항공회사에서 일하는 꿈을 갖게 되었다. 이로부터 정확히 13년 후인 1958년에 나는 그 꿈을 이루게 되었다.

▶**경기중학 입학** = 1945년 4월 나는 서울의 덕수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기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선생님들은 거의가 일본사람이었다. 일본인 군사교관은 우리가 일본인을 부러먹고 싶으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라고 했고 또 당시 가미가제 특공대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소년 비행병을 모집하러 오기도 했다.

공부 대신 삼청동 산에 올라가 송충이를 잡고 소나무 뿌리를 캐

다. 송충이는 말려서 군의 식량으로 쓴다고 했고 소나무 뿌리는 기름을 빼서 석유 대신 차량용 기름으로 사용했다. 강당 뒤 빈터에는 밭을 만들어 우리는 양배추, 아주까리 등의 농사를 지었다.

체육시간에는 목총으로 총집술을 배웠다. 그리고 4개월 후, 8월 6일 히로시마,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투하됐고 8월 15일 일본은 항복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의 마지막 중학 입학생이 되었고, 이북과 이남을 합친 조선 전국에서 선발된 마지막 경기도 입학반이 되었다.

우리는 일본 학제였던 4년제 중학에 입학하였는데, 그것이 해방 이후에 5년제가 되었다가 6년제로 다시 바뀌었다.

학년 초도 4월에서 9월로 바뀌었다. 그리고 우리가 졸업 후에는 중3 고3으로 학제가 또 바뀌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만이 중학교를 6년 6개월 다녔다.

해방 전에는 모든 학교가 일본어로만 교육했기 때문에 국민학교에서 배웠어야 할 한글을 해방 후의 중학교 1학년에서 배우기 시작했다. 어떻게 되어서였는지 음악 기초이론을 배우지 못해 나는 아직도 악보를 볼 줄 모른다.

우익이다, 좌익이다, 싸움하고 학원이 혼란스럽더니 6.25가 나서 휴학하는 바람에 고3에 해당하는 만 1년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뿔뿔이 헤어졌다가 전쟁 중 부산에서 졸업했다. 그래서 우리

는 졸업앨범이 없는 유일한 학년이다.

▶**경기도 부산 가교사에서 졸업식** = 우리 가족은 6.25 전쟁의 피해를 많이 받았다. 아버님이 이북으로 납치되시고, 우리 집은 인민군 후퇴시 방화로 불타 없어졌으며, 우리 재산을 탈취하려는 배신, 사기, 그리고 재판 등으로 고통을 많이 받았다.

어머님은 자신도 생명위험의 고비를 여러 번 넘으셨지만, 그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주셨다. 전쟁 초기에 나는 경기도 용인의 시골에서 초가집에 숨어 지냈다. 집 뒤의 산에서 인천방향에서 밤낮없이 들리는 상륙작전의 포성에서 용기를 얻었고, 미군이 동네 앞길을 지나는 것을 처음 보고 만세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던 기억이 새롭다.

1951년 피난도시 부산에서 서울대학교 입학생 모집의 공고가 있었다. 6.25전쟁 중에 많은 학생들이 사망, 실종, 월북, 입대, 취업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원생이 많이 몰려왔다.

나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대학 입시를 포기하고 직장생활을 생각하고 있었던 관계로 1년 이상을 손에 책을 쥐어보지 못하고 지내서 자신도 없었다.

←경기도 부산 가교사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오른쪽 사진 왼쪽은 2년 후배인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의 경기도 시절. 부산 동대신동 서울대 가교사의 51년 입학생(9기)

▶**포기하려 했던 서울공대 입학** = 그러나 어머님의 강력한 권유로 급히 홀로 부산에 가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준비를 하여 시험을 쳤고 기계공학과에 합격했다. 안될 줄 알았는데 합격이라 놀라기도 했지만, 다른 지원자들도 모두 나와 같은 상황에서 경쟁했으니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나의 서울대 입학이 가능토록 나를 도와준 사람을 언급하고 싶다. 내가 정해진 속도 없이 부산을 떠돌아 다닐 때 중학 동창인 이회정(의대 51)군을 만났다. 자기 집도 어려웠고 동생 이회창(법학 53, 전 대통령 후보)이 아르바이트로 돕고 있을 때였는데, 함께 입시 준비하자고 나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상당한 기간 동안 편안하게 지내며 수험준비를 하도록 해준 이군과 그의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리고 내가 경기도 부산 가교사에서 졸업할 때 나의 고교 2년 후배이기도 한 이회창 동문이 나의 유일한 축하객으로 와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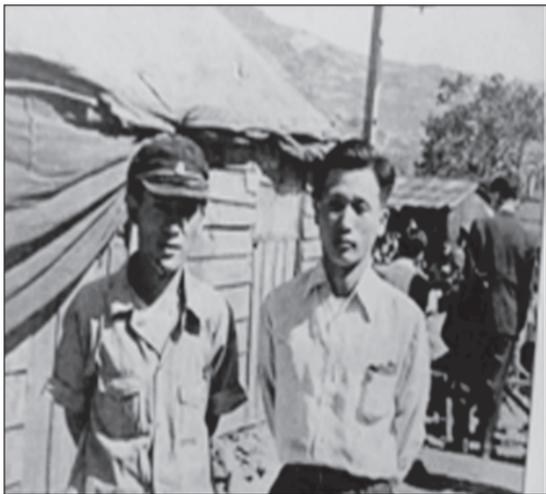
서울대학교 가교사는 부산 동대신동 산 언덕에 있었다. 천막 안에 거적매기를 깔 것이 전부였다. 그 위에 신발을 신은 채 꾸구리고 앉아서 강의를 들었다. 교과서는 물론 없었고, 일제시대에 공부한 교수들이 대부분이라 일본어에 능통하여 대청동 책방에서 일본 책들을 사서 천막교실 안에서 즉석 번역으로 읽어내려가면 우리는 시장에서 산 이면지에 받아 쓰는 것이 전부였다. 계산은 암산이나 수산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시험문제는 설명하라는 것과 사지선답식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거적매기를 깔 초기 서울대학교사는 그 후에 목재가 건물로 발전하였다.

가족들과 함께 피난와서 고생하지 않고 다닌 학생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은 생활을 위해 직장을 가졌고 따라서 매일 출석이 어려웠다. 학기 말 시험 때에 과친구의 공책을 빌리기도 했고 낙제만 면하기 위해 적당히 써 내기도 했다. 점심 때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점심을 굶고 산기슭 풀밭에 말 없이 누워서 고른 배를 달랐다. 시장 뿐 아니라 곳곳에서 애기 머리만한 큰 찜빵을 팔았다. 속에는 아무 것도 들어 있지 않았고 설탕으로 약간 맛을 낸 이 빵은 값이 싸서 많은 가난한 피난민들이 이것으로 배를 채웠다. 우리 세대 피난 학생과 피난민 중에는 부산의 이 찜빵을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동안에 6.25 전쟁의 정전협정이 진행되어 있었고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휴전반대 시위행진이 자주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전하기를 거부하고 복진하겠다고 고집하였고, 반공포로의 강제 복송을 막기 위해 거제도 포로 수용소의 미군 경비병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철조망을 절단하여 반공 포로를 석방시킨 것이 이때였다.

우리 대학생들도 대부분이 휴전반대 시위행진을 여러 번 하였는데, 휴전을 바라던 미군의 총에 내 바로 앞에서 함께 행진하던 서울대생이 다리에 관통상을 입은 일도 있었다. 그러나 1953년 7월 27일에 6.25 정전협정은 체결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기획 8.15 69돌>

내 생애 큰 영향끼친 스코필드



김현영(수의대 58)PA
파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
초빙교수

필자는 지난 4월 11일 서울대 주최 '스코필드 박사 추모기념 심포지엄'에 강사의 한 사람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오연천 총장의 기념사, 정운찬 전 총리의 스코필드 장학금 수여 및 격려사, 이종찬 전 국정원장의 '스코필드 박사의 독립운동'이란 주제의 강연 등 귀중한 자리였다.

▶스코필드에 대한 추앙 = 이같이 훌륭한 분들이 스코필드 박사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것은 스코필드가 학자로, 선교사로서 그만큼 훌륭한 분으로 추앙받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서울대와 온타리오대에서 각각 그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필자는 'Dr. Frank Schofield: A Scholar and Missionary, Spreading His Spirits in Guatemala(학자이며 선교사인 스코필드의 정신이 파테말라에서 퍼지고 있다)'란 주제로 강연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올리고 있다.

필자는 1958-1962년도 서울 연건동에 있었던 수의과대 재학시절 스코필드 교수로부터 직접 선진 수의병리학(Veterinary Pathology)을 배우면서 동시에 기독교적 박애정신을 배웠다. 그는 곧고 바른 생활을 하면서 핑계와 거짓말을 용납 못하는 신실한 신앙인이었다. 그와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그가 몸소 실천한 교훈과 정신을 본받고 그를 role model로 삼아 파테말라에서 초빙교수로 또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다.

2013년 10월 서울대 '자랑스런 수의대인' 상을 받았는데, 그 상패 내용에는 '저명한 졸업생에게 주는 공로상으로서 귀하는 대학시절 희생적이고 봉사정신이 높은 스코필드박사를 존경하고 그를 롤모델로 삼아 젊어서는 미국 수의연구소에서 수의전문인으로 봉사하였고 인생 후반기에는 파테말라에서 교수와 수의과 의료 선교사로 우수한 업적을 수행하고 있어 상을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스코필드 스승께서 제자에게 뿌린 하나님의 박애정신, 겨자씨가 자라 열매를 맺어 제3국 파테말라에서 다시 씨를 뿌리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제34번째 민족대표 = 스코필드 박사는 세계적 학자로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과대학에서 은퇴 후 70세에 두 번째 한국으로 돌아와 마지막 생애 12년을 교수로, 선교사로 가장 뜻있게 사역했고 한국을 기독교적 선진국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때 한국을 도와 3.1 독립운동의 제34번째 민족대표로 추앙받았다.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던 그는 한국땅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에 묻혔다. 그의 생애를 4개의 주요 시기로 나누어 교훈을 나누고자 한다.

▶첫째 = 스코필드는 1907년 17세의 어린 나이에 혼자 영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 야망이 있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을 원했지만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큰 목장에 취직했다. 여기서 2년간 열심히 일했으나 먹고 자는 것을 제하면 돈을 저축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영국에서는 고학으로 대학공부가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생각을 바꾸어 더 좋은 기회가 있는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이다.

목장에서 일하며 돈을 모아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 진학, 고학으로 공부했다. 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무명의 한 소년이 세계적 수의과학자가 되는 어려운 첫걸음을 뚫고 앞으로 가고 있는 개척자적인 교훈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 전문인 선교사로 한국에 온 일이다. 1916년 첫 번째 한국 입국은 그의 인생에서 그가

또한 저온살균법(Pasteurization)을 통한 우유 살균처리로 우유와 치즈가 대중화되고 냉장고의 발명과 발달로 인해 소고기, 돼지고기를 도시에 공급하는 낙농 목축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였다. 이런 시대적 변화로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은 대도시 토론토에 있던 캠퍼스가 낙농 목축산업이 근접한 겔프로 이사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수의대가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 캠퍼스 이전과 함께 새 건물을 건축했다. 그 중 Veterinary Investigative Laboratory Extension Service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 시설은 현재 Pathobiology/Animal Health Laboratory 로 크게 발전했다. 새로 만든 스코필드 메모리얼홀도 이곳에 있다.

이 Animal Health Laboratory는 수의과 대학 소속이지만 주정부 산하 연구소로 겸용되며 대민 봉사를 대학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곳이다. 목장의 젖소·돼지 등 동물의 질병을 검사·진단하는데, 특히 질병으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수거해 부검하고 현미경적 조직검사, 미생물 배양, 독성검사 등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다른 동물들은 물론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는 전염성 질병 예방을 하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질병진단 및 연구기관이다.

현재 이 Animal Health Laboratory는 산업동물·야생동물·반려

곰팡이가 오염되면, sweet clover 내에 있던 동물에 해가 없는 정상적인 Coumarin이라는 화학물질로부터 독성을 가지는 Dicoumarol이라는 항응고성 화학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연구로 많은 소와 송아지의 생명을 구하고 예방하게 되어 낙농업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그 후 Dicoumarol을 연구하여 Warfarin 또는 Coumadin이라는 의약품을 만들어 인의학에도 크게 공헌하게 된다. Dicoumarol이 발견된 지 92년이 되고 있지만 현재도 Warfarin은 사람의 혈전증, 심근경색증, 뇌졸중, 심장맥혈전증 등 큰 위험이 있는 환자 또는 둔부나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투여되고 있다. 그의 Dicoumarol 진단과 연구는 과학자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셋째 = 스코필드는 1958년 대학교수에서 은퇴 후 캐나다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야 할 70세 나이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외국인 교수로 그리고 선교사로서 마지막 12년을 보내 가장 뜻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다. 당시 연건동에 있었던 수의과 대학에는 4개 건물이 있었다. 그 중 허술한 목조 건물 안에 병리 실험실이 있었다. 도살장에서 금방 수거해온 소의 허파와 심장이 함께 붙어 있고 피가 흐르는 기관(organ)을 비닐장갑이 없던 시절이라 맨손으로 직접 만지며 열심히 실험적 병리학을 가르쳐 주

토기장을 만들어 채소와 토끼고기를 먹게 하였다. 자급자족하는 자립정신을 가르친 것이다.

▶그의 정신을 따라 = 그는 수의대생 뿐 아니라 영어 성경지도 등 만나는 많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박애정신 겨자씨를 뿌렸다. 겨자씨는 씨앗 중 가장 작은 씨에 속하지만 일단 땅에 뿌려지면 몇 주만에 4-5m나 되는 큰 나무로 자라게 된다. 작은 겨자씨 안에는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성장력이 내재해 있으며 자란 후는 새들이 둥지를 틀고 깃들어 살게 하는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박애정신이 깃들고 있는 것이다.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은 개인과 사회를 위해 큰 성공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간직하고 있다.

필자는 스코필드의 길을 따르고자 노력하며 이를 감사하고 있다. 가난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해 미 수의사가 돼 정부 연구소(Pennsylvania State Veterinary Laboratory)에서 33년간 수의병리 연구관(veterinary pathologist)이라는 전문직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 뒤 소명을 깨닫고 67세로 은퇴해 살기 좋은 미국을 뒤로 하고 가난하고 치안이 위험한 제3국 파테말라에서 초빙교수로, 선교사로 봉사하게 된 것은 모두가 스코필드의 기독교 박애정신의 겨자씨가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파테말라 산칼로스 국립대학에 간단한 동물 질병진단 연구실(Bovine Mastitis Lab)을 새로 만들어 대학과 낙농지역사회에 가장 선진적인 미국의 veterinary diagnostic pathology에 대한 학문과 기술을 가르치며, 동물 질병진단 봉사로 낙농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생과 교수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특히 대학교수 2명에게 기술연수 장학금을 수여, 미 Langston 대학에서 젓염소 훈련을 받고 돌아오게 했다. 대학내 영어성경반을 통한 캠퍼스 선교, 대학과 함께 Goat Extension Program을 만들어 가난한 마야 원주민들에게 젓염소를 무상분양, 교육시키고 그 마을을 영적·경제적·정신적으로 개발하는 교회개척에도 참여하고 있다. 금년 7월에는 모교 수의대 재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주어 파테말라 현지 실습 및 봉사를 위한 범세계적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스코필드가 한국에서 뿌린 겨자씨는 그의 제자들을 통해 미국으로, 파테말라로 건너가 계승되고 증식되고 있다.

그의 정신은 또한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대에서도 매년 저명한 과학자가 초청되는 Schofield Memorial Lecture를 통해, 그리고 새로 건립된 Animal Health Laboratory 건물의 The Schofield Room을 통해 기억 계승되고 있다.

스코필드는 한국에 특별한 사명을 가르쳐 주고 있다. 한국은 2010년을 기해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격상되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근대화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정신은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이끄는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며, 젊은이들을 세계로 인도하는 햇불이 될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 한국을 도와 3.1 독립운동의 제34번째 민족대표로 추앙받았다. 진정으로 한국을 사랑하던 그는 한국땅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에 묻혔다”

좋아하는 과학과, 그의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은 기독교적 박애정신을 접목하여 실행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온타리오 수의대를 졸업하고 모교 강사로 임명된지 불과 2년 후인 27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의료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가난하고 미개발국인 한국에 입국해 4년간 봉사했다.

이 4년 동안의 많은 체험은 다음에 더 훌륭한 일을 위한 준비기간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은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많음을 볼 수 있다.

스코필드를 한국으로 부른 것은 당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교장인 Avison을 통해서였다. 하나님께서 비밀스럽게 준비시켜 놓은 스코필드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것이다. 평소 스코필드의 세균학 연구와 신앙생활을 보아 왔던 에이비슨은 스코필드를 마음 속에 간직했다가 결정적 시기에 그를 초청한 것이다. 에이비슨은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에도 스코필드 한국 선교사 파송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상태였다.

▶셋째 = 스코필드가 4년간 제1차 한국 선교를 마치고 1921년 캐나다의 모교 온타리오 수의대로 돌아가서는 세계적 수의학자로 키워지는 과정이다. 당시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산업혁명 후 북미에서는 1920년대에 자동차가 처음 생산되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길이 생기고 농업도 기계화 되는 시기였다.

동물의 건강관리와 전염병 예방에 공헌하는 국가 연구소이며 국제적 축산물 무역에도 관여하고 있다. 대학, 가축 소유주, 개업수의사, 정부기관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일하는,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연구기관이다.

그 때 스코필드는 새로 세워진 Veterinary Investigative Laboratory Extension Service에서 일하게 되는데 이는 그와 같은 명석한 두뇌와 분석적 성격의 소유자에게 꼭맞는 분야인 동시에 대학에서도 그처럼 미생물학과 병리학을 함께 아는 수의전문가가 필요하던 때라 결과적으로 그에게는 한국에서 힘들었던 의료선교 경험과 함께 세계적 수의병리학자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됐다.

당시 목장에서는 겨울철이 되면 젓소와 송아지들을 목야지에서 축사로 불러들여 그 안에서 지내게 하고 사일레지와 건초를 먹였다. 그런데 대학 주변 목장에서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젓소와 송아지가 갑자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다.

스코필드는 이 병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죽은 동물들을 부검해 조직을 현미경으로 조사하고 세균이나 바이러스 가능성도 검토한 결과, 원인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 후 현지 목장을 방문하면서 곰팡이가 오염된 목초인 sweet clover 사일레지를 먹인 소에서만 출혈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계속 연구한 결과, 그 독소는 바로 사일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시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는 아주 정직하고 엄격하여 무서운 호랑이 할아버지로 불렸다. 그의 기독교적 바른 생활, 엄격한 성품, 높은 수준의 교육열, 그리고 교과서 위주가 아닌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병리학 수업으로 학생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 수의대에서도 명철한 두뇌, 빨리 회전하는 대화와 위트, 누구에게도 날카로운 혀로 받아치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됐다.

당시 한국 대학교육의 질이 일본 교육제도를 받아 아주 후진적일 때, 세계적인 교수가 선진적 실제적 수의학을 직접 교수와 학생들에게 가르쳐 미개지 한국에서 수의학의 새로운 비전을 보여 주었다. 미국 유학시 경험해 보니 한국에서 그로부터 받았던 실질적 병리학은 정말로 훌륭한 강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 박애정신 = 더욱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기독교적 박애정신을 배운 것이다. 그는 사비를 털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영어 성경을 가르쳐 선교에 힘썼고, 학생들의 해외유학을 도와 한국사회에 크게 기여하는 훌륭한 기독교적 지도자를 키우는 인격 교육에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시다.

그는 또한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도 했는데, 서울 뚝섬 건너 편에 자리 잡고 있던 봉은 보육원에는 80여명의 고아들이 살고 있었다. 그는 고아원 주변의 대지 300여평을 구입, 기증해 채전과

<기획 8.15 69돌>

‘코리안의 노래’ 부르기 운동



이정근(사대 60) CA
목사·미주성결대 명예총장

“일본 강점시대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을 민족반역자라고 부릅니다. 그와 똑같은 논리로 이 시대에 만약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후일 통일 반역자라는 낙인을 각오해야 합니다.”

나는 자주 그런 주장을 펴 왔다. 그리하여 나 자신이 민족 목회 혹은 통일 목회에 여러 형태로 적극 참여해 왔다.

남가주 교회협의회장 임기 중에는 서울특별시 교회협의회장과 공동으로 ‘남북통일 선언문’을 서울과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표했다. 휴전선 남북 평화교회 설립도 제안했고, 다국적 유엔군을 남북에 상주시킴으로 세계 최대 화약고의 군비 축소를 도모하라는 아이디어도 제공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통일 논의를 ‘함생 통일론’이라 이름 붙였다. ‘함께 살아남기 위한 통일론’이라는 뜻이다.

1989년 말 평양을 방문했다. ‘기독교 평양복음화 대회’ 개최 준비위원회 총무 자격으로 위원장 김의환 목사와 함께 갔다.

하지만 꼭 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그 의미심장한 행사가 복잡

정치적 갈등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남북한과 해외 동포 각 1천 명씩 평양에 모여서 북음의 깃발을 휘날리며 신앙의 자유를 선언하려던 역사적 사건이 안타깝게도 불발탄이 된 셈이다.

그런데 그 때 남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 평양 사람들과 쉽게 친숙해질 수 있었다.

우선 전시용 교회라는 비판도 있지만 남북이 같은 찬송가를 불렀다. 아리랑 같은 민요는 북쪽이 더 열심히 불렀고, ‘나의 살던 고향은,’ ‘울밑에 선 봉선화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있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를 부를 때에는 배꼽을 잡으면서 웃음이 폭발했다. 그렇다면 남북이 함께 부를 노래를 더 많이 만들고 더 자주 부를 수는 없을까.

그 때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한반도 남과 북 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사는 한인들이 점점 늘어갔다. ‘가레스키(옛 소련 거주 한인)와 중국의 ‘조선족’들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절실해졌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걸쳐 생각을 다듬고 표현을 수정 보완하여 탄생한 것이 다음과 같은 ‘코리안의 노래’ 가사였다.

1. 우리는 코리안 하얀 무궁화/한강 대동강 거기가 내 고향/떨어져 떨어져도 다시 피어나/어두운 온 세상 새 희망 심네./
2. 우리는 코리안 붉은 진달래/백두산 한라산 거기가 내 고향/잘려도 잘려져도 다시 피어나/메마른 온 세상 새 사랑 심네.
3. 우리는 코리안 노란 민들레/삼천리 반도 땅 거기가 내 고향/

깃뻘혀 깃뻘혀도 다시 피어나/사나운 온 세상 새 평화 심네. (후렴: 우리는 코리안 희망심는 일꾼, 우리는 코리안 사랑심는 일꾼. 작곡에서 후렴은 선택적임)

이런 가사를 쓰면서 남한과 북조선에서 다 함께 즐겨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무색한 언어 표현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절히 느꼈다. 그래서 ‘코리안’이라 했고 ‘한강 대동강’이라 했고, ‘백두산 한라산’에서는 남북의 순서를 바꾸었다.

처음에는 ‘아시아 한반도’로 했던 것을 최근에서야 ‘삼천리 반도 땅’으로 고쳤다. 아직도 ‘내 고향’이나, ‘옛 고향’이 더 좋겠느냐, 결정하지 못했다. “왜 ‘코리안’이라는 영어를 사용했느냐”는 항의도 받았다.

“코리안은 ‘고려인’의 영어식 표현 아니냐”고 대답했다. 그러나 남북 북남이 함께 쓸 수 있는 민족의 명칭은 ‘코리안’ 밖에 없지 않은가. 삼천리 반도 땅에 많이 피고 있는 세 가지 꽃을 소재로 사용했다. 그것도 남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꽃들이고 특히 우리 민족이 겪어온 고난을 상징하는 꽃들이었다.

‘떨어져 떨어져도’를 표현할 때에는 임진왜란 때 적군의 칼에 우리 민족의 목이 떨어지던 모습을 그려 보았다.

‘깃뻘혀 깃뻘혀도’는 강제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슬픈 사연, ‘잘려도 잘려져도’는 38선과 휴전선으로 허리가 잘려진 반도 땅을 연상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우리 코리안들의 사명을 강조했다. 그토록 고난 받아온 민족이었기에 오펀이처럼 다시 일어나 온 세상에 희망, 평화, 사랑을 심는 일에 헌신하자는 격려를 담았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 가치이면서도 온 인류의 역사가 가야 할 보편적인 방향이기 때문이다.

동문 시 감상

구름 위에서

백옥자(음대71)
미주 동창회 조직국장



예쁜 흰 꽃송이 땅 위에
떠 있네

땅은 물 속에서
투명하게 비치고

물 위엔 흰 연꽃이
흘러 흘러가고 있네

저 편 흰 언덕은
굴러도 보고싶어

손 안에 가득이 모아
던져도 보고싶네

새 깃 같은 저 구름은

구속없는 자유네

마냥 마냥 세상 구경
온 천지 다함일세

꽃구름 방식되어
나도 친구되어주려나.

(*제23차 워싱턴 DC.평의원
회의를 마치고 CA행 비행기
안에서)

이 가사가 완성된 이래 지금까지 박재훈 박사, 황의구 교수, 백경환 목사 세 분이 각각 작곡을 했다. 그 가운데 대중성이 높은 것은 백경환 작곡본이어서 일단 그것을 ‘코리안의 노래’로 보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남북과 해외의 8천만 우리 코리안들이 함께 부를 더 좋은 가사, 더 좋은 작곡이 출현하기를 학수고대한다. 특히 우리 서울대 동문들 가운데서 새로운 작사자나 작곡자가 출현하기를 고대한다.

이 노래가 지난 6월 18일 GBC(미주 복음방송)을 통하여 송출된 이래 미주의 한국일보·중앙일보와 한국의 YTN이 상세히 보도했다.

특히 한국의 통일부가 종합취재하여 정부 TV 채널로 보도하는 등의 관심을 표했다.

이 노래의 발상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6.25 참전용사 초청 위

로회에서 한인 합창단들이 불렀으며 마스터 코럴, 선농 합창단, 실비치 합창단, 조이풀 합창단, 유니온 교회 찬양대, 기독교 합창단 등이 불렀다. 특히 통일부에서는 그 노래의 가사 전문과 합창을 삼천리 반도 땅에 올려피도록 송출했다. 통일의식 고취에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코리안의 노래 보급협회’도 조직했다. 아무쪼록 이런 노래가 많이 생산되어 삼천리 반도 땅과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민들레 씨앗처럼 널리 널리 퍼져나갔으면 참 좋겠다. 민족의 자아성(identity), 긍지, 사명을 드높이고 일체감을 돈독하게 만드는 튼튼한 밭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모교 대학원에서도 국어교육을 전공했으며 영어 교육과 64년 입학 박부장 동문과 부부다).***

<4면에서 계속>

1946년 10월 과도입법 의원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 민선위원 46명에 군정청이 임명하는 46명, 총 92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의회를 세우기 위해 의원장으로 김규식이 선출됐다. 이 과도 입법회의는 임시 의회임에도 미성년 노동법, 민족 반역자와 전범 처벌 등에 관한 특별조례법 등을 제정했다.

1947년에 들어서면서 군정은 정권 한국화를 시작했다. 행정수반에 안재홍을 임명했고 사법권의 자치와 치안권 이양을 도모하여 한국인들을 임명했다. 1947-1948년 임명된 통치자 및 4부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최고 통치자 존하지, 행정수반 안재홍, 과도입법의원 의장 김규식, 부의장 신익희·윤기섭, 대법원장 김용무, 검찰총장 이인, 검찰위원회 위원장 정인보 등이다. 그리고 애국가가 처음 공식 사용됐다.

▶대한민국 수립과 미군 철수 = 1947년 10월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돼 미국은 한국문제를 UN총회 결의로 해결하려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1948년 1월 UN 한국임시위원단(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OK)이 한반도를 방문했다.

미 군정은 수용했으나 소련이 방문을 거부해 그 해 2월 한국의 가능한 지역(남한)에서만 선거를

실시하자 미국 제안이 UN에서 가결됐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총선거로 국회가 구성됐고, 8월 15일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이후 9월까지 윤치영·조병옥 등을 통해 정권을 이양, 대한민국 설립 후에도 10개월간 Charles G. Helmick(1948년 8월 15 ~ 1949년 6월, 10개월) 준장이 고문으로 있다가 1949년 6월 철수했다.

대한민국은 UN에 의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됐다. 합법정부가 수립됨으로서 미·소 군대가 주둔할 명분이 없어져 소련군이 1948년 12월, 미군이 1949년 6월에 각각 철수했다.

대한민국의 수립은 소련에게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소련은 북한 인민위원회에 지령해 소련의 본을 떠 공산주의 체제 헌법을 제정하게 하고 평양에 공산권 체제의 정부를 수립해 김일성을 수령으로 9월 9일 선포하였다. 38선이 영구 분단선이 된 첫 단계다.

▶당시 집권자 = <사령관> •John R. Hodge, 1945년 9월 8일 ~ 1948년 8월 26일 •John B. Coulter, 1948년 8월 27일 ~ 1949년 1월 11일 <군정 총독·장관> •육군 소장 Archibald V. Arnold, 1945년 9월 11일 ~ 1945년 12월 17일(3개월) •육군 소장 Archer L. Lerch, 1945년 12월 18일 ~ 1947년 9월 11일

(재직중 사망, 9 개월) •육군 준장 Charles G. Helmick, 1947년 9월 12일 ~ 1947년 10월 30일(적무대리 40일) •육군 소장 William F. Dean, 1947년 10월 30일 ~ 1948년 8월 15일(9 개월) •Charles G. Helmick, 1948년 8월 15일 ~ 1949년 1월 11일(5 개월, 고문?)

안재홍(安在鴻)은 1947년 10월 30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민정장관을 맡았다(9 개월).

▶결론 = 미 군정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미약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거의 불가능한 이유가 있었지만 근본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술의 한영우 교수가 의하면, 해방직후 한국민이 원했던 나라라 미국과 소련이 세우려 했던 나라가 성격상 달랐기 때문이라 했다.

“유교의 오랜 전통에서 서양근대 문명을 받아들인 대다수 국민들이 그리고 있던 현대국가는 미국식 소련식과는 다른 모습의 국가였다. 그것은 자산가들이 주도하는 국가도 아니고, 무산가들이 주도하는 국가도 아닌 만민 협조의 국가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매개로 한 공중성이 높은 문화 국가였다.”

그러나 해방 후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의 자유로운 국가건설을 어렵게 했다. 남한은 미 군정하, 이북은 소련군 점령하에 있었다.

미 군정은 두가지 목적 중 부분적으로는 반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미 군정의 엄격한 정책은 극우파를 등용해 공산주의자는 물론 중도 민족주의자, 지식인, 정치적 온건파, 온건좌파, 한반도 통일 주장자 등을 일체 제거했다. 결과, 정부수립 후 39년간(1948-1987) 한국 정계는 우익, 군대, 전체정치인들이 독점하였다.

미 군정의 제2 목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이식은 제한된 성공이다. 즉, 미 군정은 좌우 합작운동에 실패했다. 좌우 합작운동에 대해 비난이 많다. 희망도 없었던 헛수고, 좌익의 수작(이 박사의 비난)이라 한다.

그러나 재미 한국학의 저명한 학자 이정식 박사는 좌우 합작의 노력이야 말로 우리 민족의 정신 역사에 큰 의미를 준다고 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단일 국가로 지속했던 나라 중 하나로 13세기를 지내 온 나라가 하루 아침에 분단됐는데 그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을까?

한국사의 원로인 고 이병도 박사는 “해방 후의 모든 과오와 혼란을 타율적 원인에만 미룰 수 없고 자율적 정기와 단결로 극복해야 했다. 역사를 움직이는 ‘대아’ ‘소아’ 2대 정신 중 대

아정신을 소지한 인물이 있어야 해방 직후 3년의 소용돌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라 했다.

미 군정의 온건파 삭제로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체제와 구조는 세워졌으나, 내용과 실행은 민주적이라 할 수 없었다. 민주주의는 1987년까지는 절차상(procedural)의 민주주의였다. 그러나 기본적인 조직을 세워 놓았기 때문에 즉시 실행되지는 않았어도, 민주주의 국가를 건립하고 “보다 완벽한 민주주의를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역대 한국정권의 근본 이념이며 집념이었다.

“과오도 많이 저지르고 실패한 과제(좌우 합작, 통일 등)도 많았지만, 본인은 미 군정은 계량이 불가능(unquantifiable)한 일을 성취했다고 본다”며 고 오기창 박사는 일찌기 1969년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미국은 한국에 민주주의 의식, 패턴, 추세를 심어 놓았다.”

어떻게 보면 측량할 수 없는 유산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다. 남한에는 미국에서 군정을 시행했으므로 삼성·LG·Kia·현대를 자랑하는 세계 12번째 경제를 즐기고 있고, 신생 국가들의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민중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이 현상은 이북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 강연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신농업 기술



김병동(농대 62)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명예교수

제3회 Brain Network Symposium(6월 27일)의 생명과학 분과에서 김병동 명예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게재한다.

▶**소개 및 요약** = 식량은 생존의 기본 조건이고, 나라의 자존권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다. 지금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굶어죽는 사람이 수없이 발생 중이고, 심한 발달장애 어린이가 장차 커다란 사회적 부담으로 대두될 것이라 한다.

남한의 식량자급률은 25% 정도로 국가차원에서 우려할 문제나 현실적으로는 밥과 고기를 마음껏 먹고 있다. 한겨울에도 수박·딸기 등을 즐길 수 있어 오히려 과식과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어 위기감을 모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비교적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기에는 경제발전과 함께 농업과학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다. 최근에는 첨단 생명과학기술이 농업에 접목돼 단순 먹거리 제1차 산업에서 건강식품, 보건, 의료, 생태, 문화에 연결되는 제6차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다. 농업은 21세기 생명과학 시대에는 생명산업의 재료이자 제품을 책임지며 기초생명과학의 핵심까지도 다루는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량문제 누가 책임질까** =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다수확, 병이나 재해에 강한 품종이 육종의 중요한 목표였다. 식물 외에도, 물주기, 비료 주기, 제초제와 병충해 약 뿌리기, 농기계 사용 등 재배법의 발전이 식량 증산에 공헌했다.

제초제와 검은 비닐의 등장으로 농민이 잡초 뽑기에서 해방되면서 도시와 공장으로 빠져나가 산업 발전에 투입됐다. 비닐 하우스의 등장과 수확 후 관리법의 발달로 연중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더욱이 국제 자유무역의 관행에 의해 우리나라도 일정량의 식량을 도지, 기후, 노동력 등이 유리한 나라에서 수입하게 돼 외국 농산물도 우리 식탁에 수시로 오르게 됐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수한 종자와 농산물, 식품, 생명산업 제품 등 경쟁력 있는 품목에 집중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는 경제체제로 전이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 수산물은 언제 닦칠지 모르는 국가 위기 상황에 대비해 자체 생산능력을 유

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들 생물관련 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유전자 정보, 식품, 의료, 보건에 직결되는 생명자원, 과학기술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심각한 각축장이 돼 있는 만큼 생산량과 효율성만 따져 선불리 포기했던 품목도 회복해야 하는 상황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

▶**분자표지와 분자유종** = 분자생물학의 발달이 유전체학의 발달로 이어지면서 생명과학은 21세기 경제의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다. 인간은 물론 거의 모든 경제동물, 식물, 미생물의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가 밝혀지고 있으므로 생명현상은 생명체를 유전체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분자생물학 기술은 세 가지 방향에서 농업에 응용되고 있다. 첫째는 분자 표지를 이용하는 분자유종, 둘째는 형질전환 식물이며, 셋째는 바이오 의약이다. 도시형 식물공장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농업과학은 기초생명과학의 한가운데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었다.

고전 교배육종은 분자유종 기술이 도입되면서 분자유종으로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수확량이 높아진 통일벼, 태풍에 쓰러지지 않는 키 작은 밀, 병에 강한 토마토 등은 교배육종과 선발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 때 양친이 가진 우수한 유전형질을 후대에 집적시키기 위해 교배하면 원하는 형질만 아니라 모든 형질이 다 섞여버린 후이므로 많은 개체 중 다시 원하는 유전자 조합을 가진 개체들을 선발해야 하는데, 이 반복되는 과정이 8~10년은 걸린다.

그런데, 원하는 우량형질 유전자 유무를 판별하는 분자 표지가 있다면 식물의 어린 모종 단계에서 선발이 가능하다. 즉 될성품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게 되므로 재배면적과 시간, 비용, 노동력, 육종 단계들을 대폭 삭감할 수 있고, 신품종도 4~5년 안에 내놓을 수 있으니 가히 혁명적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한국 채소종자는 이러한 분자유종 시대로 들어섰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분자표지 기술은 가축 및 수산물 육종, 각종 질병진단, 원산지 판별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인간의 유전병이나 각종 질병 진단에 분자표지가 사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가 농업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형질전환 식물** = 분자표지가 육종과정에서 선발 효율을 높이는 수단으로만 쓰이는데 반해, 형질전환 기술은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지 않은 외부 유전자를 넣어 새로운 형질을 갖게 하는 첨단기술이다. 가장 대표적 예가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와 내충성 유전자가 도입된 면화·옥수수·콩, 카놀라 식용유 유채, 비타민 A 함량이 높아진 골든 라이스, 파란색 장미, 빛나는 물고기 등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 널리 재

배되고 있다.

형질전환 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나라들은 미국·캐나다·멕시코·온두라스·콜롬비아·칠레·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남아공·호주·필리핀·중국·인도·스페인·프랑스·독일·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 등이다. 형질전환 기술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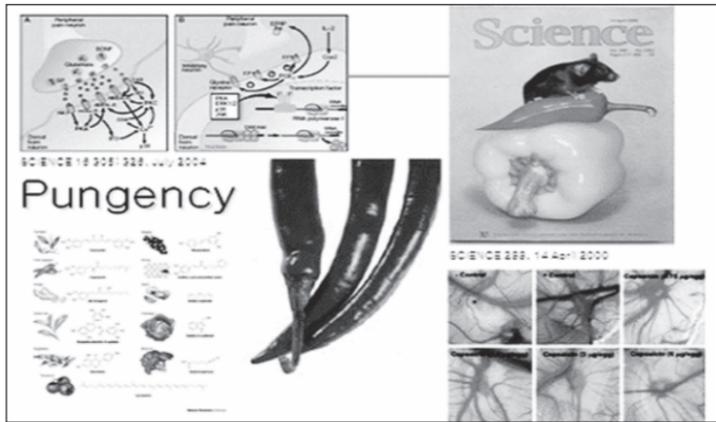
1. 교배육종에서처럼 모든 유전자를 섞은 후 다시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특수 기능을 가진 유전자만 디자인해 운반체에 실은 후 세포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넣는 것이므로 기존의 좋은 품종에 원하는 특성만 단번에 도입할 수 있다.
 2. 특수 유전자는 같은 종끼리만 교배되는 식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생물, 동물, 다른 종의 식물에서 유래한 것도 가능하다.
 3. 특수 기능 유전자의 수와 범위, 또한 유전자 도입 기술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동물, 식물, 미생물 및 의학의 기초과학 발전이 눈부시다.
- 형질전환 식물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를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초제 저항성 또는 내충성 유전자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 (답: 제초제 저항성은 광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에 제초제 화합물이 붙지 못하도록 단백질 구조만 변형시켜 생긴 특성이다. 일반 잡초는 제초제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서 죽어도 형질전환된 작물은 살아남는 것이다. 광합성 관련 단백질의 미세한 구조 변형은 인체영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내충성 유전자는 있을 값아 먹는 애벌레의 내장에서 신장을 마비시켜 죽게 하는 독소 단백질의 유전자를 한 박테리아에서 분리해 형질전환에 사용한 것이다. 그 독소 단백질은 애벌레 내장에서 서만 특수하게 발현되는 것이지만 인간이나 짐승이 동물에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 안전한 것이다.)

2. 도입된 유전자가 야생종과 교배를 통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답: 형질전환 식물이 대량 재배되면 야생 식물과 교배가 일어나거나 내성을 가진 곤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됐으나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됐고 기술도 발전해 이제까지 별다른 문제 발생 보고가 없다.)

3. 형질전환 작물이 소비자 모르게 시장에 유통돼 위험할 수 있다. (답: 제초제 저항성 또는 내충성 옥수수와 콩은 실용화된 미국에서 가축 사료로 사용 승인이 나서 사용하지 이미 20여 년이 지났는데 가축이나 그것을 먹은 인간에게 뚜렷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다. 세계적으로 형질전환작물의 재배면적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독점생산하고 있다. 소비자는 표기된 상품을 선택하여 구매할 자유가 있다. 형질전환식물 기술이 기존 교배육종의 종합적 기술을 대체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으나 특수한 목표를 가진 유전자의 경우 강력한 효과가 있다. 분자유전학 기술과 정보가 발전하면서 형질전환에 의한 육종도 점점 그 적용범위가 커지고 일반적인 기술로 자리 잡을 날이 올 것이다.)

▶**바이오 의약과 식용백신** = 소위 음식의 3대 요소로 불리는 탄



↑ 위 사진은 고추의 매운 성분 캡사이신 합성유전자(CS)의 구조와 분자표지를 이용해 매운 품종과 안매운 품종을 구별하는 방법을 그린 그림(출처: 김병동). 아랫 사진은 김포읍의 식물 공장 내부 모습.

수화물·단백질·지질 외에도 20여종의 필수아미노산이 식물에서 공급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약초 외에 평소에 먹는 곡식, 채소, 과일, 버섯, 견과류 등에는 건강을 지켜주거나 병을 치료해주는 화합물이 많다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식약동원이라는 옛말은 식품과 약은 같은 뿌리를 가졌다는 말이고, 서양역언에는 당신의 몸은 무엇을 먹느냐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다. 위 사진처럼 고추 매운성분 캡사이신을 비롯한 식품 유래 항암 성분들이 약리학과 생화학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출처 김병동)

식물은 자연이 발명한 최고의 화학공장이다. 인간의 화학물질 합성능력이 고도로 발달했으나 식물이 생화학적으로 만드는 천연화합물의 종류와 복잡성에는 따라갈 수 없다.

화학 분석 기술의 발달로 이제껏 알지 못하던 대사물질이 대량으로 밝혀지고, 단백질도 미세량으로도 아미노산 서열을 알아낼 수 있게 됐다. 유전체 염기서열도 빠르게 분석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으므로 총체생물학의 발달은 가속도가 붙게 됐다. 따라서 미확인 화합물의 구조도 알아내고, 그 생리활성 기능도 연구해낼 수 있고 대부분의 대사경로에 관여하는 유전자도 분리해낼 수 있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질병에 특효가 있는 천연화합물이 있다면 그 합성 유전자를 분리해낸 후 유전공학으로 미생물에서 대량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바이오팜(천연물 유래 제약)은 수조원을 넘는 미래의 경제 견인차로 각광받으면서 세계 각국이 이미 총력전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분야는 식물학, 유전 육종학, 유전체 정보과학, 생화학, 유기 및 분석화학, 세포생물학, 약리학, 의학, 나노과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효율적인 융합이 성공의 관건이며 종합적 식견을 가진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절대적

으로 필요한 이유다.

▶**식물공장** = 비옥하고 광대한 토양, 풍부한 물, 따뜻한 기후, 이 세 가지는 풍부한 식량 확보의 조건이다. 불리한 환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유리 온실과 비닐 하우스 재배가 발달해 한 겨울에도 채소와 꽃이 생산된다.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을 받기 위해 넓은 표면적이 필요했으나 최근 개발된 LED 광원은 전력 소모가 적고, 여러 광파장을 조절할 수 있어 식물의 광합성을 가늠해 하므로 실내에서 계단식 공간에서도 공산품처럼 대량재배가 가능해졌다.

도시 인근에서 대형 창고형 건물 또는 매장에서 신선한 채소와 화훼식물을 재배해 도시민에게 경제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 분야 기술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남극 기지에서 이미 한국 기술로 신선 채소가 공급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삼재배까지 축성재배가 가능해졌다.

여러 특수한 상황에 맞춰 기술이 개발되고 수출될 수 있으므로 식물공장도 도시농업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한 IT, BT, EY, LED, 로봇, 건축, 디자인, 문화 등 첨단 과학기술의 융합으로 폭발적 발전이 예상된다.

그림 5. 농업인이 운영하는 한 식물공장 내부 (출처: 김포시청 소식 2013.04.25)

▶**결론** = 식량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먹을거리를 생산하던 시대를 뛰어 넘어 첨단 생명과학과 기술에 기반을 둔 분자유종, 형질전환 생물의 시대다.

우리 식품에는 건강을 지켜주고 병을 고쳐주는 각종 천연화합물이 풍부하다. 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과학기술이 새로운 생명산업과 수출 산업으로 발전해 국가경제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식물공장은 일부 농산물을 태풍, 홍수, 가뭄 등 환경 영향에서 벗어나 공장식으로 대량생산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모교 소식



공대 1호 벤처 양재혁 대표 뉴욕최대 디자인 매장 입점

“세계무대 준비 마쳤습니다”

“세종대왕이 스티브 잡스 대선배..., 그리고..., 한글 덕 쯤 봤습니다”

서울대 공대 1호 벤처 기업인 ‘움직임(UMZIKIM)’의 양재혁(26·산업공학과 석사과정) 대표. ‘모하칸 컷’ 윗머리가 하늘로 치솟았고 근육질 체구가 당당하다.

지난 2011년 출범한 가구 벤처 ‘움직임’이 뉴욕 맨해튼의 최대 디자인 매장인 ‘ABC홈’에 오는 9월 입점한다.

한국인 디자이너로는 처음이다.

‘어른들의 디즈니랜드’라고도 불리는 ‘ABC홈’은 117년 전인 1897년 문을 연 세계 최대 규모의 Design Shop이다.

‘움직임’은 작년 봄 세계 최대 규모인 밀라노 국제 가구 박람회 에서 신진 디자이너의 등용문 격인 ‘사텔리테(satelite)’ 부문에 초청받아 눈길을 끌었다. 당시 “서울에서 온 스물다섯 살의 젊은이가 가구용품의 오랜 문제를 해결했다”는 현지 언론의 찬사를 들었다.

디자인에 집착하면 실용성이 떨어지고, 실용성을 강조하면 예술

←지난 4월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 가구박람회에 초대받아 참가한 벤처기업 ‘움직임’의 양재혁(26) 대표와 송세진(25)·강창범(26) 이사(왼쪽부터).

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말한다. 양 대표는 그러면서 ‘주목해야 할 3대 디자이너’의 한 명에 오르기도 했다.

밀라노전 이후 각국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아우디·벤츠 같은 명차(名車) 디자인을 주도하는 영국의 네이티브디자이너(社)를 비롯해 두바이·홍콩의 글로벌 업체에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이 왔다고 한다.

‘움직임’은 유럽 디자인 시장의 교두보인 밀라노 ‘스파지오 로사나 올란디’의 입점과 협업도 확정된 상태다.

작년 말에는 뉴욕의 ‘ABC홈’이 양 동문을 초청했다. 매장 책임자는 움직임 제품의 간결한 디자인에 관심을 보이다가 ‘움직임’의 자음 ‘ㅇㅇㅇ’을 본뜬 로고를 보고는 “무슨 의미냐”고 물었다.

“세종대왕과 훈민정음부터 설명했죠. 한글은 한국이 세계에 선사한 최고의 발명품이며 ‘나랏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맞지 않는다’고 창제 이유를 밝힌 세종이 백성들의 소통을 위해 고뇌와 공부를 거듭한 끝에 만들었다고요.”

그러자 상대방은 무릎을 치며

가짜 서울대 잡지로 광고비 3억 가로채

모교 공대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광고를 해달라고 속여 동문이 대표로 있는 기업들에서 3억여원을 받아 가로채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008년 9월~지난해 10월 기업체 대표 조모(51) 동문 등 93명에게서 132회에 걸쳐 가짜 서울대 잡지 광고비 3억2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모(44)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은 서울대 뿐 아니라 서울시내 명문대 3곳 졸업생 17만8천여 명의 정보를 무단으로 보관해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광고대행업체를 운영했던 이씨 등은 ‘서울대 공과대학 편집위원회’를 사칭하며 모교 졸업생이 있는 회사에 “모교 공대에서 전문잡지를 발간하는데 후원해 달라”며 광고비를 요구했다. 기업 대표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서 선뜻 지갑을 여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피해를 본 기업 중

에는 대기업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은 기업에 보내는 협찬 문서에 서울대 로고와 관인을 사용하고 광고비를 받는 통장 명의인 뒤에 ‘서울대학’이라고 적어 의심을 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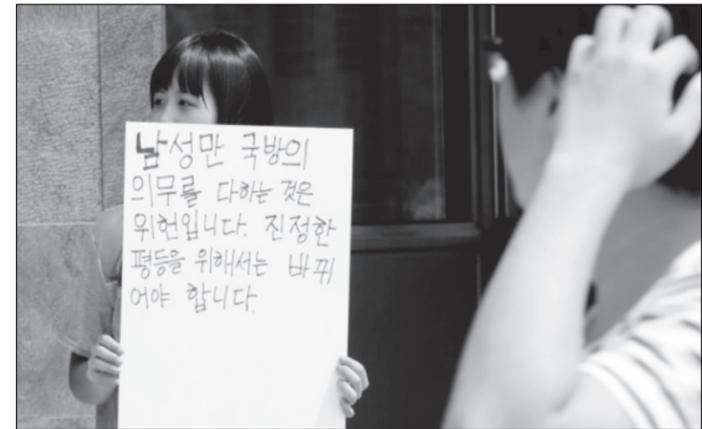
범행에 이용한 동문 정보는 과거 다른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대학에 졸업생 수첩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넘겨받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직장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비를 보내준 기업에 가짜 잡지 샘플을 만들어 보내기도 했으나 잡지가 너무 허술한 것을 의심한 회사가 모교 공대에 확인하면서 범행이 들쭉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서울대에서 잡지 제작을 의뢰받았다고 하면 다른 대학에서도 주문을 많이 해올 것이라고 생각해 가짜 잡지를 만들었고 진짜처럼 보이려고 광고도 협찬받았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스티브 잡스의 대선배가 500년 전에 한국에 있었다니 놀랍다. 당신이 바로 그 후예”라고 했고, 입점 계약도 한결 원활해졌다고 한다.

책꽂이·문서꽂이·쓰레기통 등

‘움직임’이 내놓은 가구의 가장 큰 특징은 ‘간결함’이다. 얼핏 투박해 보이기도 하지만 장식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실용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작품들이다.*** <조선일보>



“여성도 군복무하고 당당해져요”

모교 여학생들 캠퍼스 행정관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

모교 여학생 3명이 지난 6월 30일 “여성도 군복무를 이행하자”며 캠퍼스 안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3시간 동안 행정관 앞에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진정한 평등을 위해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군복무 이행하고 당당해져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의 시위는 사회대에 재학 중인 A씨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1일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최전방 초소(GOP) 총기사건 이후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SNU Life에서 여성 군복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진 게 계기가 됐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이 논쟁에서 종래는 남녀 성대결 양상으로 번졌다는 것이다.

일부 남학생들이 “국방 서비스에 눈꼽만큼도 기여하지 않고 해

택은 모두 누리는 여자가 가장 착취적”이라고 비판하자, 여학생들은 “여성 혐오자들은 주적(主敵)을 잘못 잡았다. 군대 문제의 본질은 사회 구조에 있다”며 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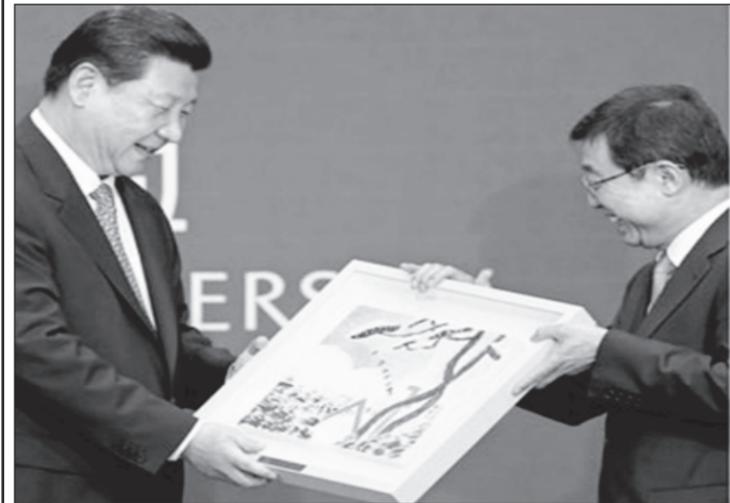
일부 여학생들은 “우리 나라에 징병제도가 불가피하다면 여성 징집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A씨가 지난 6월 29일 SNU Life에 ‘여자들, 우리도 군대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다.

그는 이를 통해 “여성도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게 해달라고 내일부터 학교에서 시위하자”라며 “우리 학교부터 시작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회수가 6000회에 달한 A씨의 글에는 “잘도 하겠다” “할 리가 없지”라는 비아냥부터, “응원합니다” “저도 꼭 참석하고 싶어요”라는 지지의 글 등 총 103개의 댓글이 달렸다.

A씨는 약속한 6월 30일 낮 12시 피켓을 들고 나섰고, 취지에 동



김병종 교수작품 중국서 살 수 있나?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선물 후 중국의 미술 애호가들로부터 문의 전화 급증

“서울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받은 김병종 교수 작품, 중국서 살 수 있나” “그 그림을 또 구할 수 없는가” “가격대는 어느 정도 되는 화가인가. 구입하고 싶다.”

최근 중국의 미술 애호가들이 서울대에 이같은 전화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7월 4일 오연천 총장이 학교에서 특강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에게 선물한 동양화 때문이라고

조한 여학생 2명도 동참했다. A씨는 “여성의 병역 의무화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나왔다”며 “오늘 시위는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는 차원이고, 차후에 서명운동 등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한다.

모교 미대 동양화과 김병종 교수가 서울대 정문 너머 관악캠퍼스 설경(雪景)을 한지(韓紙)에 그린 담채화였다. 제목도 ‘서울대 정문’이다. 시진핑 주석과 관련한 물건이라면 사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금세 완판(完販)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중국에서 김병종 교수의 이 그림이 화제가 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특강이 있는 지 열흘도 안 돼 이 그림을 갖고 있던 서울대 발전기금엔 100여건, 김교수 본인에게도 구입 문의가 10여건 몰렸다고 한다.

←지난 7월 4일 서울대 글로벌 공학교육센터에서 특강을 마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오연천 서울대 총장이 김병종 교수의 작품을 선물하고 있다.

서울대는 당초 국립 서울대학교의 ‘그림’ 세 자음을 형상화한 서울대 정문 모양을 크리스털 또는 도자기 모형으로 만들기로 하고 전국의 전문가들을 수소문했다. 특강 사흘 전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부탁을 받은 내로라하는 장인들도 “귀빈용 기념품 제작엔 최소 한 달 걸린다”며 손사래를 쳤다. 급한 나머지 오연천 총장은 서울대 발전기금재단이 소장하고 있던 김 교수의 그림을 떠올렸다.

오 총장은 “서울대 정문이 그려져 있어 박 대통령이 선물 받았던 청와대 정문 모형과도 통하고 그림 속 두 그루 소나무가 양국 우의를 상징한다”며 이 그림을 선물로 확정했다.

‘생명의 노래’ 연작으로 유명한 김 교수는 “시 주석 강연 직후 중국 신화통신 등 언론 10여곳과 인터뷰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빨간색을 선호하는 중국에선 ‘생명의 노래’에 등장하는 ‘붉은 꽃’이 인기가 높은 편인데 비교적 담담한 색감의 ‘서울대 정문’에 시 주석이 만족을 표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을 찾아 음료수를 건네준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여성이 움직여 군대 문제를 모든 국민의 문제로 확장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 결과가 여성 징병으로 비화해서는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선일보>

노벨상 수상자 세흐트만 교수 '서울대 강의' 의리 지켜

이스라엘 대선 출마로 무산됐던 석좌교수직 9월부터 다시 맡기로

이스라엘 대통령에 도전하느라 서울대 부임이 무산됐던 다니엘 세흐트만(73·사진) 교수가 오는 9월 서울대 석좌교수로 초빙돼 강의를 맡는다. 세흐트만 교수는 2011년 '준결정(準結晶·Quasicrystal)'이라는 새로운 고체 구조를 발견한 공로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석학이다.



벨상 석학 유치 프로젝트' 차원에서 모시기로 한 대표적 학자였

서울대는 "지난 2월 이스라엘 대선 출마 때문에 서울대행이 무산됐던 세흐트만 교수가 2학기부터 물리학부 대학원 '투과전자 현미경' 과목을 맡는다"고 최근 밝혔다.

세흐트만 교수는 서울대가 '노

다. 그는 그러나 지난 1월 "이스라엘 대선에 출마한다"며 서울대에 강의 취소를 통보했다. 세흐트만 교수는 당시 "조국의 부름을 받아 서울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제일 먼저 서울대를 방문하고 낙선하면 늦게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고 한다.

무소속으로 이스라엘 대선에 출마한 세흐트만 교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5% 이상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0일 이스라엘 의회 투표 결과, 재적 의원 120명 중 1명의 지지를 받는데 그쳐 낙선했다. 이스라엘 대선은 국회를 통한 간선제다.

박영우 서울대 물리학부 교수는 "세흐트만 교수의 아내로 저명 교육심리학자인 십보라 세흐트만 교수도 서울대 사범대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기숙사 대형 화재 13분만에 진화

"훈련한 보람" 서울대 기숙사 대형화재 막았다. 관악사 919C동의 '퍼펙트 방재'

"그 큰 불을 잡는 데 고작 '13분' 이라니... 이걸 정말 대단한 겁니다."

지난 7월 27일 오후 9시 42분, 서울대 기숙사(관악사) 919C동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다. 누군가 무심코 지하주차장 폐품더미로 던진 담배꽂이가 순식간에 기숙사 건물 4층 높이만큼 타오른 것. 자칫 9층 건물 기숙사생 150여 명이 희생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대형 화재로 번질 뻔했던 모교 기숙사 화재가 한명의 중상자 없이 13분 짧은 시간에 진압될 수 있었던 건 5월 실시한 화재 대피훈련과 화재가 난 919C동 조교 김경환(28·보건대학원 석사과정) 동문의 목숨 건 구조가 있어 가능했다.

모교는 5월 9일 관악사 전 직원과 919C동 사생 80여 명이 참여한 합동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했다. 매년 화재 대피훈련을 해왔지만 사생까지 참여한 건 처음이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교육부가 전국 대학에 비상대피훈련 실시를 주문, 공공롭게도 시범케이스로 훈련장에 선정된 장소가 이번 불이 난 919C동이었다. 이날 훈련에서 919C동 학생들은 난생처음 소화기, 소화전을 직접 써보고 대피용 사다리차까지 탔다. 훈련을 진행한 관악소방서 직원들이 "역시 모범생들은

↑ 지난 5월 9일 모교 기숙사인 관악사에서 진행된 합동 비상대피훈련에서 기숙사생이 소화전으로 불을 끄는 훈련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대는 전 직원과 관악사 919C동 80여 명이 참여한 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지난 7월 27일 실제 이 기숙사에서 일어난 화재를 조기 진압하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 오른쪽은 학생 대피 때 맹활약한 김경환 조교. <서울대 제공>

다르다"고 칭찬했다고 한다. 훈련 성과는 값졌다. 27일 밤 불길이 치솟은 지 3분도 안 돼 사생 10명이 소화기와 소화전을 들고 나선 결과 소방차 도착 전 화재가 건물 안까지 번지는 것을 막았다. 위험을 무릅쓰고 진화에 나선 사이 사생 140여 명은 인근 대피소로 대피했다.

소화전으로 불을 끄던 김 조교는 '큰 불을 잡았다'고 생각하자마자 연기가 가득한 919C동 안으로 뛰어 들어가 1층부터 9층 꼭대기 방까지 살살이 뒤졌다. 잠이 들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다. 예상대로 5명의 학생들이 질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다. 김 조교는 이들을 모두 데리고 반대편 통로를 통해 빠져나왔다. 그는 "헤드폰을 끼고 자느라 바깥에 불난 줄도 모른 학생도 있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가스 질식을 당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총학생회 '관악타임' 발간으로 학생들과 소통

모교 총학생회가 발간한 잡지 '관악타임'의 기획을 맡은 부총학생회장 김예나(23·국문학과) 동문은 "총학생회와 학생들 간 소통채널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울 컬러 정식 잡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60쪽 분량으로 1만부가 제작됐다.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등 학생들이 주로 몰리는 교내 곳곳에 비치했는데 반응이 좋다.

이름을 '관악타임'으로 지은 것은 서울대생들이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을 꼬집은 것이다. 표지 제목 밑에 '본지는 관악 표준시를 준수합니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김 동문은 "총학생회 활동과 서로 소통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잡지의 절반을 세월호 시국선언, 계절학기 셔틀버스 운행 등 지난 학기 힘썼던 총학생회의 성과를 알리는데 할애했다.

사실 총학생회에 대한 재학생들의 무관심은 심각하다. 지난해 총학생회장 선거에 투표율이 50% 미만으로 선거가 아예 무산됐다. 당시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악에 봄 꽃을 피워 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장미꽃 4천송이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잡지 발간은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를 담았다. 여름철 학교 안팎 빙수 카페를 소개하거나 학내 휴게실 위치 및 장단점 공개 코너를 마련했다. 학내 유일의 밸리댄스 동아리와 양궁 동아리를 일일 체험한 뒤 생생한 경험담도 사진과 함께 실었다.

'학생들이 읽고 싶은 잡지'를 목표로 6월부터 한 달 이상 준비했다. 5명의 기자와 디자인 전담팀 등 10여 명이 투입됐다. 가장 큰 문제는 700만원에 달하는 제작비 마련으로 대학측 지원 없이

순수 광고 및 후원금으로만 제작했는데, 광고 시장이 위축돼 있는 데다 최근 발생한 서울대생 사칭 잡지 사기 사건 때문에 광고 유치가 만만치 않았다.

내용에서도 학생회가 전하고 싶은 다소 딱딱한 소재들과 학생들의 이목을 끌기 어려운 기사 사이에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민이 컸다.

올해 말에는 '2호 잡지'를 낼 계획이다. 디자인을 강화하고 내용도 요즘 학생들의 관심사를 다뤄 열독률도 승부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신문, 서울대저널, 킴(영자신문) 등 교내 다른 정기간행물과도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차별화해야 한다.

이경환(28·물리학과) 총학생회장은 "학생회의 활동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공론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재학생 85% 시민·정치활동 참여저조

모교 재학생 10명 중 8명 이상이 '시민·정치 관련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모교 학생자치 언론인 '서울대저널'은 지난 5월 19~24일 학부생 516명을 대상으로 '시민적·정치적 건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85.3%가 시민·정치활동 참여수준이 낮은 '미참여자'로 나타났다

이 설문은 미국 터프츠대 산하 '시민 교육과 참여에 대한 정보 연구 센터'가 15~25세 미국인의 시민참여 수준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를 본뜬 것이다.

설문은 시민활동과 선거 관련 활동(각 5개 문항), 정치적 표현 활동(9개 문항)의 여부와 빈도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시민활동과 정치적 표현 활동 문항을 통틀어 '1년 내 관련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답변이 2개 미만이면 '미참여자'로 분류된다. 응답자 중 시민활동 지표 중 2개 이상 문항에서 활동 경험이 있다

고 답한 '시민활동 적극참여자'와 선거 관련 활동 지표의 2개 이상 문항에서 이같이 밝힌 '선거 관련 활동 적극참여자'는 각각 10.7%, 2.7%에 그쳤다.

시민활동 및 선거 관련 활동 적극참여자에 모두 해당하는 '이중 적극참여자'는 1.4%에 불과했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보수'라고 생각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시민·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을 '보수'라고 답한 65명 중 미참여자 비율은 86.2%였고, '진보'라고 밝힌 97명 중 미참여자 비율은 70.1%로 나타났다.

시민활동 적극 참여자는 '보수'와 '진보'가 각각 9.2%, 16.4%. 선거 관련 활동 적극 참여자는 보수 1.5%, 진보 10.3%로 차이를 보였다.

설문은 단과대별, 성별, 학년별 비율을 고려한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6%다.*** <연합뉴스>

모교 도서관 신축 리모델링 기금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의 친구들"

모교 서울대 도서관이 40년 이상된 노후 건물인 데다가 재학생 이용 수와 소장 장서의 포화상태로 한계상태에 부딪쳐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네이밍(Naming) 캠페인과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을 다음과 같이 벌이고 있다.

▶네이밍 모금 캠페인 = 재학생 등 후배들이 사용할 책상, 의자, 서가에 기부해준 선배들의 이름을 넣어 후진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놓는다. <도표 참조>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모금 캠페인 = 도서관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도서관이 관정 도서관과 함께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낡은 시설의 리모델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난 해 5월 이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조천식 동문이 '중앙도서관 시설환경 개선기금'으로 50억원을 후원한 외에도 300여

명의 동문들이 9억원 넘게 기부했다. 중앙도서관 시설개선을 위한 모금 액수는 3년간 총 1천억으로 이 모금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어 후배들이 선배들의

정성을 새기며 더욱 모교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기 바라고 있다.

▶캠페인 기간 = 지난해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모금 목표액 = 3년간 총 1천억원의 모금 운동을 벌인다.

이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은 <http://friends.snu.ac.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가구·공간 Naming 모금 종류

종류	내역	모금액	선택 <input type="checkbox"/>
열람석	열람석 의자	100만원(\$1,000)	<input type="checkbox"/>
	4인 테이블	300만원(\$3,000)	<input type="checkbox"/>
	8인 테이블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서가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멀티미디어실	멀티미디어세트	500만원(5,000)	<input type="checkbox"/>
개인캐럴	개인실	1천만원(\$10,000)	<input type="checkbox"/>
그룹스터디룸	4~6인실	3천만원(\$30,000)	<input type="checkbox"/>
	8~10인실	5천만원(\$50,000)	<input type="checkbox"/>
	30석 규모	2억원(\$200,000)	<input type="checkbox"/>
세미나실	60석 규모	3억원(\$300,000)	<input type="checkbox"/>
컨퍼런스룸	100석 규모	10억원(\$1,000,000)	<input type="checkbox"/>
패컬티 라운지		10억원(\$1,000,000)	<input type="checkbox"/>

등문 및 등문단체 동정(일부 중앙·한국일보 인용)

북미주 CBMC 박상근(법대 75) 장경태(사대 75) 등문

제19차 북미주 기독교실업인대회

버지니아의 박상근(법대 75) 변호사와 장경태(사대 75) 동창회보 편집위원장이 각각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북미주 CBMC(connecting Business & Marketplace to Christ) 제19차 대회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버지니아에서 열렸다. CBMC는 기업인들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기독교인으로써의 삶을 살면서 크리스천의 일터가 주님의 사역장이 될 것을 표방하는 세계적인 모임이다.

이번 모임에서는 전체 북미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 CBMC 멤버들과 유럽·한국·중국 등의 CBMC 임원들이 모여 제19차 북미주 CBMC 대회와 총회를 개최한 것이다. '일터에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자'라는 슬로건으로 한국 중앙성결교회 담임 목사인 한기채 목사를 주 강사로 모시고 3일간 개최된 이번 북미주 대회에서는 그 동안 토론토 yCBMC회장을 역임하고, 북미주 CBMC 총연합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김기일씨



가 앞으로 2년 동안 북미주 CBMC를 이끌어갈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기일 회장은 "크리스천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Back to Basic)"라고 역설하면서, 앞으로 2년 동안 기업인들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담당할 터전임을 인식하고, 기업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영역에서 크리스천 정신을 세워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또한 "차세대와 30-40대의 청년

←왼쪽에서 두번째가 북미주 CBMC 장경태(사대 75) 사무총장

기독교실업인들이 앞으로 일터에서 CBMC가 표방하는 목표를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청년 yCBMC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한 사업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확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CBMC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비전으로 비즈니스 세계가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대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국제적이며 초교파적인 기독교 단체다.

북미주 지역에는 60여개 지회가 각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 밖에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400여 개의 한인 지회가 있다. ***



←한인문화회관 개관 기념식 및 회장 취임식에서 김승자 신임 회장(왼쪽 서 있는 분)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했고 문화회관에서 일한 지는 3년이 됐다. 지난 2013년에는 강남 오케스트라의 시카고 공연을 맡아 8만 달러의 수익금을 남기기도 했다.

김 신임 회장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이 매년 기금을 꾸준히 확보해 현재 30만 달러에 도달했다. 올 가을에는 기금 모금을 위한 연극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한인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문화회관과 한인회는 성격이 다르고 문화회관은 현재 정착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자체 역량을 더욱 길러야 하는 시기"라며 "문화회관은 독립기관이어야 하고 정치적인 것과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개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제4대 감사직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문화회관의 역할은 한국을 현지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신임 회장도 문화회관을 맡아 잘 이끌어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문화회관의 백년대계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제5대 임원진에는 감사직 전 회장을 비롯해 시카고 한인회장을 역임한 장기남(문리대 62)·황지룡(문리대 65) 등문 등이 봉사하고 있다.***

텍사스의 마광일(음대 86) 등문

달라스 합창단 매스터 코랄 지휘

노래와 열정의 환상적 어울림, 창단 20년, 지휘말아 새 도약

텍사스의 달라스 대표 한인합창단 매스터 코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모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UNT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마광일(음대 86) 지휘자는 94년부터 베다니 교회에서 지휘를 해왔다. 창단 때부터 매스터 코랄 단원으로 시작한 그는 올해 2월 매스터 코랄의 신에 지휘자로 임명된 뒤 한층 생기있는 분위기를 리드하고 있다.

"무엇보다 단원들이 원하는 합창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래자랑 무대를 통해 단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죠."

오는 9월 연주회에서는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가요와 가곡, 팝송 등을 선사할 것이며 특별히 일렉트릭 밴드와의 협연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 특별한 무대를 위해서 연주자들이 있는게 아니라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마지휘자는 밝혔다.

달라스의 공식 대표 합창단 매



스터 코랄은 지난 1995년에 시작된 한인 합창단이다. 중간에 여성합창단, 남녀혼성 합창단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거쳐 지난 2012년 매스터 코랄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뒤 달라스를 대표하는 한인합창단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고자 하는 한인들의 요청에 부응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

노래는 사람들간의 마음을 소통케 하는 마술같은 도구다. 노래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매스터 코랄 합창단의 화음이 달라스 한인사회를 하나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시카고 동창회 김승자(사대 60) 전 회장 시카고 한인문화회관 관장 취임

개관 3주년 기념식에서 제5대 관장 취임과 5대 임원진 출범

시카고 동창회의 김승자(사대 60) 전 회장이 지난 6월 29일 개관 3주년을 맞는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의 제5대 관장으로 취임했다.

제4대 감사직(상대 59) 전 회장의 뒤를 잇는 취임식에서는 250여 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시카고 풍물학교의 풍물공연으로 시작됐다.

김승자 신임 관장은 취임사에서 "전 관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앞으로 문화회관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문화회관을 향한 동포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신임 관장은 또 "문화회관 도서관을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할 것이며 문화회관 홈페이지 활성화, 한국전통 기념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기프트 샵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승자 관장은 경기여고와 모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30년간 근무한 뒤 지난 2006년 은퇴했다. 이후 시카고 동창회장을 역임

유상대(경영대 82) 한국은행 국제국장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에 임명

한국은행 유상대(경영대 82) 국제국장이 한국은행 뉴욕 사무소장에 임명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18일 유상대 국제국장을 포함한 총 29명의 국실부장 인사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국실부장 인사를 발표하고 "근무기간 중 쌓아온 업무수행능력과 실적, 관리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장기근무 국실장을 중심으로 순환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뉴욕 사무소장으로 발령받은 유상대 국제국장은 1986년 모교 경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뉴욕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유 국장은 한국은행에는 지난



1986년 입행한 이후 조사부 조사역 국제국 과장, 금융시장국 부국장 등을 지냈다.

유 국장은 7월 21일부터 뉴욕사무소장으로 공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작가 이학범(공대 98·스탠포드대 공학박사) 등문

실리콘 밸리 코트라 갤러리서 전시회

코트라 커넥티드 갤러리 오픈, 한인작가 소개 위해 문화공간

사진작가 이학범 등문의 작품들

이 실리콘 밸리 코트라 무역관(관장 권중현)에서 열리고 있다. 이는 국내외 주요 인사 포함, 한 해 7천 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에

←코트라 실리콘밸리 무역관이 커넥티드 갤러리를 오픈, 첫 번째 전시행사로 북가주 이학범 사진작가와 허유정 화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다.

게 북가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문화공간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코트라는 이와 관련 지난 6월 25일 '커넥티드 갤러리'를 오픈 하고 첫 번째 전시 행사로 북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학범 등문의 사진작품 11점과 허유정 작가의 회화 작품 5점을 9월 말까지 전시하고 있다.

이 등문은 모교 공대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스탠포드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이수한 이체로운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작품을 통해 미국 대자연의 풍경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소중함에 대해 반문하고 있다. ***



←지난 6월 28일 서울 '용사의 집' 김수영(앞줄 가운데) 동문 출판기념회 기념 사진이다.

캘리포니아의 수필가 김수영(사대 57) 동문 서울 '용사의 집' 에서 출판기념회

희수 기념집 한국서 출판기념회
정운찬 전 총리도 참석

나이 70에 수필가가 되고 작가의 타이틀을 딴 재미 문학가 김수영(사대 57) 동문이 희수 기념으로 '늘 추억의 저편'이란 수필집을 한국에서 발간, 지난 6월 28일 서울 용산의 '용사의 집' 2층 회의실에서 가족친지, 지인, 문학인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기념식에는 내빈으로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했는데 "같은 서울대 동문으로 뛰어난 수재임을 알고 있었지만 다방면의 학문연구에서도 신학을 연구, 목사의 길을 걸으며면서 계속 문학인의 꿈을 접지

않고 주옥같은 수필집을 출판한 김수영 목사님에게 존경과 축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문인으로 축사를 한 엄원지 한국신춘문예 발행인도 "오늘의 출판기념물인 '늘 추억의 저편'은 많은 언어가 서술되어 있음에도 흐르는 물처럼 막힘이 없어 저자의 뜻하는 메시지가 독자에게 잘 전달되는 좋은 수필집이다"라며 "이 책은 우리 한국 문단과 세계문단에 수필의 우수한 표본이다"라고 말했다.
서평에서 임현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은 "수필집 내용 중 김영태 시인, 스코필드 박사, 피천득 교수, 장왕록 교수, 김동기 교수 등 5명의 등장이 꽤 인상적이었는데, 그 중 장왕록 교수에 대한

글이 매우 가슴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축하패 전달식에서 엄원지 한국신춘문예 회장은 "김수영 수필가는 재미 문인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분으로 끝없는 도전의 정신으로 정진을 하시어 오늘 뜻깊은 출판기념회를 갖게 돼 그 뜻을 기리고자 특별히 기념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영 동문은 답사에서 "모든 사람들은 추억을 갖고 사는데 젊은이들은 꿈 속에서 살고 노인들은 추억 속에 산다고 하지만 저는 꿈과 추억을 함께 간직하면서 살고 있다"면서 "특히 제 인생에 아름다운 추억은 피천득 교수님을 만난 일로 그 분은 저에게 문인의 꿈을 키워준 분이며 또한 분은 스코필드 박사로 그 분은 세계 영어를 가르쳤고 그 영향으로 목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코필드 박사님에게 배운 문학의 기본은 성경에 있음을 깨닫고 성경이 있었기에 결핵의 괴로움을 치유하면서 오늘의 저를 있게 해 준 고마운 분"이라면서 "정운찬 총리님을 비롯 엄원지 신춘문예 회장님등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수영 동문은 경북 안동출신으로 안동여고를 졸업, 사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피바디 영어연구소 조교로 근무했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도 근무했다.***

서양화가 우순자(미대 66)동문 개인전 리치몬드 글렌 알렌 컬처럴 센터에서

리치몬드에서 거주 중인 서양화가 우순자(미대 66) 동문이 7월 16일부터 리치몬드에서 개인전을 열고 있다. 이 전시회는 통산 열 번째 개인전이다.
'미래를 향한 여정(Journey to the Future)'을 주제로 7월 16일(수)글렌 알렌 컬처럴 센터에서 개막된 전시회에서는 작품전 제목이기도 한 '미래를 향한 여로' 등의 근작 추상 페인팅이 선보였다.
우순자 동문은 모교 미대 서양화과, 동 대학원 동양화 석사 학위를 취득 후 도미,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VCU)에서 실내디자인

인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리치몬드 대학과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에서 동양화 강사로 활동했으며 현재 글렌알렌 아트센터와 실버 아카데미에서 동양화를 지도하고 있다.
국전 입선 및 다수의 미술대회에서 입상했으며 워싱턴 미협, 워싱턴 문인회 회원으로도 활동했다.
8월 17일까지 계속되는 작품전 개막 리셉션은 지난 7월 17일 열렸다.
문의 soonjak@gmail.com
장소 2880 Mountain Rd., Glen Allen, VA. 23060 ***

김중수(상대 66) 한국은행 전 총재 펜실베이니아대 방문교수로 도미



U Penn에서 강의...,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부 방문 교수
한국은행 김중수(상대 66) 전 총재(사진)가 Univ. of Pennsylvania 강단에 선다.
김중수 전 총재는 이번 가을학기부터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제학과에 연구실을 두고 1년 동안 강의와 연구를 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재는 동아시아 언어 및 문명학부에서 한국 경제정책에 관한 과목을 가르친다. 이 과목은 동아시아학, 역사학, 경제학 등 3개 과에서 동시에 강의 과목으로 채택, 학부 및 대학원생들

을 상대로 강의할 계획이다.
김 전 총재는 방문교수(Visiting Professor of Korea Studies) 자격으로 8월 초순 한국에서 출국할 예정이다.
김 전 총재는 모교 상대 경제학과를 졸업, 197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통령실 경제수석 비서관, 주 OECD 대사를 지냈다.
또 아시아 지역 12개국을 대표하는 BIS 아시아지역 협의회(ACC) 의장으로 선임, 국제금융협약체 의장직을 맡는 등 한국 금융 정책을 이끄는 핵심 인사로 정평이 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월간지 '글로벌 파이낸스'의 주요 중앙은행 총재 평가에서 2012년에는 C, 2013년에는 B+의 평가를 받았다.

박동운(농대 93) 동문 아시아나 항공 SF공항 지점장 부임

"수속-탑승, 신속 편안하게"
지난 해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때는 3주간 현장 수습도
박동운(농대 93 사진) 아시아나 항공 샌프란시스코 공항 지점장이 지난 7월 초순 부임했다.
박동운 지점장은 "모든 승객들의 수속에서부터 탑승까지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모교 농대를 졸업하고 2001년 아시아나 항공에 입사한 박 지점장은 줄곧 공항 서비스 기획 업무에서 잔뼈가 굵은 공항 서

비스 전문가다.
지난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박 지점장은 이번 근무가 일본 하네다 공항지점에 이어 해외 근무로는 두 번째다.
지난 해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사고 때는 현장대책 본부 요원으로 파견을 나와 3주 동안 사고 수습에 관여하기도 했다.
박 지점장은 "당시 지역 우리 한인 동포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성심성의껏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임 박종근 지점장은 인천 국제공항 환승 서비스 부문의 근무를 맡아 지난 7월 9일 귀국했다.***



금속공예가 허미숙 교수 초대전

버지니아 비엔나 MK갤러리에서
7월 5일부터 25일까지 열려
금속공예가 허미숙(미대 83) 교수(이스트 캐롤라이나대 미대) 초대전이 지난 7월 5일 버지니아의 비엔나 소재 MK갤러리(대표 김미영)에서 개막됐다.
최근 '새(Birds)' 작품에 천착 하고 있는 허미숙 교수는 '잃어버린 까마귀' '깃털' 1번과 2번, 22번과 23번 등 자연을 소재로 한 브로치 등의 금속 생활공예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허 교수는 "유년 시절 농촌에

서 자랄 때 들관에서 보았던 새에 대한 기억들과 삶의 순환을 자연에 담는다. 새 깃털을 모아 그리고 페인팅하며 미지의 세계,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신비로움을 추구 한다"고 말했다.
모교 미대 졸업 후 위스컨신-매디슨 대학 미대에 석사과정 중을 마친 후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 소재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시카고 SOFA전 등 미국과 유럽, 한국에서 다수의 전시회를 열었다.
허 교수 초대전은 7월 25일까지 계속됐다. ***



미주 동문들 위커힐 민주평통회의 참석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제16기 민주평통 자문회의 해외 지역회의가 서울 세라톤 위커힐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대박나는 통일시대 함께 하는 통일준비'라는 슬로건으로 미국내 15개 지역 민주평통 협의회에서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통일 특강, 분임토론 외에도 통일안보 현장을 직접 시찰하는 등 많은 행사가 이어졌다. 미주 지역에서도 이처럼 많은 동문들이 참여한 것은 좀처럼 드문 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동문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사진 왼쪽부터 승원표(수의대 73) 남가주 수의대 동창회 전 회장, Washington DC 동창회 함은선(음대 77) 전 회장, 한의생(수의대 60), 최재현(수의대 66) 남가주평통 회장, 현경대(법대 60)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 유성숙(사대 81) 남가주 사대동창회장, 제영혜(생활과대 71)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이날 이진구(농대 60) 미주동창회 전 회장과, 이서희(법대 70) 남가주 동창회장도 참석했다.

김진수(인문 83) 박사 Trauma 무료상담

3주 동안 심리 치료 무료로 실시

가정상담가 김진수(인문대 83) 박사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3주간 LA리버사이드 상담소에서 한인들을 위해 패트릭 푸어 심리치료사와 함께 무료 단기 심리치료상담을 실시했다.

김진수 박사는 "고국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생존자와 피해자 가족의 Trauma(정신적 외상)와 치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다. 트라우마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커다란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입는 정신적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박사는 또 "트라우마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교통사고와 전쟁폭력 등으로 생길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성폭행 등의 경험으로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 시절 이러한 증상을 입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잘 치유하지 못하면 어른



이 되어서도 우울증, 불안증, 편두통, 조울증, 분노, 악몽, 죄책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갖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모교에서 불문학과 종교학을 전공한 김 박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바리톤 김무섭(음대 97) 동문

오페라 'Facing Goya' 주역 대호평

마이클 니만 창작 오페라 초연 무대, 뉴욕타임스 문화면 대특필

바리톤 김무섭(음대 97) 동문이 S.캐롤라이나 찰스턴의 'Spoleto Festival USA'가 무대에 올린 마이클 니만의 창작 오페라 'Facing Goya'에서 주역인 고야 역으로 출연, 대호평을 받았다.

1993년 개봉된 제인 캠피언 영화 'The Piano'의 작곡으로 유명한 영국 작곡가 마이클 니만은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현대 음악가다. '스폴레토 페스티벌 USA'에서는 이 오페라 외에 미니멀리즘을 대표하는 작곡가 스티브 라히, 필립 글래스, 존 루더 애담스, 마이클 고든 등의 곡들을 오케스트라, 합창, 무용 공연등을 통해 선보였다. 뉴욕 타임스는 5월 28일자 문화면을 통해 김무섭씨가 무대에 선 오페라 '페이싱 고야'의 공연 사진과 함께 이 행사를 크게 소개했다. '페이싱 고야'는 스페인 화가 Francisco Goya(1746-1828)에 대한 이야기로 고야의 죽음 후 그의 사체가 머리가 없는 채로 발

←스폴레토 페스티벌 USA 무대에 오른 '페이싱 고야'에서 고야로 분한 김무섭(오른쪽) 동문 다른 출연진과 열연하고 있다.

견됐다는 설을 바탕으로 인종 우월주의를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설에 의하면 고야는 뇌에 담긴 유전자 연구를 통해 자신의 재능이 발견될까 두려워 친구에게 자신이 사망한 후 머리를 없애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오페라는 이 에피소드를 바탕으로 20세기 초 유전학의 발전과 나치의 인종 우월주의 등을 비판한다.

Francisco Jose de Goya y Lucientes는 스페인의 낭만주의 화가로 궁정화가이자 기록화가로 많은 작품을 남겼다. 특징인 파괴적이고 지극히 주관적 느낌과 대담한 붓터치 등은 후세 인상파 화가들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빅토리아 하디 대본에 싱가포르 출신 감독 웅 켩 쉐의 연출로 선보이는 이 오페라는 오는 8월 싱가포르에서도 공연될 예정이다.

2001년 모교 음대 졸업 후 2003년 맨해튼 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무섭 동문은 2007년 줄리아드 오페라 센터에서 레지던트 아티스트 과정을 마쳤다.

2009년 그리머클래스 오페라에서 영 아메리칸 아티스트 프로그램에 선정됐으며 2010-2011년 도밍고-손튼 영 아티스트 프로그램 수혜자로 LA 오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곽건용(사회 78) 목사 출판기념회

곽건용 목사(사회 78·나성향린교회 담임·사진 둘째줄 오른쪽

서 5번째)의 네 번째 저서 '하느님 품 보기, 만지기, 느끼기'의

출판기념회가 지난 5월 31일 LA 향린교회에서 열렸다.

이 책은 구약 전문가인 필자의 신의 몸에 대한 연구결과물을 엮은 것으로 "거의 전문적 성서학이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도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썼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판회 현장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으며 저자와의 대화시간도 마련됐다.

모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온 필자는 서울 향린교회에서 전도사와 부목사를 역임한 뒤 클레어몬트 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나성향린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다.***



워싱턴주 시니어 클럽 회장 김재훈(공대 72) 박사

한미과학기술산업 학술대회 참여

8월 6-9일 CA 샌프란시스코서

한미 과학기술 두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14 한미과학기술산업 학술대회(UKC)'가 8월 6일부터 9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UKC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가 공동 주최했다. 올해는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총 1천3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KSEA 제43대 회장인 안국준 박사(공대 동문, 캘리포니아주 교통부), 김재훈(보잉·사진 왼쪽)

진 회장, 이정 박사(포틀랜드 주립대), 차준호 박사(인텔) 등 임원진은 지난 6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회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포워드 투게더(Forward Together)'다.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의 최근 동향을 공유할 뿐 아니라 최신 바이오, 나노기술, 로봇틱스, 그래핀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소개했다. 특히 청년 전문가 포럼에서는 지도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와 경력 개발 프로그램이 제공됐으며, 친목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정원훈(상대 38) 동문 작고 = 8월 3일 LA자택에서.
- ▶이기역(문리대 46) 동문 작고 = 6월 10일 위스컨신 자택에서. Tel. 312-953-6195
- ▶한성학(의대 58) 동문 작고 =

- 7월 25일 워싱턴주 자택에서.
- ▶정호(공대 62) 동문 모친상 = 7월 15일 Chicago 자택에서. Tel. 630-818-6715.
- ▶최인섭(공대 75) 동문 부친상, 최인숙(약대 76) 동문 시부상 = 7월 25일 한국 경기도 일산 병원에서.



뉴잉글랜드 동창회

액튼 클럽하우스에서 정기총회

50학번부터 06학번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모임, 현 장수인 회장 차기 동창회장 연임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장수인·음대 76)가 지난 6월 7일(토) 액튼 클럽 하우스에서 정기 총회를 가졌다.

화창한 날씨를 맞아 50학번부터 06학번까지 6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회기 사업 및 재무 보고, 차기 회장 인준(장수인 회장 유임, 노동완 부회장(공대 84) 선출이 있었다. 이어 2014년도 장학생으로 선정

된 김재진(MIT 재료공학과 박사 과정·공대 00), 박명훈(비올라 전공·NEC), 도은솔(렉싱턴 고등학교 졸업·Cornell Univ. 진학) 학생에게 각각 1천 달러씩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또한 동창회의 각종 활동 및 장학사업에 많이 기여한 차정자(문리대 50)·윤상래(수의대 62)·이재신(공대 57) 동문에 대한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주최 측이 마련한 푸짐한 식사 후에는 새로 참석한 동문 소개와 함께, 고종성 박사(공대 75)의 '그것이 알고 싶다 : 커피가 문

↑세대를 아우르는 50년대 학번부터 06년대 학번까지 이날 동문들은 분위기를 만끽했다.

→장학생으로 선정된 도은솔양(렉싱턴 고교 졸업, 코넬대 진학 예정), 김재진군(MIT)과 함께 장수인 회장(왼쪽)과 오세자 장학위원장(문리대 71·오른쪽). NEC 박명훈군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화·경제·역사에 미친 영향'에 대한 흥미진진한 강연이 있었다.

도삼주 총무(공대 84)의 진행으로 이어진 오락시간에는 사자성어 맞추기, 가격 맞추기, 그림 맞추기, 공굴리기 등의 다양한 게임으로 동문들이 웃음꽃을 피는 화기애애한 시간을 나누기도 했다.

동창회 다음 행사로는 9월 초에 야유회가 있을 예정이다.



기타 뉴잉글랜드 동창회에 대한 정보 및 문의는 동창회 <https://sites.google.com/site/snu-aane/>를 참조하면 된다.***

<글·사진 = 이재형(공대 91) 동창회 기획국장>



↑이 모임은 장수인 회장의 제의에 의해 처음 열리게 됐다. 본격 휴가철인 여름철에는 비교적 동문들에 대한 공식적인 모임이 드문 만큼 그 동안만이라도 동문들 개인 자택에서 모여 더욱 두터운 친목을 이어가자는 취지라고 한다.

장수인 회장 자택에서 번개모임

'한여름의 SNU' 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원로와 신세대 함께 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동문에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새로 마련한 번개모임인 '한여름의 SNU'가 지난 7월 12일 장수인 회장 자택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 날도 56학번부터 04학번까지

여러 세대를 망라한 동문들이 모여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다양한 주제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펼쳐진 가운데 푸짐한 Pot luck 음식, 또한 유례없는 와인과 맥주를 나누며 동문애를 나누었다.

장수인 회장은 "동창회 행사가 비교적 드문 여름철에도 모여서

↑장수인 회장 자택에서 열린 첫 '번개모임'에 모인 동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의 꽃을 피우고 있다.

친목하고자 했던 작은 모임에 성원해주셔서 감사 드리며 장소상 인원의 제한이 있었던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첫 번개모임의 참석자 전원이 너무 좋아해서 기뻐고 새로운 동문들도 참여해주어 보람 있었습니다"라고 전했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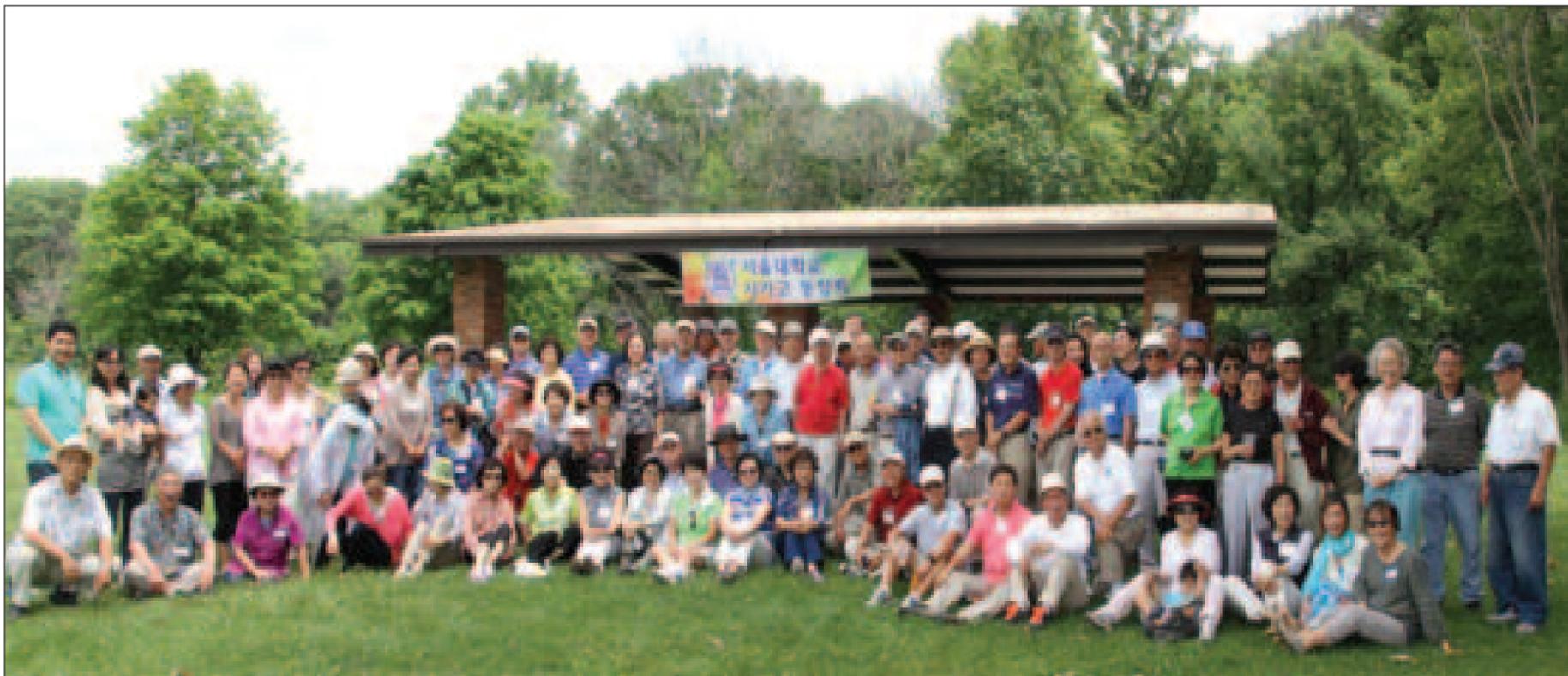
야 했으나, 여러 세대와 어울리는 것이 너무 재미 있어서 떠나기를 미룬 동문도 있었고, 오랜만에 만나 흥에 겨운 나머지 바로 집에 가지 못하고 2차 모임을 가졌던 동문들도 다수였다고 한다.

이번 모임에서 최고 원로였던 김만옥 동문(약대 56)은 "참 신기하고 즐거운 한여름의 오후였습니다. 상상 외로 푸짐했던 음식들도 개성미가 있었어요. 자랑스런 우리 동문들께서 충충연

하, 연상의 학번임에도 별로 세대간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것도 우리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에 잠깐씩 들은 본인들의 이야기, 인생사도 갖가지로 모두 흥미로웠습니다. 즐거운 자리를 마련해주어 감사했습니다."

김만옥 동문은 이날의 모임과 분위기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했다.***

<글·사진 = 이재형(공대 91) 동창회 기획국장>



시카고 동창회

Busse Woods공원에서 야유회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호범·상대 69)가 지난 6월 21일 연례 여름 야유회를 Elk Grove Village에 위치한 Busse Woods 공원에서 가졌다.

쾌적한 날씨에 110여 명의 동문 및 가족, 친지들이 모여 즐거운 얘기를 나누었다.

동문과 가족들은 숯불에 구운 불고기, 돼지불고기, 테리야끼 닭 및 고등어 구이들을 싱싱한 야채와 반찬을 곁들여 맛있게 먹고, 또 버터 바른 옥수수도 숯불에 구워 수박과 같이 후식으로 즐겼다.

1946년도 입학하신 송재현(의대) 원로 동문과 1947년도 입학하신 문병훈(사대)·강수상(의대) 미주 동창회 제2대 회장 등 대신

→왼쪽에서부터 강수상(의대 47) 미주 동창회 제2대 회장, 안경진 박사(문리대 52 송순영 미주 동창회 제10대 회장 부군), 송재현(의대 46)·문병훈(사대 47)·박영규(농대 57) 동문, 김승자(사대 60) 시카고 동창회 전 회장.

배들에다가 2007년도에 입학한 새내기 김희영(자연대) 동문은 무려 60년 차이로 그 사이에 학교를 다닌 많은 동문들이 모여 담화하였다.

식사 후 모임에서는 동창회의 여러 행사와 사업에 대한 소식을 보고하였다.

지난 6월 10일 향년 92세의 연세로 작고하신 시카고 동창회 초대 회장 이기억(문리대 46) 박사



님의 장례식(위스컨신 밀워키)에 다녀온 보고와 함께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기억 박사님은 과거 우리 고

국의 자연과학 발전을 위해 고국의 많은 과학자들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은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동창회는 지난 2008년 발행된 동창회 주소록을 update해서 올해 말에 발행할 계획인 동창회 주소록을 위해 각 동문들의 주소를 update 하는데 적극 참여해달라는 부탁에 이어 이번 가을 계획하고 있는 장학금 모금 음악회에 관해 설명이 있었다.

또한 이번엔 신문 게시판에서 동창회 야유회 소식을 보고 처음으로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는 여러 명의 동문들이 자신 및 가족들을 소개하였다.

2부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유모어, 년센스 퀴즈 등을 하여 상품을 푸짐하게 타 가고, 마지막으로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근육 스트레칭과 댄스 등을 포함하여 움직이는 요가 율동 시간을 가져 맑은 공기를 마시며 몸을 풀어 상쾌한 기분으로 피크닉을 끝냈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귀가하는 시간에 폭우가 쏟아져 야유회 동안에 가진 좋은 날씨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번 10월에는 모교 교수를 역임한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고은 시인을 시카고에 모시고 특별 강연회를 가질 계획이다.***

<사진 = 임현재(의대 59)·노영일(의대 62), 글 = 김호범(상대 69) 동창회장>

북가주 동창회

산타클라라 노인효도잔치 지원

“제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산타클라라 센추럴 파크에서 한인 동포 노인 200여 명 참가한 가운데 효도잔치 열려

북가주 동창회(회장 이장우·문리대 72) 회장단이 지난 5월 실리콘 벨리 한인회, 자비 봉사회, 해송 축구회 등 3개 단체 주최로 열린 ‘산타클라라 노인효도잔치’를 지원했다.

이날 효도잔치에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비롯해 3개 단체 임원과 회원, 무용가 김일현씨 등 30여명이 봉사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처럼 실리콘 벨리 우리 동포 노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산타클라라 센추럴 파크에서 가진 이날 행사에는 동포 노인 200여 명이 참석해 이들 단체들이 정성껏 마련한 식사를 함께 하며 오순도순 담소를 나눴다.

단체 대표들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떻게 지역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나 고민하다 잔치를 열게 됐다”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주인공인 만큼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5월 뿐 아니라 가을에도 또 한 번 잔치를 열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즉석에서 제안, 호응을 얻자 “올 가을에도 효도잔치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잔치에서 바비큐 굽기, 불 피우기 등 굵은일을 담당할 이들은 “동포 노인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09년부터 북가주 지역의 동포 노인들을 위해 생일 잔치상 차려주기를 비롯해 노숙자 바비큐 파티 및 속옷 지원, 셰리프 바비큐 파티 등을 열어주던 북가주 자비봉사



↑지난 5월 산타클라라 센추럴 파크에서 가진 효도잔치에서 관계자들이 동포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회가 올해 처음 SV한인회와 해송 축구회와 공동으로 효도잔치를 열게 됐다.

자비봉사회 회장은 “앞으로도 해마다 거르지 않고 이들 단체들과 공동으로 효도잔치를 열겠다”고 말했다.

박윤국(90)옹은 “운동도 할 겸 오랜만에 나와서 화창한 봄바람도 쐬고 덤으로 맛있는 식사도 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영순(81)옹은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맛보며 대우 받는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이날 SV한인회는 행사에 참석한 한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장에서 등록을 도운 SV한인회 관계자는 “11월 선거 전까지 SV한인회가 여러 지역 행사에 참여해 유권자 등록 운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고 전했다. ***



뉴욕 골든클럽 동문들이 골프대회에 앞서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뉴욕 동창회 골든클럽

정기 골프대회 및 야유회 즐겨

뉴욕 동창회의 골든 클럽(회장 이준행·공대 48)이 지난 7월 2일 정기 골프대회를 가졌다(윗 사진). 또한 16일에는 피크닉도 즐겼다.

▶**골프대회** = 한 여름으로 접어들어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화씨 90를 넘는 날씨에 오후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Severe thunderstorm warning 예보까지 있었지만, 오전 10시가 지나자 구슬땀을 흘리면서 참석 예정 인원 29명 전원이 도착하여 11시부터 경기를 시작하였다.

이날 Medalist 손영철, 1등 손정자, 공동 2등 권태진·손영철·최준희, 근접상 조승자·홍종만 동문이 각각 입상했다.

저녁 식사에는 지난 6월 말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이진구 동문과 뉴욕 동창회 박승용 신임회장 부부가 합류해 인사

를 나누고, 골든 클럽 입회 절차도 완료하며,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칠 무렵부터 예보된 천둥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쏟아져 귀가 운전길은 다소 불편했으나, 골프대회 진행에는 지장이 없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피크닉** = 전날 밤 천둥 번개가 지나가며 소나기가 퍼부어 다소 걱정을 했으나, 아침이 되면서 빗줄기가 가늘어져 피크닉 장소에 도착할 즈음에는, 수줍은 햇살이 문계구름 사이로 다소곳이 얼굴을 내보이곤 하면서 습도도 내려가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느끼게 하였다.

예정대로 24명이 참석하여, 가벼운 하이킹, 호숫가 산책을 마친 후, 닭발과 여러 채소를 넣고 고아낸 국물에 내장을 빼고 찹쌀, 대추, 마늘을 넣어 1시간 이상 푹 삶아서 만든 영양 듬뿍 영



↑7월 16일 피크닉에 참가한 골든클럽 동문들 중 일부가 목적지 바위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계백숙을 나누어 먹었다.

이후 이대영 동문의 사회로 즐거운 여흥시간을 가졌는데, 김종율·이대영 두 동문이 행운의 추첨상을 차지해 Xtra Virgin Olive Oil과 용설란 엑기스로 만든 Agave Nectar 등 가정용품을 일반

경품으로 시상하였다. 또한, 최상립 가수의 '고향의 봄' 선창으로 동문들이 노래 경연을 하며, 시원하고 확 트인 호숫가에서 여름 하루를 보냈다.

참가 동문과 가족은 김재경(주운정)·김종율(김옥수)·민준기(민

재원)·손경택(손정자)·손영철(손정자)·송성문·송학린·이대영(이병린)·이준행(이세영)·조달훈(조승자)·정인식(정숙자)·최수용(최상림)·홍종만(홍예경)등이다.***

<글·사진 = 김원영(미대 81) 미주 동창회 웹 마스터>

뉴욕동창회 제36대 박승용(의대 65)회장 취임사

“웹사이트 한층 활성화하고 의견교환 증진할 터”



존경하는 동문 여러분께. 지난 7월 1일부터 뉴욕 동창회를 맡게 된 박승용입니다. 모교 의대를 65년 입학해 71년 졸업했습니다.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동문 여러분께 취임 인사를 드립니다.

모교 서울대학교는 자랑스러운 대학이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대학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들이 모이는 우리 동창회가 혹시라도 잊혀져 가는 동창회가 아닌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동창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동창회장은 회원 여러분의 참여, 격려와 편달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동창회 웹사이트를 한 층 더 활성화 하여 상호 의견 교환을 증진하겠습니다.

취임에 즈음하여 부디 여러 선후배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1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대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형통하시기를 기원하며...***

뉴욕동창회 제35대 박상원(음대 69)회장 이임사

“무난히 임기마치도록 도와준 동문들께 깊이 감사...”



동창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5대 뉴욕동창회장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14년 6월 30일로 그 임기를 마친 음대 69학번 박상원입니다.

지난 번 6월 25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차기 회장이 결정되지 않았었는데 마침 의대 65학번 박승용 동문께서 36

대 회장직을 수락해주셔서 차질 없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던 가나다 순의 대학순서로 그 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박 회장께서는 이미 워싱턴 DC 미주 평의원회의에 참가하신 것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창회장께 힘을 실어드리고, 서울대 정신을 발휘하여 더 나은 동창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35대 동창회장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창회원 여러분, 이사님, 각 대학 회장님, 골든클럽 이준행 회장님, 홍종만 총무님, 관악연대 최자현 회장님, 장학위원장 성기로 회장님, 김종률 전 장학위원장님, 윤병하 이사님, 금영천 사무총장님, 김창수 전회장님, 이진구 전

미주동창회 회장님, 특히 뉴욕 동창회 행사에서 강의도 해주신 등, 먼길을 마다 않고 두번이나 뉴욕동창회 모임에 참석해주신 미주동창회 오인환 회장님, 동창회 일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신 미주재단 이만택 회장님, 이영희 박물관 원장 성정숙님... 이밖에도 저의 회장직 수행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주 동창회에서 지난 해 진행된 워싱턴 DC 평의원회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시작한 저의 임기는, 조그맣게나마 모교를 돕는 일(중앙도서관에 의자 기증), 한국 총동창회와 미주 동창회를 돕는 일, 뉴욕 동창회의 일과 관악연대와 소통 등, 그리고 뉴욕 대학 총연과의 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격려와 내주신 이사비를 귀하게 썼다고 자부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진지한 도움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36대 회장단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동창회

이화여대 등 타대학 초청 골프대회

조여름의 태양이 눈부시게 찬란했던 지난 6월의 첫 날인 1일, 캘리포니아의 Los Verdes Golf Course에서는 100여 명의 남가주 동창회(회장 이서희·법대 70)동문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4년 춘계 골프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Los Verdes Golf Course는 캘리포니아 태평양 서쪽 연안 바닷가에 자리잡고 있어 풍광이 아주 뛰어난 곳으로 이름난 golf course입니다. field의 지평선 너머로 더욱 아름다운 수평선이 펼쳐지는 바닷가에 인접한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골프장 곳곳에서 각종 각색의 꽃들이 뿜어내는 향기는 푸르른 풀밭의 싱그러움과 더불어 참가한 동문과 가족들에게 화사한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남가주 동창회는 지금까지의 골프대회와 달리 특히 타 대학 동창회와 동포단체 등과 우호증진을 위해 올해 첫 대회는 이화여대 동창회원과 민주 평통 인사들을 특별 초청해 대회를 치렀습니다.

이 날 참가자들은 마음껏 기량을 펼쳤고 골프대회가 끝난 후, 근처 Koji BBQ Buffet에서 시상식과 더불어 저녁 식사를 하며 친목을 다졌

↓이날 특별 초청으로 참가한 이화여대 장계원 동창회장에게 특별상을 시상했다(왼쪽 사진). 그동안 동창회를 적극 후원해온 노명호(공대 61)남가주 전 동창회장에게도 공로상으로 보답했다.

습니다.

이서희 동창회장은 시상행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비즈니스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주어 감사함”을 표하고 “guest로 참가해준 이화여대 동창회 회원들과 평통 회원들께도 고맙게 생각한다.다음 대회에는 더 많은 타 대학 동문과 동포단체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더불어 행사를 진행을 위해 시간과 정력을 투자해 주신 임원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고 다음 춘계 대회 때는 더 많은 동문들이 참가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 날 골프대회 접수 및 진행에는 김창신 총무국장, 김영혜 부총무, 독고량 행사위원장, 차기민 재무국장, 김양희 사업국장 등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특히 이날 골프대회에는 아래 오른쪽의 일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명의 이주 많은 동문님들이 Tee Sign의 sponsor로 도네이션을 해주셔서 한층 더 풍족한 대회를 치르도록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가주 동문들의 이같은 적극적인 고도 높은 호응도는 남가주 동창회가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로 타 지



↑골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동문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챔피언 이창우(의대 65), 남자부 Medalist 최광휘(의대 70), 여자부 Medalist Mrs.서치원(공대 69), Longest 장예진(사대 94), 공로상 제영혜(생활과대 71)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수고상 홍선례(음대 70) 남가주 동창회 클럽협력위원장.

역 동창회에서 아주 부러워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동창회 임원진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동창회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동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hampion = <남자>이창우(의대 65)
- <여자>서혜림(음대 73)
- ▶Medalist = <남자>최광휘(의대 70)
- <여자> Mrs. 서치원(공대 69)
- ▶Longest = 장예진(사대 94)
- ▶Closest = 한선

- 열(평통5) ▶특별상 = 장계원(이화여대 동창회장)
- ▶Best Dresser = Mrs. 차기민(공대 85)
- ▶공로상 = 제영혜(생활과대 71)
- ▶수고상 = 홍선례(음대 70)

<글·사진 = 홍선례(음대 70) 동창회 클럽 협력위원장>



↓52명의 여러 동문들이 후원해 준 대회 Tee Sign 중 일부다.





워싱턴 DC 동창회

정기총회 및 박윤수 박사 송별회

장경태(사대 75) 동문
신임 회장에 선출

워싱턴 지역 동창회(회장 함은선 음대 77)가 지난 6월 7일 버지니아의 한식 레스토랑 우래옥에서 '2014년 정기 총회' 를 개최했다. 정기 총회 후에는 미주 동창회 초대 회장을 역임한 박윤수(문리대 48) 박사의 캘리포니아 이주에 대한 송별회가 열렸다.

정세근(자연대 82) 총무의 사회로 열린 이날 정기 총회에서는 안선미(농대 65) 동문이 2013 ~ 2014년 결산보고를 했고 한인섭 동문이 감사보고를 마쳤다.

함은선 회장은 33대 동창회 사업 및 활동보고에 이어 그동안 봉사해 준 동문들에 대해 감사패를 증정했다. 윤경의(공대 57) 장학위원장 겸 미주 동창회 편집위원은 동창회 장학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로 제33대 임기가 끝나는 함은선 회장은 차기 신임회장으로 추천된 장경태(사대 75) 부회

에 대해 참석한 동문들에게 차기 신임회장 선임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임원 및 동문들은 장경태 동문의 신임 회장 인준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함은선 회장은 지난 회기 동안 회장으로서의 감회에 대한 이임 인사를 했으며 장경태 신임 회장은 앞으로의 동창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윤경의(공대 57) 장학위원장이 워싱턴 DC 동창회 장학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임 장경태 회장이 함은선 회장과 이취임 인사말 후 굳게 악수하고 있다. 제33대 동창회를 위해 봉사해준 동문들이 감사패를 받았다. 오른쪽부터 정세근(자연대 82)·안선미(농대 65)·함은선 회장, 장경태(사대 75)신임회장, 정종갑(상대 75) 동문. 함은선 회장은 이날 이영목(공대 59) 미주 동창회 고문에게도 감사패를 증정했다. 이영목 고문은 지난해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증한 바 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언제나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박윤수(문리대 48) 박사는 이날 송별회에 대한 인사에서 먼저 “26년 전 오하이오에서 이곳으로 이사해 올 때는 여기서 뼈를 묻을 것으로 생각하고 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돼 여간 섭섭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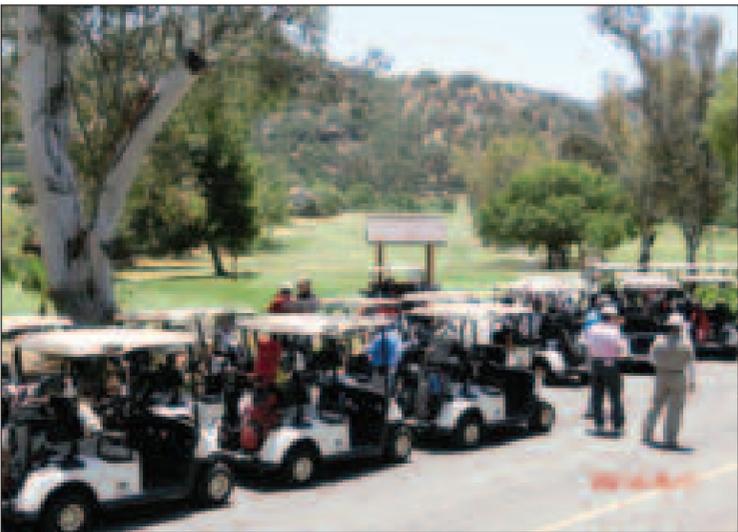
닷새 뒤면 떠남에도 불구하고 박윤수 박사는 이날 이사회비와 동창회비 등 모든 회비를 지불했다. 이에 대해 묻자 박윤수 박사는 “캘리포니아로 가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

←박윤수 박사와 부인이 송별연에서 기념 케이크를 자르기 전 동문들에게 감사해 하고 있다.
→함은선 회장은 박윤수 박사에게 길이 남을 기념패를 증정했다.

에 그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박윤수 박사는 오하이오 신시내

티 대학에서 지난 1963년 고체물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미 항공우주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1988년 버지니아로 이주했다. 그러나 최근 부인의 건강 문제 등으로 인해 부득이 6월 12일 캘리포니아 Seal Beach 지역으로 이주하게 됐다.***





↑골프대회를 마친 후 한식당 만포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 전 기념 촬영을 했다.골프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과 가족들이 대거 참석해 이날 대회를 한 층 뜻깊게 해주었다.

샌디에고 동창회

Castle Creek 골프장에서 대회

샌디에고 동창회(회장 최홍수·자연대 87)가 지난 6월 7일(토) Castle Creek 골프장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골프대회 후 뒷풀이 저녁은 한식당 만포에서 골프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동문 및 가족들도 함께 했다. 저녁식사 후 최홍수 회장이 동창회를 간단히 소개한 뒤 각 동문들이 돌아가면서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필자(김주성·농대 83)가

골프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했다. 상품은 골프백, 골프 club, 가방 등을 비롯한 꾸밈한 선물로 준비되었다. 이날 골프대회에서 입상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Net Score Medalist = 이재현(수의대 76, 상품 Putter) ▶챔피언 = 염두호(공대 57, 챔피언 트로피 + 골프백) ▶2등 = 김현철(공대 57, 상품 Putting Practice) ▶3등 = 김갑(공대 62, 상

품 Practice Sag ▶여성 1등 = 임소영(임춘수 동문 부인, 상품 Golf Ball 1 Box) ▶여성 2등 = 염숙자(염두호 동문 부인, 상품 Golf Ball 1 Box ▶기타 모든 참석자 = 골프공 1 Sleeve. 특히 이번 골프 대회에서 챔피언 트로피를 기증해주고 동문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대회를 개최하도록 섭외해주신 한평철(상대 64, Castle Creek Country Club 대표) 동문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종성(사회대 75) 동문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출판 기념회와 관련하여 자신의 저서(민주주의, 부패와 불평등: 한국, 대만, 필리핀 비교연구)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동안 동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봉사해주었던 유종성 동문이 샌디에고를 떠나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되어 참석한 동문들을 매우 섭섭하게 하였다. 아울러 골프 대회 및 저녁식사 동안 필자와 함께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어주신 한대곤 동문(공대 84), 그리고 심상철(공대 81) 동문 및 김종우 총무(공대 94)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각종 비즈니스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이번 골프대회 및 저녁식사에 참석해주신 동문들 및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샌디에고 동창회가 계속해서 한층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날 골프대회에 참석한 동문들은 총 29명(관호 안은 부인)으로 정현식(공대 54·정유미)·황성현(공대 56)·임춘수(의대 57·임소영)·김현철(의대 57·김완혜)·이창섭(공대 57)·염두호(공대 57·염숙자)·윤진수(의대 57·박정숙)·민영기(치대 61)·이문상(공대 62)·김갑(공대 62)·한평철(상대 64·한숙례)·손창욱(공대 65·손정혜)·백우현(공대 67)·장동원(수의대 75)·이재현(수의대 76)·서정용(공대 81)·오충현(자연대 81)·김주성(농대 83)·임용갑(공대 84)·한대곤(공대 84)·송상훈(공대 87)·송성명(사회대 88) 동문 등이다.*** <글·사진 = 김주성(농대 83) 부회장>

↓아래 사진은 골프대회 영예의 트 이재현(수의대 76), 챔피언 염두호(공대 57), 여성 1등 임소영, 남성 2등 김현철(공대 57), 남성 3등 김갑(공대 62).



관악세대/Acro광장

오바마 대통령은 잘 하고 있나

이종호(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오바마 대통령은 말을 잘 한다. 한 마디 한 마디가 감동적일 때가 많다. 얼마 전 아프간에서 붙잡힌 미군 병사 한 명을 수감 중인 탈레반 지도자 5명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구출했다는 발표를 할 때도 그랬다.

“전쟁터엔 어떤 병사도 남겨두고 나오지 않는다는 미국의 변치 않는 의무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다.”

이런 한 마디가 국민들의 애국심에 불을 지핀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자체로 역사다. 미국의 흐름을 바꾼 첫 소수계 출신 대통령이어서다. 그의 인생 스토리 또한 감동의 드라마다. 출생에서부터 백악관 주인이 되기까지 그의 삶은 담대한 도전과 용기 있는 결단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지금 그의 인기는 바닥이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NBC 방송의 지난 3월 조사에서 지지율은 41%까지 떨어졌다. 지난 1월의 43%보다 더 내려간, 집권 이후 최저치다.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 상승과 각종 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 회복이라는 좀 더 확실한 열매를 안겨주지는 못했다. 중동·아시아·우크라이나 등지의 외교에서도 러시아·중국에 밀리면서 미국의 체면을 구겼다. 야심차게 추진했던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의 부작용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강력한 리

더십 구현의 실패로 지지층과 반대층 모두의 불만을 산 것이다. 대중은 인내심이 없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 싶으면 돌아선다. 거기에 사사건건 흠집내기에 혈안이 된 보수 기득권층의 견제와 발목잡기는 또 얼마나 집요했는가.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역사적 평가까지 바닥일 것이라 단정하기는 이르다.

정치란 현실 절충이고 타협이다. 하지만 때론 대의와 명분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것도 정치다. 가진 자보다는 못가진 자, 힘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 다수보다는 소수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정치이고 정당성 싸움에서도 늘 우위를 점한다는 것이 역사가 일러주는 교훈이다.

오바마의 여러 정책들이 그렇다. 온갖 저항에 부딪치며 누더기가 될 정도로 뜯어 고쳐졌지만 의료개혁, 이민개혁은 미국 사회의 시대적 요청이다. 최저임금 인상, 소수자 권익 신장도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팔꿈치 사회’의 불편한 진실

이원영(인문대 81) CA
미주 중앙일보 논설위원
한의학 박사

제시한 강수돌 고려대 교수의 역저 ‘팔꿈치 사회-경쟁은 어떻게 내면화되는가’엔 불편한 진실이 가득하다.

‘팔꿈치 사회’는 옆 사람을 팔꿈치로 치며 앞만 보고 달려야 하는 치열한 경쟁사회를 일컫는다. 마라톤이나 빙속 경기에서도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팔꿈치가 동원된다.

현대사회의 경쟁은 이런 ‘너 죽고 나 살기’ 식이다. 우리들은 왜 많은 부문에서 경쟁을 하게 되었을까.

강 교수는 생존경쟁을 마치 자신의 삶의 논리인 것처럼 굳게 받아들이는 것을 ‘경쟁의 내면화’라 정의했다. 경쟁의 내면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예를 든다.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는 깡패를 만나 도망갈 수도 없고 대항할 수도 없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형님,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맹세한다.

그러면 엄청난 공포심이 모종의 안도감으로 변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일심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요청하는 것과는 달라진다.

생존을 위해 ‘강자만이 살아남는다’는 논리로 경쟁을 ‘내면화’하면서 본질과 멀어지는 ‘자기 소외’는 가속화된다.

다. 당장의 인기 유무만으로 그를 평가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분투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얼마 전 미 육사 졸업식 연설에서 대외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이례적으로 미국의 ‘자기 모순 4가지’를 지

강 교수는 이를 “겉으로는 부와 권력, 명예, 외모를 과시하되 속으로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만족에 시달리는 표리부동한 삶”으로 규정한다. 상생을 위한 높이경쟁이 아닌 공멸을 향한 생존경쟁을 추구하는 한 현대사회의 비인간화는 극복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럼 어떡하라고?

강 교수는 돈벌이, 출세가 중심이 아닌 연대와 협동, 우애와 호혜의 정신을 나누는 ‘작은 모임’부터 출발하자고 한다. 그런 작은 모임이 그물망처럼 사회를 엮어줄 때 스웨덴·덴마크 같은 인간다운 선진국 모델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제언한다.

오행이론에서 사람의 오장육부를 보면 간은 심장을, 심장은 비장을, 비장은 폐를, 폐는 신장을, 신장은 간을 살려주는 상생의 순환 시스템이 작동한다. 만약 오장육부 중에서 어느 하나가 돌출되면 ‘상극’의 시스템이 가동돼 역제시킨다. 이런 상생·상극 관계가 깨지고 특정 장부의 기능이 항진된다면 질병과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 상생·상극이 아닌 무한경쟁이 지배하는 사회도 그럴 것이다.

말이 ‘경쟁의 내면화’를 강요하는 현대사회의 음모를 간과한 해안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수많은 아빠·엄마들이 겪어온 ‘피로 사회’를 동경하지 않은 건 분명해 보인다.

말의 선택이 숨 막히는 경쟁보다는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사회를 향한 작은 발걸음이라 해석하고 싶다.***

적한 것이다. 자기 모순 4가지란 국제 해양법 위반과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무관심, 관타나모 수용소의 인권 열류 상황, 그리고 여전히 세계를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시민을 사찰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모두 미국의 가치와 법률 전통에 맞지 않는다고 반성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쟁이 아닌 외교력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라며 미국 외교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미국이 21세기에도 계속 수퍼파워로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인의 관심사다. 하지만 그런 위상은 더 이상 무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빼고는 세계가 다 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마침내 미국도 그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특히 대통령의 반성은 세계 각국의 반미 감정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오만한 미국’이라는 이미지를 씻어내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런 것만으로도 오바마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링컨도 재임 당시엔 노예해방에 따른 엄청난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링컨은 당대의 인기보다는 시대정신과 역사를 볼 수 있었기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었다.

과연 오바마도 그럴 수 있을까. 훌륭한 지도자는 그를 알아보는 국민들의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진다.***

사회정의와 상담의 함수관계

한정민(농대 87) VA
워싱턴 가정상담소 상담사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

얼마 전 주말에는 오랫동안 쉬면서 한국에서 관객 수 천만 명을 기록하고 미국 극장에서도 열찬리에 상영된 영화 ‘변호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80년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보고 겪었고, 한 동안 잊고 지내던 장면과 기억들이 흑백 영화처럼 함께 떠올랐다.

박종철 사건과 6.29 선언 등의 혼란 속에서 코 끝을 찌르던 때 온 최루탄 냄새로 마스크가 없이는 등교할 수 없었던 대학 시절. 정의나 사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도 끓는 젊음과 호기심을 안고 선배들을 몇 번 따라다녔던 시위 현장.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와 결혼하고,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10여 년을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떤 정치적 견해나 색깔을 갖고 사회 정의(social justice)를 논하는 일들이 필자에게 아득한 사치로 느껴졌던 것 같다. 적어도 5년 전 상담 공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영화를 다 봤을 때 짝 친구로부터 문자가 날아왔다.

“어땠어?”
“글쎄..., 가슴이 먹먹하네.”
“갑자기 왜?”

정치적 색깔이나 한 정당을 향한 소신없이 살고 있는 필자의 모습이 그 친구에게는 아마도 ‘갑자기’ 피해자들을 향한 가벼운 동정이나 한 정당을 향한 색깔 짚으로 받아들여졌다 보나.

‘갑자기’란 단어가 마음에 울리며, 마이클 샌들과 함께 바람처럼 나타나 서점가를 휩쓸고 사라진 ‘정의’란 단어를 다시 곱씹어 보았다. 물론 필자는 철학이나 인문학적인 ‘정의’에 대해서 나눌 식견이나 자격이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잘못된 사회적 구조와 관습과 편견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 보장받지 못할 때, 그 사회에서 한 사람이 겪게 되는 상처와 분노와 절망은 상담사로 살아가는 필자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첫 상담 수업에서, 상담 대학원의 강령(mission statement) 중에 ‘사회 정의(social jus-

tice)’가 들어 있어 참 의아했던 적이 있다. 상담 공부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 ‘상담’과 ‘사회 정의’의 연관성을 얼른 떠올릴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그 답을 주었다.

“절벽 아래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떨어지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절벽 위로 올라가 보니 힘센 이들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약자들을 밀어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절벽 위에서 안 밀면 떨어질 상처입은 사람이 생기지 않을 텐데...”

그렇다. 잘못된 사회 구조와 여러 종류의 차별 - 인종, 성별, 장애, 정치적 성향, 종교, 교육 수준 등 - 과 억압과 편견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기게 됨을 영화를 통해 다시 보았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건강한 사회에서는 상담이 필요한 사람도 줄게 되는 반비례의 함수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가 만난 내담자들 중에는 한국이나 미국에서 구조적 불평등과 사회의 편견 등으로 분노와 억울함과 자책으로 힘들어 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흔히 주는 학생을 편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설명도 듣지 않

고 때리던 선생에게 분노하던 초등학교, 함께 입사한 남자 동료와의 성 차별과 상사의 성 추행 때문에 겪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치를 떨던 여성 내담자, 동네 어른들이 내뱉은 ‘호로자식’이란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면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던 남성. 사회적 편견과 불평등이 이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서 마음에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물론 사회 구조만이 전적으로 이들 상처에 책임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올바른 정책과 사회 구조로 정의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그 ‘하드웨어’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편견과 잘못된 관습의 ‘소프트웨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 구조는 능력과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에 상담사는 상처입은 자들의 힐링을 도와줄 뿐 아니라, 약자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는 잘못된 사회 제도와 정책, 사회의 편견과 잘못된 관습을 개선하는 일에도 목소리를 내야 함을 훈련받고 배운다.

그러나 어디 상담사 뿐이겠는가. 한 사회에서 ‘역할의 옷’을 입고 사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편견과 차별과 불평등의 시선을 돌아보고,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사회 정의를 향한 목소리를 내는 책임과 특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관악세대/Acro광장

말레이 항공의 비극

민경훈(법대 78)CA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자식을 비행기 사고로 잃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70년대 한 해 평균 3천명에 달하던 항공 사고 사망자는 안전 기술의 향상과 함께 이제는 1천명 선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 명 선이니까 단순 계산으로는 1/700만 정도 될 것이다.

그러면 아들과 손주를 모두 비행기 사고로 잃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1/700만 곱하기 1/700만이니 1/49조에 달한다. 1억 달러 짜리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훨씬 적다.

그러나 이 있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지난 3월 인도양 어디인가 추락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기에 탔다 사망한 호주 출신 로드니 버러우즈의 부모 조지와 아이린은 지난 주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미사일에 맞아 격추된 말레이시아 항공 MH17기에 탔다 역시 사망한 마리 리스크의 조부모이기도 하다. 부모와 자식이 불과 넉 달 간격으로 각각 추락해 사망한 것은 항공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하긴 고도 3만 피트로 날고 있는 민간 항공기를 미사일로 격추시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은 3만 피트 상공을 나는 비행기는 안전한 것으로 간주돼왔다. 말레이 항공도 그렇게 믿고 그 노선으로 비행기를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다. 러시아는 보통 나라들과는 좀 다르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경험해 봐서 안다. 구소련 시대에도 소련은 만 것은 다 되더라도 미사일 기술만은 세계 제일이었다. 인공위성을 제일 먼저 쏘 올린 것도, 유인 로켓을 성공적으로 처음 발사한 것도 소련이었다.

이들은 뛰어난 미사일 시스템과 함께 인명 경시 전통도 가지고 있다. 1978년 4월 20일 대한항공기가 실수로 소련 영공을 침범하자 소련은 전투기를 보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비행기는 날개 일부가 날아갔음에도 기적적으로 무르만스크 인근 얼어붙은 호수에 불시착해 2명을 제외하고는 100여 명에 달하는 승객이 목숨을 건졌다. 소련은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 한 일을 벌여 놓고도 영공을 무단 침입했다는 이유로 기장의 사과를 받아내고 10만 달러에 달하는 구조비용을 청구한 후에야 승객들을 풀어줬다. 소련 공군 지도부는 대한항공기가 오랫동안 소련 영공을 비행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련은 5년 뒤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기가 다시 사할린 인근 소련 영공을 침범하자 이번에는 미사일 2대를 발사해 승객 등 269명 전원을 몰살시켰다. 소련은 그 후 이에 관한 어떠한 배상이나 사과를 한 적도 없다.

이번 말레이 항공기에 누가 미사일을 쏘았는지에 관해 여러 설이 있지만 과거 행태와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우크라이나 동부를 장악하고 있는 친러 반군이 러시아가 제공한 부크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시킨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이들은 말레이 항공기를 군용기로 오인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에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은 물론 반군들이지만 이들을 훈련시키고 무기까지 대준 러시아의 푸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푸틴은 총 한 방 안 쓰고 크림 반도를 삼킨 후 동부 우크라이나까지 먹기 위해 이곳 정정 불안에 부채질 하고 반군을 지원하는 등 야욕을 감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제 사회는 강 건너 불 보듯 수수방관해 왔다. 이번 말레이기 격추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중요한 것은 비행기 한 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구 소련권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냐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푸틴이 원하는 대로 동부 우크라이나가 떨어져 나가 러시아의 위성국이 될 경우 푸틴의 독재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며 구 소련권 국가들은 다시 러시아의 속국이 될 것이다. 반면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보전하고 계속 친서방 민주 정부를 유지해 나간다면 푸틴은 힘을 잃고 러시아 민주주의는 부활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이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과연 이번에는 동네 깡패 러시아와 맞설 의지를 보여줄 것인가. 말레이 항공 승객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

건강의학 칼럼

간과 콩팥에 있는 낭종

차민영(의대 76)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57세된 남자 환자가 간 기능에 약간 이상(SGOT 50, SGPT 65)이 있어서, 초음파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간에 다른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5cm 정도 되는 낭종(Cyst, 물주머니)이 발견되었다. 환자는 “아, 이것 때문에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긴 거군요?” 하고 물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과연 이 5cm 사이즈 물 주머니가 간 기능을 이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만들 수 없다”가 맞다. 즉, 이 5cm짜리 물 주머니는 그냥 우연히 같이 발견된 소견이다.

낭종이란 우리 말로 ‘물 주머니’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주머니 모양으로 간 옆에 주렁주렁 달린 것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간 안에 있는 빈 공간이다. 몸 안이므로 빈 공간 안에 공기가 차는 것이 아니라,

물이 차게 된다. 그래서 물 주머니라고 부르는 것이다.

잠시 생각해 보면 알겠지만, 빈 공간이 약간 있다고 해서 무슨 간 기능에 이상이 있겠는가. 이 환자는 다른 이유로 간 기능에 이상이 약간 생겼을 뿐, 간의 낭종 때문에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은 절대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에게 초음파를 실시해보면, 심심찮게 많은 낭종들이 발견된다. 작게는 1cm 정도부터 크게는 10cm 정도에 이르는 낭종을 발견하게 된다. 심지어는 한 개가 아닌 5-6개에 이르는 낭종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 때마다 환자들은 걱정을 한다.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상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혹은 “암이 되지는 않나요?” “유전 때문인가요?” 등등 매우 많은 질문과 걱정을 한다.

그러나 ‘낭종은 낭종일 뿐’ 인체에 아무런 해를 미치지 않는

다. 심지어 10cm 이상인 낭종이거나, 여러 개의 낭종이라고 하더라도 인체에는 해가 없다. 간 기능도 다 정상으로 나온다. 또 유전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또한 초음파상 콩팥에서도 많은 경우 물 주머니가 우연히 발견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콩팥에 있는 작은 빈 공간이다. 그래서 물이 차 있는 것이다.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콩팥 기능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 (단 한 가지 예외는 Multicystickidney disease라는 것이 있기는 하다. 이것은 유전적인 요소가 있고, 콩팥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독자들 중에 이런 식으로 간과 콩팥에 있는 낭종을 가진 많은 분들은, 이것 때문에 더 이상 걱정을 하시지 말기를 권한다.

단지, 간이나 콩팥에 이 낭종이 서서히 자라는지, 또는 모양이 변하는지 1년 뒤 한 번쯤 Follow-Up 초음파는 꼭 해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드물지만 암이 처음에는 낭종처럼 보이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필자는 처음에는 동그란 모양의 낭종으로 보이다가 1년 뒤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조직검사로 암으로 발견하여 완치한 케이스가 있다.***

신뢰 실종사회의 유언비어

노재원(인문대 82)CA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장

만리타향에 살면서도 조국인 한국 소식은 이제 멀리 두고 온 고향 이야기가 아니다. 비행기로 만나질이면 닿을 수 있는데 인터넷 등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이다.

환율·증시 같은 경제는 물론 정치·사회·문화 등 글로벌 시대 우리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다.

이즈음 한국사회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는 여전히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다. 300명에 가까운 고교생을 포함한 수백명의 희생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잘못된 관행 및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뒤덮고 있다.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조국인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과 불신, 반목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사당국은 최근 전남 순천 인근의 매실밭에서 40일 전 발견된 한 시신이 세월호 실소유자인 유병연 세모그룹 회장의 것이라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줄 것으로 지목되던 핵심 인물의 사망은 또 다른 후폭풍을 낳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백골화가 진행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부검 결과 조작’, ‘시신 바꿔치기’ 등과 같은 유언비어가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유병연이 ‘발견된 시신은 내가 맞다’라고 주장했다”는 어이 없는 괴담까지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국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소는 물론 전문가들이 유병연의 시신이라고 해도 믿지 못하겠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세월호 참사도 그렇지만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이 같은 현상은 결국 한국사회에 신뢰 또는 믿음이 실종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선박 운행과 관련한 각종 규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지만 업체는 물론 이를 관리 감독할 기관은 그 허점과 맹점을 이용, 이익을 챙겼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해경이나 경찰, 검찰은 허위 보고와 거짓 정보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움직이지 말라”는 지시를 철석 같이 믿고 따르다가 생명을 잃은 희생자들을 지켜 본 국민 가운데 앞으로 정부나 당국의 지침을 지킬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신뢰의 정치인이었다. 예전 ‘세종시 이전 논란’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유·불리보다 국민과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신뢰와 약속을 앞세워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에서 불신이 극에 이른 것은 아이러니를 넘어 씁쓸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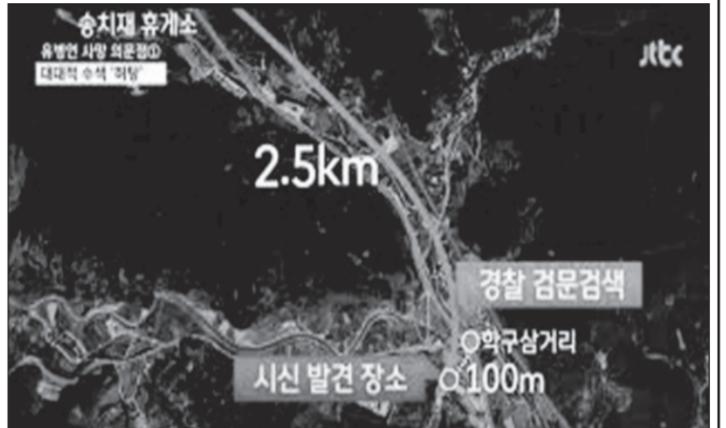
모든 사회조직의 기본은 신뢰에서 시작된다. 가정은 물론 크고 작은 단체에서부터 국가에 이르는 모든 사회집단은 각 구성원의 믿음을 바탕으로 존재한다. 구성원 간에 믿음이 실종된 공동체는 허울 좋은 이름만 함께 사용할 뿐 이미 와해된 조직이다.

최근 한인사회 주요 단체들 가운데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는 곳들이 많이 눈에 띈다.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왔지만 아예 모르던 사이보다 더 멀어진 이들도 없지 않다. 상대는 틀렸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한다. 신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들 만큼 불신이 팽배하다.

편법과 얕은 술수, 교묘한 말은 언젠가는 티가 나고 결국 드러나겠지만 믿지 못하는 이들을 보는 것은 불편하기 그지 없다.

한국의 세월호 참사 극복은 특별법 제정, 국가 개조와 같은 거창한 구호나 움직임이 아닌 작은 불신을 씻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믿음과 신뢰 회복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 걸음이다.***



영화이야기

Liberal Arts



이건일(의대 62) CA

얼마 전 도서관에서 빌려 본 영화 'Liberal Arts' 와 이 영화 마지막 Credits 부분의 노래 'Favorite Song' 이 머리에 남는다.

이 영화는 Josh Radnor가 각본을 쓰고 감독, 주연한 그의 두번째 영화다. 이야기는 35세인 주인공 Jesse (Radnor)가 19세인 여대생 Zibby (Elizabeth Olsen)와 사랑이 싹트는 데서 출발한다. 2012년 1월 Sundance Film Festival에서 초연돼 호평을 받았다.

▶**줄거리** = 영화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Jesse Fischer(Radnor)는 35세인 뉴욕의 어느 고등학교의 대학진학 상담 선생이다. 그는 문학과 어학을 좋아하는 책벌레. 최근에 아내와 이혼하여 홀몸이 되었으나 자신의 인생과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자기가 제일 행복했던 시기가 결혼 전이었던 오하이오주 Liberal Arts College(종합대학이 아닌 단과 대학, 미국에는 각 주에 이런 훌륭한 조그만 단과 대학들이 많다)에서 학생으로 지낼 때였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방해받지 않고 시를 공부하였던 때를 그리워 한다.

어느 날 학창 시절 자신의 영문학 은사였던 Peter Holberg 교수에게서 그의 교수 은퇴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연락이 온다. 다시 모교를 방문한 Jesse는 Holberg 교수 친구의 딸이자 드라마를 전공하는 대학 2학년생인 19세의 Zibby(Olsen)를 만나게 된다.

은퇴 기념 저녁 만찬 후에 우연

히 들른 dorm party(기숙사에서 열리는 파티. 음주를 주로 하는 파티다)에서 Zibby를 다시 만나게 되고 다음 날 같이 커피를 마시기로 한다.

지비와 만난 제시는 그날 오후 둘이서 캠퍼스를 거닐며 인생과 책과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학생 때 문학 교수였고 자신이 오랫동안 흥미가 없었던 Judith Fairfield (Janney)를 만난다.

둘이 헤어지기 전에 지비가 서로 연락을 하며 지내자고 한다. 둘은 인터넷을 통한 e-mail이 아니고 직접 종이에 펜으로 글을 써서 보내는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자고 하여 둘은 펜팔이 된다.

지비가 제시에게 자기와의 로맨틱한 관계를 유지하러 대학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한다. 제시는 16년이라는 나이 차이 때문에 주저하다 결국은 승낙한다.

제시가 종이에 써 보는 나이 차이 공식 ; 제시 35 - 지비 19, 제시 18(대학 1년) - 지비 3, 제시 16 - 지비 0이 둘의 나이 차이를 실감케 한다.

같이 돌아 다니던 둘은 홀버그 교수 눈에 띄고 제시는 교수에게서 "과거에 집착해 살지 말고 성장하라"는 경고를 받는다.

지비가 둘이 같이 자라는 제의를 하나 이것이 그녀의 첫 경험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제시는 제의를 거절하고 물러난다.

제시는 뉴욕으로 돌아오고 책을 좋아한다는 같은 취향의 Anna (Reaser)를 만나게 된다. 그리고 연령에 걸맞는(age-appropriate) 안나와 같이 늙어가기로 한다.

▶**암울했던 우리 학창시절과 비교** = 우리는 암울하였던 시기에 대학을 다녔고 최루탄 연기와 테모와 휴학을 거치며 졸업했다. 이곳 미국에서는 큰 종합대학 말고 조그만 단과대학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는 소위 'little ivy' 라는 이름난 liberal arts college 들도 많다.

이 영화를 찍은 곳은 Radnor와 Janney의 모교인 오하이오주 Columbus시 근처 Kenyon College 였다고 하는데 캠퍼스와 건물들이 참 아름답다.

우리 아이들도 조그만 단과대학에 다녔고 학부형 방문일에 이들 학교를 방문하면서 느낀 것은 나도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부러움 섞인 동경심이었다.

아름다운 캠퍼스에 둘러싸인 고풍스런 건물에 담벽을 덮은 담쟁이 덩굴들(Ivy). 왜 아이비 리그 라는 말이 생겨났는지 실감할수 있었다.

학부형 참관일이라 개방된 강의 실에 들

←영 화 'Liberal Arts' 의 포스터

박흥진의 할리웃 산책

사랑이 아름다운건 찰나기 때문

박흥진(사대 64) CA
영화 평론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에밀리 디킨슨은 "사랑하는 사람은 죽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불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사랑의 영원성을 찬미했지만 그것은 한갓 로맨틱의 염원일 뿐이다.

사랑이 해볼만하고 아름다운 까닭은 찰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찰나적인 것을 영원토록 바라는 인간의 과욕 때문에 눈물과 아픔도 잉태된다. '러브' 자 붙은 대부분의 노래들이 아프다며 울고불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런 속성을 뒤늦게 깨닫는 반성문과도 같은 것이다. 사랑의 궁극적인 불임증과 권태와 피로는 안토니오니의 영화에서 절실하게 규명된 바 있다.

연인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묘사한 그림들을 사랑에 관한 인용구와 시와 함께 곱게 배치한 126쪽짜리 책 '그림 속의 연인들(Lovers in Art)' 이 프레스텔(Prestel)에 의해 나왔다. 구름이 낀 해변에서 집사와 하녀가 든 우산 아래 춤을 추는 두 남녀의 우아한 모습을 그린 잭 베트리아노의 '노래하는 집사' 를 표지화로 선택한 책은 사랑을 그림으로 다채롭게 형상화해 보고 있으면 사랑에 푹 빠져드는 느낌이 든다. 그림뿐 아니라 조각과 사진도 있다.

연인들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세월을 가로지르며 사랑하고 있고 화가들도 "뺨 굽는 사람과 그의 아내" 를 그린 익명의 로마 화가로부터 김소현 '커플' 을 그린 20세기의 알렉스 카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랑은 모름지기 접촉이 없으면 허공 중의 키스처럼 모자라기라도 하다는 듯 많은 그림들이 연인들의 키스와 포옹을 보여 준다. 클림트와 피카소와 로댕의 '키스' 들이 뜨거운데 키

어가 인문학 시간 강의를 경청할 기회가 있었다. 고작 6명의 학생들이 반원형으로 책상을 놓고 교수와 토론하는 형식으로 강의는 진행되었다.

교수의 질문 ; 왜 chiropractor(정골의사)가 많이 있는 곳에는 종교 cult 신도가 많은가? 교수가 학생 하나를 지적하여 대답을 하게 하면 이 학생은 충분히 책을 읽고 준비를 해왔는지 거침 없이 대답을 하였다.

그에 따른 교수의 해석은 gullibility (easily taken in or tricked)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은퇴한 지금도 꾸는 꿈** = 아, 참으로 부러웠다. 다 낡은 30년 묵은 누런 공책에 농담까지 써놓고 매년 똑같은 것을 줄줄 읽던 우리 교수님들. 나도 돈 대주는 아버지가 있었다면 다시 이런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었다. 아니 은퇴한 지금에도 가끔 그 꿈을 꾸고 있다.



↑ '그림 속의 연인들' 표지

스하는 모습들 중에는 유명한 태평양 전쟁 중전일 타임스 스퀘어에서 지나가는 간호사를 정열적으로 끌어안고 키스하는 해군의 사진도 있다.

사랑은 신화 속의 신들도 즐겨 해 이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담은 그림들도 많다. 천상의 바람둥이로 아내 주노의 속을 뽐시 썩인 제신의 왕 주피터는 자기 모습을 백조와 황소 등으로 바꿔가면서 원하는 여자들을 취했는데 그가 이번에는 검은 구름으로 변신해 처녀 이오를 끌어안는 코레지오의 '주피터와 이오' 가 매우 예로적이다.

또 예티안이 그린 자신의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모험가로 험잡한 아도니스를 끌어안고 "조심하라"고 호소하는 '비너스와 아도니스' 와 프랑와 부셰가 그린 우람한 체구의 천하장사 허클리스와 풍만한 육체의 움팔레이가 웅골차게 키스하는 '허클리스와 움팔레이' 도 무척 인간적이다.

예쁘기도 한 것은 프랑와 제라르가 그린 '사이키와 큐피드'. 날개가 달린 등에 사랑의 화살통을 멘 나체의 곱슬머리 큐피드(이성동체 같다)가 아직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꽃봉오리 같이 소복하니 솟아 오른 유방을 드러낸 사이키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는 모습이 깨끗하고 순진해 마음이 정갈해진다.

신들의 여인은 인상파 화가들의 여인들처럼 살이 토실토실하

게 쩌 잘 익은 수밀도처럼 곧 터질 것 같은데 보고 있자니 눈에서 욕심이 난다. 육체의 찬양인데 20세기 화가 에곤 실레의 '포옹' 의 벌거벗은 두 남녀의 꿈틀거리는 치열한 포옹도 육체의 야수미를 잘 나타내고 있다.

화끈하고 탐스럽고 감칠 맛 나며 그리고 교태를 부리고 수줍어하며 또 외면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감상하다가 속이 달아오르면 사랑에 관한 글을 읽으면 서 식히면 된다.

어떤 글은 그림보다 더 정열적이다. "키스들 속의 당신의 사랑이 내 입술에 비 내리고 내 눈꺼풀을 창백하게 하소서"-셸리. 지상의 바람둥이 카사노바도 한 마디 한다. "키스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한 부분이 되어 숨 쉬고자 하는 타오르는 욕망이 아닌가." 이런 절절 끓어오르는 말을 하니 여자들이 녹아날 수밖에.

위고와 타고르와 릴케 등 많은 작가들의 사랑과 키스 그리고 작용과 응시의 말들이 한결같이 정열적인데 유독 지드의 사랑의 정의가 점잖아 눈에 띈다.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사랑의 특색이다. 그것은 감소되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라야만 한다" 과연 지드다운 말인데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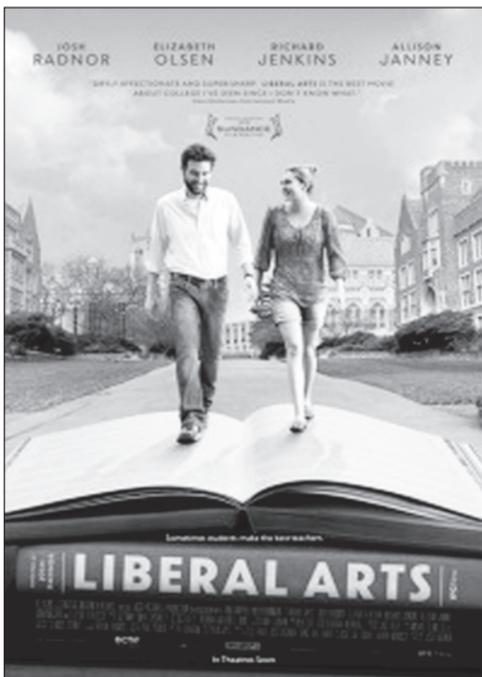
양쪽에 그림과 그에 어울리는 글을 담았듯 비슷한 모습이나 내용의 그림을 양쪽에 대조하는 셀스도 있다. 르뇌르의 수수한 차림의 남녀가 춤을 추는 '시골댄스' 와 세련된 파티복의 남녀가 춤을 추는 '도시댄스' 가 정겹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역시 양쪽에 실린 윌리엄 호가트의 자기 손을 잡고 구애하는 남자와 이를 피하는 척하는 여자를 그린 '비포' 와 후줄근한 모양의 두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애프터' 도 재미있다.

그런데 '애프터' 의 여자 스커트가 무릎 위까지 올라가 있고 남자의 바지가 내려 있는 것을 보니 막 야외에서 섹스한 게 분명하다. 이 밖에도 루벤스, 반 아이크, 루소, 샤갈, 몽크, 프리다 칼로, 마네 그리고 고흐, 카미유 클로델, 쿤스 및 코코쉬카 등의 작품들이 게재돼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세요.***

Prof. Judith Fairfield - Allison Janney/ Dean - John Magaro/ Ana - Elizabeth Reaser>

<Favorite Song(by Kaiser Car-tel)> End of the day, on the subway - in my ear/ Along the the way, the headphones play - I can hear you/ You're my favorite song, I wanna sing it again yeah my favorite song/ Sing it to ya yeah ah ah ah/ Stuck in my head, replaying again, - I don't mind/ Stuck in my heart, finish to start, - it's all right You/ You're my favorite song, I wanna sing it again yeah my favorite song/ Sing it to ay yeah ah ah ah/ Into it, into it, with you and I'm into it/ Into it, into it, yeas I am/ I wanna sing it again.../ You're my favorite song, I wanna sing it again yeah my favorite song/ Sing it to ay yeah ah ah ah.***





<Episode의 동문> 정대현(공대 54) 박사

초등학교 4년 때 천경자 선생을 짝사랑

1946년 소년 정대현은 광주 서석 초등학교 4학년 2반 반장이었고 담임 선생은 당시 국어를 가르치던 시인 서정주 선생이었다. 서정주 선생은 웃음기라고는 일 년내내 찾아 볼 수 없는 항상 근엄한 얼굴로 학생들을 대하셨다. 반면 동경 여자 미술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늘씬한 몸매에 세련된 의상과 행동은 이 지방의 여성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천경자 미술 선생은 어린 정대현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천경자 선생은 1924년 고흥에서 출생하고 전주여고를 거쳐 일본 동경 여자미술전문대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다. 유학시절이던 1944년 방년 20세의 새파란 시절에 만난 이철식이란 청년과 사랑에 빠져 결혼까지 했으나 이는 잘못된 만남이라 곧 파경을 맞이하여 실의와 고독에 싸인다.

이철식과 헤어져 생활했지만 6.25 한국전쟁으로 그와는 완전히 소식이 두절된다. 이런 실의에 빠진 시기인 1946년 서석 초등학교에 부임해 광주 동명동 1가에서 하숙하며 학교에 다녔다. 그런데 같은 동명동 2가 형님

택에 기거하던 정대현 소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마다 선생의 늘씬한 뒷 모습을 훑쳐보며 졸졸 따라 등교하면서 이성에 대한 사랑이 피어 오른 것이다.

정 소년은 그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어느 날 편지를 써서 선생님에게 바친다. 정 소년은 그 때 무슨 말을 썼는지 지금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천경자 선생님께서 불러 가서 “학생은 공부에만 전념해야 돼요” 라는 말을 들었던 사실을 지금까지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정 소년이 첫사랑(?)의 고백을 거절 당했는데, 몇 남성들은 실연한 첫사랑은 일생 잊지 못하지만 기억조차 하기 싫어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정대현 소년은 천경자 선생님이 남편과 헤어져 혼자 하숙한다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고독한 선생님의 심정을 마음으로 느낌을 받았는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을 한다.

초등학교 4학년생이 10년 연상의 선생님을 사모하였다니... 종종 그런 학생이 있다는 말은 들었으나 편지까지 쓴 학생은 천연기념물감이다.



←내가 처음 정대현 동문의 부인 Mrs. 정을 보는 순간 어디서 많이 본 분이라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얼마 후 천경자 화백의 작품 '길레 언니' 를 보고 “바로 이 그림에서다” 라고 했다. 2013년 12월 송년 파티에서 정 동문 부부와 함께.

천경자 선생은 고흥에서 유치원과 고흥 보통학교를 다니며 화가의 꿈을 키웠다. 또한 그녀는 보통학교 시절 교정에서 열린 박람회장에서 소록도 나병원 간호사로 있던 선배 길레 언니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이후 길레 언니는 천경자 선생의 연작에 등장하는 상징적인 여인이 되었다 (인터넷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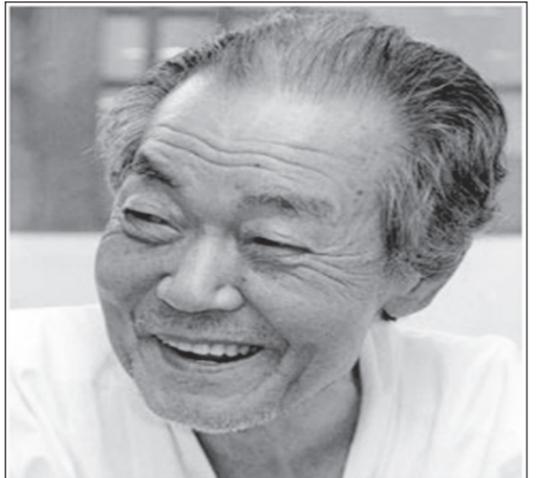
정대현 동문은 광주일고를 거쳐 1954년 서울대 공대 화공과에 입학했다. 그는 특히 FLI 영어에 관심이 많아 미군 상사에게 영어 회화를 배웠다.

1953년 정부 고위직 관료와 고급장교의 만찬장(진해)에 통역관으로 차출돼 열심히 파티장을 누비며 통역을 하는데 어떤 노인이 불려서 그가 묻는 말에 자신의 신분,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가에 대해 대답하였다.

그런데 그 노인이 비서 같은 사람을 부르더니, “이 학생을 국비장학생으로 미국에 유학을 보내라” 고 하시는 게 아닌가.

후에 안 사실은 그 노인이 당시 국회의장 신익희 선생이었다.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에 1954년 쉽게 미국 유학에 올라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 초등학교 4학년 소년 정대현의 사모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던 천경자 화백(왼쪽). 항상 근엄한 표정만 지었던 서정주 시인. 이렇게 밝은 웃음을 띄고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리도 근엄한 얼굴을 하여 6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정대현 소년은 담임 선생님 미당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 한다.

받고 MIT Research associate, Lawrence Livermore Laboratory, 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고 지금은 은퇴해 나파에서 골프, 여행, 작시(作詩)하시며 아릿다운 길레 언니와 여생을 즐기신다.

일반적으로 첫사랑은 헤어진 후에 다시 만나질 못하는데 이 분은 악연인지 행운인지는 모르겠지만 1986년 방한 당시 형수님의 안내로 호암 갤러리 오픈 기념식장에서 뜻밖에도 천경자 화백을 만나게 된다.

그 자리에서 어린 시절 편지를 건넨 학생이 자기임을 밝혔으나 무심도 하시지, 천경자 선생은 전혀 편지건을 기억을 못하시고

“아 ~ 그런 적이 있었나?” 하시며 “그 어렸던 소년이 이렇게 장성해서 세계적인 과학자(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저명인사 센터가 선정한 20세기 과학자 2천 명에 포함)가 되어 내 앞에서 있다네요” 하시면서 아주 반갑게 대해 주셨다.

정대현 동문이 1993년 사랑하던 첫 부인을 사별하고 만나신 분이 첫사랑 천경자 화백이 혼신을 기울인 대표작 '길레 언니' 를 담은 분이니 이 두 분은 늦게 만나셨지만 너무나도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글·사진 = 홍경삼(문리대 61) 북가주 동창회 이사장>

Always Accentuate Looking Up

by Dae Hyun Chung

We sometimes see subtractions when we are ill. They are not just subtractions. I am not me minus anything; I am me plus this experience. Optimism is the courage to look for at

Something and say; "However bad this is, it isn't bad infinitely." Accentuate the positive; and Stay on the bright side of life. Keep your sunny side up While embracing life's challenge! ***

“서울대학교 역사 자료를 찾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서정화)와 서울대(총장 성낙인)는 2015년 맞을 개학 120주년을 계기로 모교의 유구한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서울대 120년사' 편찬과 '서울대 역사연구기록관' 건립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기록물을 수집하고자 하오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문과 가족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대상 : 서울대학교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기록물
 - 1) 문서류 : 행정 업무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류, 수업 관련 강의노트 및 과제물, 자치단체 회의록 등
 - 2) 시청각물류 : 교내 교정 및 학내 행사 사진·영상자료, 각종 슬라이드, 강의 오디오 및 비디오 자료 등
 - 3) 간행물류 : 팸플릿, 리플릿, 소식지, 요람, 편람, 졸업앨범 등
 - 4) 박물관류 : 교표, 교기, 배지, 교복, 감

- 사패, 현판, 액자, 직인, 기념품, 상장, 임명장, 개인애장품, 성적표 등
- 5) 기타 대학 역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 (원품, 모사품, 앨범 포함)
2. 수집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3. 수집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
4. 문의처 :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전화 : 02-702-2233 팩스 : 02-703-0755 E-mail : webmaster@snu.ac.kr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본관 416호 담당 : 임성용 과장(010-9238-9759) 서울대학교 기록관(전화 : 02-880-8819) 팩스 : 02-884-7149 E-mail : archives@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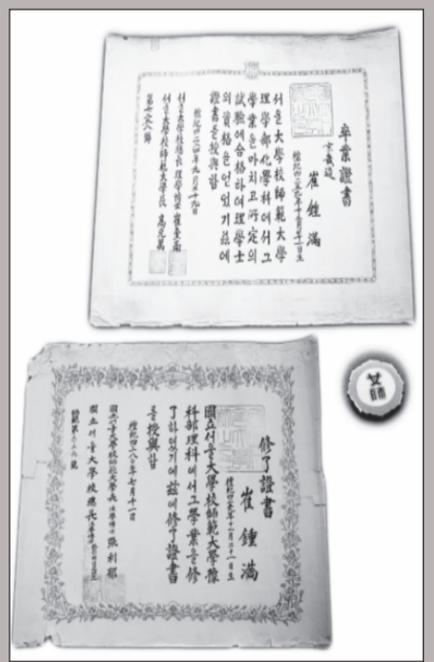
주소 :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기록관 220동 446호 담당 : 김봉은 전문위원(010-3032-5913)
5. 제공자혜택 : 역사연구기록관에 제공자 성명을 표시하는 등 혜택 제공.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서정화
서울대학교 총장 성낙인

모교 역사자료 수집에 동문 125명 기증

본 회와 모교 기록관이 진행하고 있는 모교 역사연구기록관 건립 자료 수집에 지난 6월 1~30일 6명의 동문과 교직원 이 추가로 접수했다. 이로써 지난 5월 31일 이전에 기증한 동문 119명(본보 421호 8면, 422호 4면, 423호·424호·425호 6면, 426호 8면, 427호 7면, 428호 8면, 429호 4면, 430호 6면, 431호 3면, 432호 7면, 433호 8면, 434호 9면, 435면 6면 게재)을 통합해 현재까지 총 125명의 동문이 소중한 자료를 보내왔다. 추가 기증자와 접수품은 다음과 같다.

▲張世憲(화학공학41 - 46)동문:교수 조무원 인사발령통지서 및 봉투(1946년)
▲申星雨(의학47 - 53)동문:강의 자료 등
▲姜忠元(전기공학59 - 65)동문:대학 교재 및 수업 노트 등 ▲羅吉雄(경제61 - 65)동문:상과대학 버클(1965년) ▲金榮範(사회74 - 81)동문:문리과대학 문집 형성 4권 ▲경영대학 崔海永행정실장:사범대학 수료증서(1947년) 및 졸업증서(1951년), 경성여자사범학교 배지 등 <사진 참조>





My Journey to America <3>최용완 논설위원

아메리칸 드림 50년<13>

최용완(공대 57) CA
미주 동창회보 논설위원
시인·수필가

그는 나를 진찰하고 가져온 기록을 검토한 다음, 내가 사무실에서 앉아 일하는 모습과 제도관에 있드려 일하는 자세, 그리고 차를 운전하는 자세를 보여주도록 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은 수백만년 전까지 네 발로 기어 다니던 체형인데 어느 뎡가부터 서서 걷기 시작하면서 쓰던 근육을 쓰지 않게 되었기에 두 발로 서서 걸어다니는 현대인의 열병 중 한 병은 목과 허리에 병을 갖고 산다”고 했다.

▶**나에게 천사** = 그의 제자들이 일하는 물리 치료소를 알려주어 찾아왔다. 뜨거운 타올로 목과 등을 덮어 근육이 누그러지도록 한 후 목에서 내려온 신경과 근육을 더듬어 굳어진 마디를 찾는다. 찾은 마디를 치료사의 엄지손가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눌러 풀었다.

누르는 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소리 지르려는 충동을 참고 견뎠다. 뒷목 근육을 보강하는 운동과 체조를 배워 반복했다. 사우나 안에서 만난 사람의 이야기대로 한 달 못돼 완치됐다. 그런 일이 있는 몇 달 후 허리 척추에 신경이 눌러 좌골 신경통이 왔다. 나는 닥터 존슨에게서 배운 원리로 아랫배 근육 운동으로 혼자 치료하고 곧 회복하였다.

신체장애로 역경에 처해 정구장 사우나에 앉아 있을 때 나를 찾아와 닥터 어네스트 존슨을 소개해준 백인 중년 남자는 누구였는지 모른다.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천사였다고 감사히 생각하며 나도 남에게 천사가 되기로 노력하며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가끔 근육 마사지를 받았다. 한국에 가면 친척이나 친구 댁에 머물기보다 호텔에 머물렀고 그때마다 나를 찾아와 마사지를 해주는 사촌 동생이 있었다.

▶**고숙** = 그는 고교 때 갑자기 장님이 되었다. 그의 아버지인 내 고숙에 관해 나에게 전설처럼 신비스럽게 기억되는 이야기가 있다.

1945년 해방 직후 고숙은 젊은

나이에 경찰훈련을 받았고 곧 경찰전투단에 배치됐다. 강력범을 단속하는 책임을 지고 일하는 동안 24살에 고모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다. 여수·순천 반란사건과 6.25전쟁 이후 고숙은 전투부대장에 승진하고 지리산 주위에 공산군 유격대 토벌을 지휘하는 직위까지 승진하였다.

인민군 잔류와 지방 공산당원으로 조직된 빨치산들은 낮에 숨어 있고 밤에 활동하기에 토벌전투

는 지리산 마을들의 주변에 옮겨 다니며 밤마다 계속되었다.

경찰 측은 전투장비를 잘 갖추었지만, 빨치산들은 장비가 부족해 전투마다 피해가 컸다. 고숙은 총경으로 진급하고 지리산 주위에 진주·남원·김해 등의 도시에 경찰서장의 직책으로 승진했지만, 항상 전투에 몰두했다.

▶**전설같은 이야기** = 내가 고등학교 때 여름방학 동안 고숙과 고모 그리고 사촌동생을 보러 들렀다. 며칠 지나는 동안 고숙의 부하 경사가 여러 가지 고숙의 전투 이야기를 하는 중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다.

“그날 밤 정 총경은 20여 명의 무장 유격대를 포위하고 직접 진두지휘해 5명을 생포하고 나머지 빨치산은 모두 사살했어요. 하지만 그 전투에서 정 총경이 10여 년 동안 자기 몸처럼 아끼고 형제처럼 사랑하던 부하가 빨치산의 총탄에 맞아 숨졌어요. 밤새 슬픔과 분노에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다음 날 그의 시체를 산에 묻고 그는 온종일 술을 마셨지요. 그리고 평소 벽에 걸어둔 일본도를 빼어들고 밤에 생포한 포로들을 한 명씩 밖으로 끌고 나와 다섯 명 모두 죽였어요. 피가 지리산 계곡을 붉게 물들었지요. 그리고 사흘 동안 혼자 방에서 먹지도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이야기를 듣고 괜히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직 열여덟 고등학생 나이에 우리 편과 남의 편의 남

←마야 문명은 마야족이 세운 것으로 300~900년까지 황금기였으나 10세기에 멸망한 이후 일부 마야 유민들이 유카탄 반도로 이동하여 신 마야 문명을 세웠다.

은 가족의 슬픔을 함께 느끼며 시대가 가져온 어쩔 수 없는 처절함에 혼자 울 수밖에 없었던 듯 싶다.

그 후 고모와 고숙은 두 딸을 출산하여 다섯 가족이 됐다. 김해 경찰서장이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태운 열차가 김해 부근을 지나는데 중술 먹은 한 농부가 철길을 머리에 베고 잠들었다가 기차에 치여 죽었다. 영문을 모르던 고숙은 해고 통지를 받고 그 날부터 실업자가 되었다.

고숙은 가족을 데리고 서울로 이사했고 여기 저기 직장을 찾아 일해왔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집에서 고모 얼굴만 보고 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숙은 혼자 사라졌다. 가족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고 많은 친척이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3년이 지났다. 그동안 고모는 속병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갑자기 눈이 멀어 장님이 되고 재산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친척 중 한 분이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 암자에서 삭발하고 사는 고숙을 보았다고 했다. 그리고는 다시 소식을 끊었다.

▶**안타까운 이산가족** = 해방 후

“방방곡곡을 남편과 아버지를 찾아다니며 3년이 지나 는 동안 고모는 속병을 앓다가 돌아가시고 아들은 갑자기 눈이 멀어 장님이 되고 재산은 모두 사라졌다”

격동기에 우리가 지냈던 뼈아픈 기억이 반세기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 둘 사라지고 있다. 지금도 가족들이 남과 북으로 헤어져 다시 보지 못하고 한평생 그리워 하며 살아온 부모·형제·자매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가슴 깊이 피맺힌 한을 품고 세상과 작별해간다.

풀리지 않는 운명을 체념하듯 역사는 느리게 게으름을 부린다. 지금도 북한 땅은 세상 밖을 보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가족 친구 만나보고 싶어도 찾아가지 못하는 자유 없는 나라, 무자비한 공개처형으로 동포를 공포 속에 떨게 하며 핵무기를 개발하여 계속해서 남한을 위협하는 세계 유일한 히틀러나 스탈린 식의 독재국가다.

세계의 자유인이 반세기가 지나도록 북한 동포를 자유의 세계로 구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낄 적마다 그날 밤 지리산 토벌대의 슬픈 눈물은 반세기가 지나도록 내 마음에서 마르지 않는다.

우리 가족이 잃어버린 숙부를 끝내 찾지 못하듯 남한과 북한은 영영 통일하지 못하고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세월이 갈수록 더욱 가난해지는 북한 땅과 세계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남한 땅 사이에 벽은 자꾸만 높아져 보인다.

그러다 그 벽이 무너지면 동독과 서독의 경우가 될까,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처럼 큰 혼란

이 될까. 살아 있는 동안 죽도록 기다린 가족을 만나고 눈물이 웃음으로 승화하는 날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과테말라의 새로운 계약** = 미국의 도시 네슈빌은 테네시주의 수도이고 그곳에서 1982년 이어 온 존슨 사무실의 컨설턴트로 계약을 맺고 중미 과테말라 국립병원 설계를 하게 되었다.

과테말라는 바다 수면에서 1,500미터 높이의 화산지대 북판에 위치해 있다. 도착하는 날 우리 일행이 대절된 비행기가 절벽 끝에서 시작되는 비행장 활주로로 내려갈 때 조종사는 무척 조심스러워 했다. 과테말라는 주위에 활화산으로 둘러싸여 매일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으며 1976년 대 지진으로 2만3천여 명의 희생자를 낸 도시다. 이곳의 아침 인사는 화산이야기로 하루가 시작됐다.

1960년부터 내전이 계속되어 우리는 군사정권의 보호를 받고 육군병원 설계를 시작하였다. 지진에 대한 심리적인 공포감 때문에 3층 이상의 건물은 지을 수 없고 1층은 장교와 고급 인사들의 병실, 2층은 장병과 공무원 병실, 3층은 일반 환자의 병실로 분배하였다. 우리가 데려간 통역은 멕시코인데 도착한 이틀 후 군부에서 의심받고 추방당했다.

통역 없이 회의를 중단하게 된 처지에 우리 일행 중 외국어 경험이 있는 나에게 통역 책임을 맡겼다. 나는 스페니시 단어 하

나도 전혀 모르는 데도 일본·중국·미국 등의 외국 생활 경험으로 손짓 발짓하며 눈치껏 이틀 동안 통역해냈다. 다음 날 새 통역이 도착하여 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평생 처음 경험한 지진** = 우리가 머문 카미노 로이알 호텔은 미국에서 설계한 16층 건물인데 우리는 14층에 머물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 우리 일행이 14층 회의실에서 다음 날 설계준비를 상의하고 있었다.

6명이 큰 테이블에 청사진을 펴 놓고 둘러 앉아 회의하는데 갑자기 지진이 세상을 뒤흔들었다. 땅 밑에서부터 저음 괴성이 크게 울려오며 우리는 약 2 피트 아래로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든 다음, 좌우로 2피트씩 기울어지며 이리저리 흔들렸다.

나는 평생 처음 경험이었기에 어쩔 줄 모르고 테이블을 두 손으로 붙들고 앉아 있는 동안 다섯 사람은 모두 충충대로 도망치고 없었다. 고층건물에서 지진을 만나면 충충대와 엘리베이터 주위가 덜 위험하다는 지식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주택건축은 흙벽돌을 쌓아 지었기에 지진이 나면 모두 무너지기 마련이므로 모두들 겁밖으로 대피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도시에 지진이 나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하지만 경제적으로 지진대비를 하지 못하는

지진지대에 세워지는 현대건축

은 두 가지 지진방지 설계를 한다. 하나는 건축물 기초와 상부 구조 사이에 흔들림이 전달되지 않는 조인트를 설치하거나 들쭉는 철골 구조를 바꾸니 짜듯 진동을 흡수하는 설계 방법이 있다. 우리가 머물렀던 고층건물은 유연성 있는 철골 구조였기에 그렇게 크게 흔들렸어도 건물에 피해도 없었고 우리는 모두 안전했다.

과테말라는 1960년부터 내전 중이었기에 우리나라 박정희 군사정부처럼 군정시대였다. 밤이면 가끔 총성이 들리고 매일 신문의 표지에는 케릴라 전투 소식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영자 신문에 한 기사가 실렸다. 아버지와 아들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논길을 달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에게 “모터사이클에서 내려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아들은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학교 교사였던 아버지는 괴한들에게 붙들려 돌아오지 못했다. 다음 날 가족이 찾은 아버지의 시체는 손발 뼈마디를 모두 꺾고 손톱 발톱을 모두 뽑아놓았다는 신문 기사를 보았다. 우리가 겪은 6.25 전쟁보다 더 무식하고 잔인함을 느꼈다.

우리 일행 중 처음 겪은 지진과 사회 환경이 무서워서 일을 그만 두고 떠나는 대원도 있었다. 나는 집에 아내와 유치원 다니는 딸이 있었지만, 멀리 외국에 출장 와서 일하며 배우고 싶은 일들이 많아 이러한 환경에도 별로 두려움이 없었다.

▶**마야 유적 탐방** = 설계를 마치고 귀국하기 전 시간을 내어 과테말라 역사의 마야유적지를 탐방하기 시작하였다. 약 6개월 동안에 국립병원의 기본설계를 마치고 본 설계는 멕시코 건축회사에 넘겨주었다. 나는 2주 동안 휴가를 내어 유카탄 반도 일대의 마야문명 연구에 몰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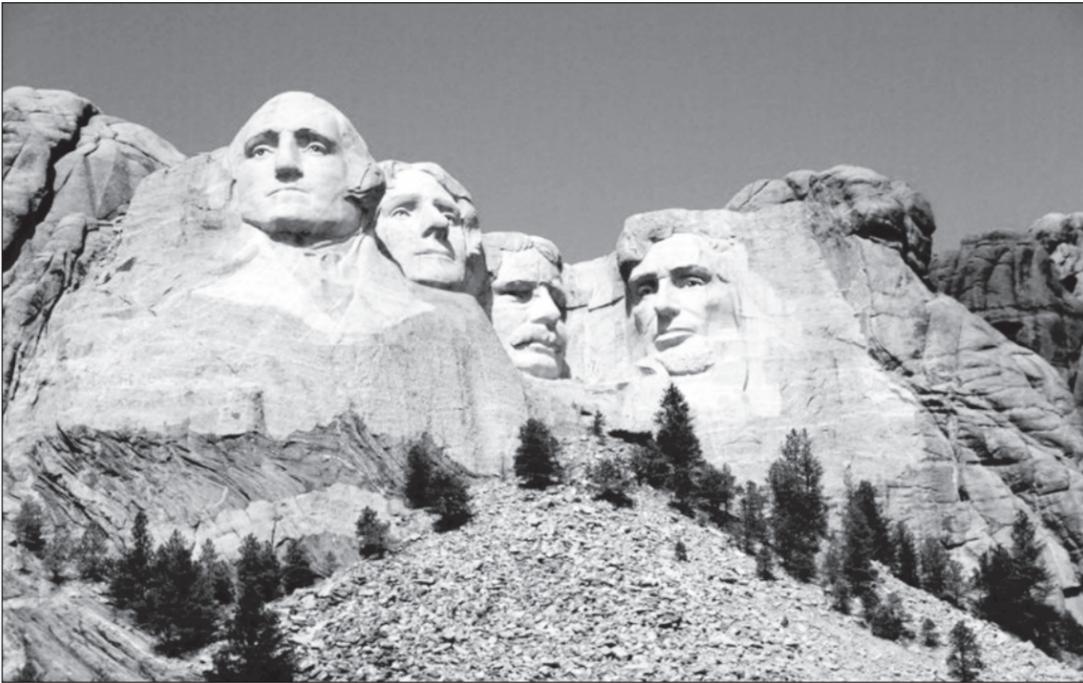
마야문자들이 중국 한자처럼 하나의 단어로써 의미를 보이고 네모 안에 들어 있는 모양이며 좌우로 혹은 상하로 읽는 형식을 보고 기원 전 한나라 때 정립된 한자 이전의 모태였을 가능성을 상상하였다. 상나라 때의 갑골문자와는 다르지만, 주나라 때 주역에서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점과 직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짐에 한자와 마야문자의 공통성을 보았다.

그때부터 지난 20여 년 동안 그 일대의 국립박물관과 중미 유카탄 반도 일대에 올멕, 테오티와칸, 아스텍, 마야 등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많은 책과 학회 자료와 학회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동아시아 문화와 미 대륙의 원주민 문화의 공통성을 찾아보았다.

마야 석조 건축물의 아치는 고구려 고분에서 보는 층단식 지붕(corbel arch)과 같은 양식이다. 마야 석탑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듯한 높은 층계는 중국의 사찰 입구, 그리고 일본 신도사찰에 남아 있는 고대 동아시아의 종교 건축양식과 유사하다.

우리나라 불국사의 층계와 다보탑에 축소된 층계도 같은 의미를 보여준다. 유카탄 반도의 엘 타진 석탑은 규모와 모양이 백제 미륵사지 석탑을 연상하게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토마스 제퍼슨은 미 헌법의 기초를 이루고 워싱턴 DC를 연방정부 수도로, 루이지애나주를 프랑스로부터 사들이는 등 큰 업적을 남겼다

<달려 속 주인공의 이야기>

2달러 지폐의 토마스 제퍼슨

이영목(공대 59)DC
미주 동창회 상임고문

‘미국 독립 선언서의 기초자이며/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의 제안자/ 그리고 버지니아 대학교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 여기 잡들다.’ 구력 1743년 4월2일생, 1826년 7월 4일 졸.

토마스 제퍼슨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이다.

▶제3대 대통령 = 토마스 제퍼슨이 자신의 묘비에 미국 3대 대통령으로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써내려가 기보다 버지니아의 법 제정을, 또 버지니아 대학교(UVA) 설립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것을 쓰도록 한 그의 인생관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한다. 어느 학자의 글을 몇 문장 따 왔다.

“미국인들은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가’ 보다는 오히려 ‘어디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실제로 건국 초기 헌법제정 과정 속에서도 심각한 논쟁에 놓여 있던 문제였고 결국 타협을 통해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분할하는 연방제가 탄생된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미국 정부의 구성에 대한 이념의 대결은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연방정부 옹호론(연방주의자당)과 반 연방정부를 선호하는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민주공화당 초대 총재)으로 아직까지도 익히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다.

▶존 애덤스와 라이벌 =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초대 국무장관을 지낸 남부의 토마스 제퍼슨은 초대 부통령을 지낸 북부의 존 애덤스와 조지 워싱턴을 이어 2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 하였다.

그러나 토마스 제퍼슨은 선거에서 존 애덤스에게 패했다. 하지만 당시 선거법에는 차점자가 부통령이 되도록 되어 있어 그는 존 애덤스 밑에서 사사건건 대립하며 다음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인내해야 했다.

그런데 이 두 대통령은 신기하게도 1826년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 같은 날 죽었다. 토마스 제퍼슨이 83세, 존 애덤스는 91세였다. 사실은 토마스 제퍼슨이 사망한지 몇 시간 후 존 애덤스가 세상을 떠났는데 토마스 제퍼슨의 사망을 모르던 그가 한 말이 “토마스 제퍼슨은 아직 살아 있

↑ Mount Rushmore National Memorial.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등 4명의 초상이 거대한 바위에 조각돼 있다.

다섯째, 1825년 오늘의 버지니아 주립 대학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그의 생활 철학은? 프랑스 대사 시절 귀족들과 호화스러운 문화생활을 한 듯 했으나 1789년 프랑스 혁명이 나자 주저없이 시민군을 지지했다. 1806년 비록 노예해방이 아닌 반쪽 정도지만 노예무역 금지법

“업적이 하도 많아 모두 쓰기도 어렵지만 친구 아내, 미술가 유부녀, 20년 연하의 흑인 여성 등과 염문으로 자식도 낳아 정적들로부터 술한 입방아에도 올랐다”

는데...” 었다 하니 두 사람이 죽기 전 화해했다고 전해지지만 진심은 아닌 모양인 것 같다.

▶워싱턴 DC의 필수 방문지 = 워싱턴 DC에는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로 여겨지는 2명의 대통령의 기념관이 유명하다. 하나가 링컨 기념관이고 또 하나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보았듯이 마치 ‘각 주마다 다른 정책으로 발생하는 비극을 내가 죽어서라도 지켜 보겠다’ 고 하는 듯이 동상의 눈동자가 의사당을 쳐다 보고 있고, 반연방주의의 제퍼슨은 ‘대통령이 각 주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횡을 저지르는가 내가 감시하겠다’ 고 하는 양 눈동자는 백악관을 향하고 있다. 아주 정부와 의회의 묘한 견제의 균형을 상징하는 듯하다.

▶생존시 업적 = 토마스 제퍼슨의 생존시 업적이 하도 많아서 그냥 한 줄씩 써도 몇 페이지가 될 듯 하다. 나름대로 우선 큰 것만 적어본다.

첫째, 독립선언서(1776.7.4)의 작성자중 가장 큰 일을 했다.

둘째, 1779-1781년 버지니아 주지사 때 버지니아에서 제정된 법이 미국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셋째, 1789-1793년 초대 국무장관 시절 오늘 날처럼 워싱턴 DC를 연방정부 수도로 정했다.

넷째, 1801-1809년 대통령 시절 루이지아나 주를 프랑스로부터 구입 하였다.

을 제정하였다. 오늘 날의 정서에는 틀릴지 모르겠으나 그는 총기사용 옹호론자였다(총기 소지를 금지하는 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에피소드 하나 = 에피소드 한마디 소개한다.

케네디 대통령이 4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백악관 만찬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곳에서 혼자 식사를 한 것을 제외한다면, 역대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 중 재능과 지식의 총집합체에서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제퍼슨은 49명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지식을 모두 모은 것만큼 법률가·건축가·과학자·고고학자·고생물학자·작가·발명가·외교관, 그리고 음악가란 말이다. 일당백 쯤 된다는 그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더불어 2명의 천재이자 그 시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라는 말이다.

▶제퍼슨의 기념관과 벚꽃 = 쯤 옛박자 이야기를 해야겠다.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앞이 바로 그 유명한 Tidel Basin으로 봄이면 벚꽃으로 워싱턴의 명물이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과 바로 앞에 있는 Tidel Basin. 가족과 연인들의 물놀이는 물론 봄이면 벚꽃이 만발해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고 있다.

되고 있다.

이 Tidel Basin은 본래 1880년 공병대장 Hains가 만조 때 포토맥 강의 물을 끌어들이어 저장해 Cumberland까지 연결된 포토맥 운하(본래는 오하이오까지 연결하려고 했지만)의 수량 조절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여기에서는 107에이커 270만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다.

남북 전쟁 이후 그가 생전에 그토록 싫어했지만 시대의 대세는 권력이 연방정부로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었다.

이 호수 건너편 왼쪽에는 1920년 대 대 공황을 이겨낸, 그래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크게 신장시킨 프랭클린 루즈벨트 기념관이 있는데 이곳은 기념관이라기보다 조각공원이라 해야 할 만큼 그의 시대상, 그의 역할을 담고 있는 조각들이 야외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어쩌면 그리 답감지 않은 흑인의 기념 공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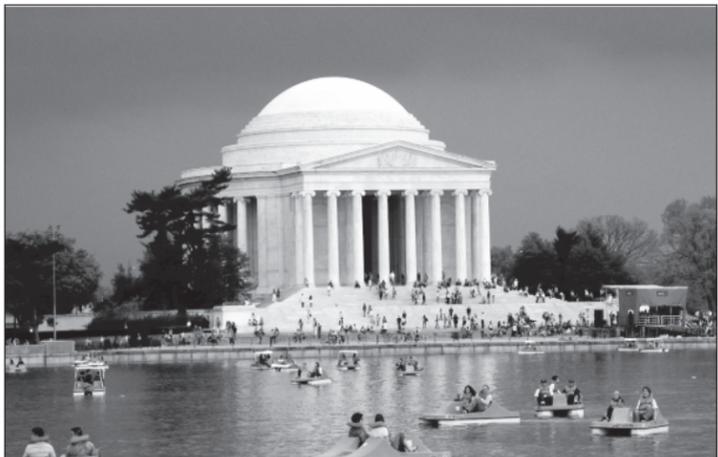
누구냐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다. 그의 조각상의 눈빛이 정면의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을 향하고 있다. 흑인 여상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의 친자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산상태로 서거 = 또 하나는, 그는 아주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으나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파산 상태였다. 그래서 지금 국보로 남아 있는 몬티첼로의 집도 모토로 남에게 넘어갔다.

보든 면에서 천재였다는 그도 재산복을 없었나 보다. 아니, 그리고 어쩌면 당시는 대통령의 소위 품위 유지비라고 할까. 인기 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하는 방문객 마중, 연회 마련 등에 자비로 꽤나 많은 돈을 써야 했다. 그것도 파산의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는 많은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로 수많은 스캔들을 낳았다. 친구의 아내, 프랑스 대사 시절 미술가인 유부녀, 그리고 급기야 셀리 허밍스라는 20년이나 젊은 흑인 여자와 사이에 자식을 낳아 정적들로부터 남북전쟁의 노예해방 이슈 때까지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그도 인생에서 돈과 여자 문제에서만큼은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역사 칼럼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下>

송병문(공대 62) NJ
Emblem Health, Sr. Systems
전 Engineer

은에서 망명한 기자(箕子)의 후손인 기(箕)후가 수유족의 우두머리로 5,000의 군사를 이끌고 변조선 제68세 수한(水韓)을 도와 연(燕)나라와의 싸움에서 크게 공을 세웠다. 그리고 수한을 이어 스스로 제69세 변조선 왕이 되었다(BC323).

▶**기자 조선** = '기자(箕子)조선'이라 불리는 것은 변조선 왕인 기(箕)후가 기자(箕子)의 후손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이 기자(箕子)조선은 6세를 이어가다 변조선 제74세의 기준(箕準)때 위만에게 멸망 당했다(BC194).

변한과 변조선의 68세까지를 포함시켜 기자(箕子)조선이라고 말한다면 옳지 않다. 다시 변조선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제1세 치우남부터 제29세 소정까지는 변한왕이고, 제30세 서우여부터 제68세 수한까지가 기자(奇子)조선이며, 제69세 기(箕)후부터 마지막 제74세 기준(箕準)까지가 기자(箕子)조선이다.

제31세 단군 등을 때 변조선 한수 사람 왕문(王文)이 이두법을 만들어 올리니(BC865) 단군 등을 께서 기뻐하시고 삼조선에 명하여 시행하게 하셨다. 이 때가 변조선 제44세 이벌이 즉위한 다음 해다.

▶**이두는 실총 전에 쓰여** = 이두의 창제자로 신라 말기의 대학자인 실총에 의한 것으로 보나 그는 창제가 아니라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북한산에 세운 진흥왕의 순수비(AD568)와 진평왕 때의 향가 <서동요>, <혜성가>, 선덕여왕 때의 <풍요>에 이두가 나온다. 이는 실총 이전에 이미 이두문이 쓰였다는 증거다. 또한 왕문(王文)은 처음 전(篆)이 번거롭다 하여 획을 줄이고 부예(符隸)를 썼다. 부예(符隸)는 예서체로서 쉽게 만든 글자다.

진(秦)나라 때 정막(程邈)이 조선에 왔다가 왕문의 예법(隸法)을 얻었고 조금 변화시켜 팔분(八分)을 만들고 진(晉)나라 때 왕차중(王次仲)이 해서를 만들었다.

왕차중은 왕문의 먼 후손이다. 지금 글자의 근원을 연구해 보면 모두 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의 한자 또한 그 지류 중의 하나로 이어졌음이 분명하다.

제35세 단군 사벌은 언파불합(彦波弗哈) 장군을 일본 큐슈로 보내 응습(熊襲-구마소)의 난을 평정하였고(BC723), 제36세 단군 매륵은 협야후 직위를 가진 배반명을 보내 일본 삼도(三島)를 평정하였다(BC667).

▶**단군조선** = <일본서기>에 의하면 일본 초대왕 신무왕(神武王)의 아버지 이름은 <히고나미 사다게우가야후기아에즈노미고도>(언파럼무 로자초위불합준-彦波爾武 로자草葦不合尊)이며 그는 그의 이모 <다마요리히메(玉依姬)>를 아내로 맞아 네 아들을

낳았는데 그 넷째 아들 <가무야 마도이와레히고 (神日本磐餘彦)>가 신무왕이라고 하였다.

신무왕은 BC 667년에 즉위했다. 즉위한 연대나 비슷한 이름으로 보아 언파불합이 일본 초대왕 신무왕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다. 단군조선은 단군 왕검이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이래 제47세 단군 고열가까지 2095년 동안 지속되었다.

해모수가 단군 고열가 때 난을 일으켜 북부여를 세웠다(BC 238). 해모수 45년에 연나라 노관이 한(漢)나라를 배반하고 흉노로 망명하자 그의 무리 위만은 우리에게 망명을 원했으나 해모수 임금이 병 중이라 결정을 못하고 있는 동안 변조선왕 기준이 잘못하여 위만으로 하여금 일부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후 북부여 제2세 단군 모수리 때 기준은 위만과 싸워 패하여 변조선 마지막 왕이 되었다. 이리하여 위만은 변조선 땅에 위만조선을 세웠다.

북부여 제4세 단군 고우루 13년에 한나라 무제(武帝) 유철(劉徹)이 평나(平那)에 쳐들어와 위만의 손자 우거를 멸하고(BC 108) 이 땅에 한사군(漢四郡-진번, 임둔, 낙랑, 현도)을 설치하려 하자 북부여의 고두막한(高豆莫汗)이 의병을 일으켜 한나라에 대항하였다. 이 때문에 북부여의 백성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리하여 단군 고우루가 죽자 임금을 이어받을 고우루의 아우 해부루(解夫妻)를 쫓아내고 제5세 단군이 되었다.

이 북부여는 제6세 단군 고무서로 끝나고 해부루는 가섭원으로 쫓겨가 가섭원부여(동부여(東夫餘)라고도 함)를 세웠다. 가섭원은 분릉(盆陵)이라고도 하며 길림성 통화 일대의 넓은 벌판이다. 동부여는 제2세 금와를 거쳐 제3세 대소 때 고구려 제3세 대무신왕과 싸우다 전사하여 여기서 멸망했다.

▶**고구려** = 고구려 시조 고주몽(高朱夢)은 북부여 제5세 고두막 30년(임인년 5월 5일), 한나라 왕 불릉(弗陵-한나라 소(昭)왕) 원봉(元鳳) 2년, 분릉(盆陵)에서 태어났다(BC 58). 아버지는 불리지(弗離支-고모수라고도 함)이고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딸 유화(柳花)다.

불리지는 고진의 손자이며 고진은 고리군왕(高離郡王)으로 해모수의 둘째 아들이다. 부여 사람들이 고주몽이 부여에 이롭지 않다고 해서 죽이려 하자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부(挾父)와 도망하여 졸본(卒本)에 이르렀다. 이때 북부여 제6세 단군 고무서가 아들이 없어 주몽이 사위가 되어 대통을 잇게 되었고 호부상인 연타발(延陀勃)의 도움으로 고구려를 세우고(BC37) 연호를 다물(多勿)이라 하였다.

우리의 선조들은 BC 108년 변조선이 망할 때까지 몇 천년간 대륙을 호령하였다. 한(漢)족이 중국 대륙을 통일해서 왕국을 유지한 것은 과거 9,000년 중에서 불과 약 1,500년 밖에 되지 않는다.

생활수상(隨想)

새터민과 동지틀기

강신용(사대 73) CA
CPA · 수필가

'새터민'은 낯선 느낌의 사람들이다. 새로운 터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다. 미국 건국의 조상들도 아메리카의 새터민이었다. 우리들도 한 때는 새터민으로 자리 잡고 살기까지 많은 고통 속에 여기에 도착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새터민'이라고 부른다.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은 우리를 새터민처럼 낯설게 보고 있다.

6.25 한국전쟁의 총소리가 멈추고 썬의 전쟁은 더욱 격렬해졌다. 정주영 회장이 소 판돈을 가지고 서울로 가출한 성공사례는 현대판 전설이다.

전쟁을 겪으면서 세상이 바뀌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새털 같은 청운의 꿈을 안고 시골 촌구석에서 서울로 가출하던 젊은 이는 한 시대의 로망이기도 했다.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사하던 생존의 시절이 있었다.

지금 우리의 고국 한국에서는 젊은 귀농이 유행이란다. 휘황찬란한 도회지의 생활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지쳐버린 젊은 장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 건강한 땅 속에서 행복을 찾는다고 한다.

해 뜨면 아침을 열고 해지면 저녁을 닫는 태양시계를 보면서 일상을 살아간다. 칠따라 씨 뿌리고, 김 매고, 햇볕을 벗 삼아 일하는 새내기 농부가 되는 것이다. 익숙하지는 않아도 슬로우 라이프를 배우며 삶의 터전을 닦는 것이다.

우리의 미국생활도 새터민이나 진배 없다. 이민 와서 미국 시민으로 행세한 들 그들은 길모양만 보고 아시아인이라고 부른다. 산전수전 다 겪고 은근한 냉대의 눈빛은 슬그머니 피하고 거친 말은 귀 닫고 듣는다. 고국을 떠난 십수년에 미국의 새터민으로 겨우 자리는 잡았다.

2세대가 지나 조국의 한국인들은 한국 말하는 외국인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마치 북한 사람이나 미국 동포들이나 똑같이 외국인으로 대하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에는 약 700만 명의 해외 동포가 있다고 한다. 각자의 나라에서 영주권을 받고 자식의 텃줄을 묻으며 조상의 산소를 쓰면서 잘 적응하고 있다. 물질고 말 설은 객지생활은 청년 정주영 시절이나 우리들의 이민 초기나 한 치의 차이도 없다.

우리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막노동 밖에 없었다. 세계 곳곳에서 이민 100년 동안 외롭고 고통스런 새터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신화를 만들고 있다.



주(周) 280년, 진(秦) 15년, 전한(前漢) 200년, 후한(後漢) 220년, 수(隨) 30년, 당(唐) 290년, 북남송(北南宋) 300년, 명(明) 270년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는 다 우리 동이족이나 동이족에서 갈려나간 종족들에 의해 지배됐다.

상고시대의 우·하·은, 춘추전국(春秋戰國)시대, 그리고 오호16국(五胡十六國)시대, 남북조(南北朝)시대, 오대십국(五代十國)시대, 요(遼)·금(金)·원(元)·청(淸)이다.

▶**말살된 우리 상고사 사적** = 한족(漢族)은 중국대륙에서 80-90%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중국대륙 남쪽에 살던 한족은 차츰 동북쪽으로 이동하며 수천년 동안 조금씩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타민족을 동화시키고 정복하였다. 현대와 같이 신무기가 없었던 당시 중과부적(衆寡不敵)이었을 것이다.

한족은 고조선·부여·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침범할 때마다 사서를 불지르고 탈취하여 우리의 역사는 상실되었고 삼국시대, 고려, 이조 2,000년간 점차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우리의 고유한 얼과 주체의식은 잃어가고 사고방식은 변하여 습관화 되었고 자각할 여력까지 잃어버리어 당연한 것처럼 살아 왔다.

사막에는 회전초라는 잡초가 자란다. 회전초는 뿌리를 포기하고 이리저리 공처럼 굴러다니는 잡초덩어리다. 사막의 열기 속에 돌고 돌다가 물기를 만나면 뿌리를 내리는 생명력이 강한 보잘 것 없는 잡초덩어리다.

멕시코 촌구석에도 아프리카의 오지에도 잘 살아 보자고 돌고 돌아 정착하는 것이 한민족이라고 한다. 뿌리째 뽑혀서 몸통으로 굴러서 그렇게도 물설고 낯설은 이국생활은 사막 속의 회전초와 너무나 닮은꼴이다.

지난 불경기에 동지가 위태롭다. 약육강식의 터전에서 겨우 숨 돌릴 만한 동지가 바람에 흔들린다. 방앗간 옆 참새동네를 보는 독수리의 눈길이 매섭다.

혹시 매 잡는 여우라고 자만하고 착각했는지도 모른다. 겨우 만든 동지다. 깨지고 말면 새로 지을 청춘도 야망도 다 지치고 시들어버렸다. 허리띠는 졸라매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동지를 둘러본다.

방랑자의 가슴이 따뜻해 온다. 손길은 거칠어도 일터는 아름답다. 회전초 마냥 돌고 돌아 물기를 만났으니 다시 뿌리를 내려야겠다. 크게 눈뜨고 저 멀리 바라다본다. 따뜻한 손 기운으로 동지를 감싼다. ***

를 말살하려던 시대였다. 해방 후 우리가 배운 국사는 어떠한가. 일본 식민지 시대의 영향을 받아 쓰여진 역사가 아닌가.

▶**후손에 남겨줄 유산** = 그동안 우리는 6.25, 4.19, 5.16, 거의 매일 데모, 온갖 수단으로 우리의 역사를 찾아 겨를이 없었다면 구실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어야 하는가. 자랑스럽고 참다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3대 경전이 함유한 고유한 얼과 정신문화를 심어 주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 또한 국사는 필수 과목이어야 하고 상고사와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는 꼭 국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가들에게 올바른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주 : 중국이 말하는 삼황오제는 삼황으로 태호복희, 염제신농, 황제현원이며 오제는 현원의 아들 소호금천, 손자 전욱고양, 증손자 계곡고신, 고손자 계요도당(요임금), 계순유우(순임금)이다. 이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 동이족이다. 그러나 우리의 삼황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환인천제, 환웅천황, 치우천황, 이 세 분이여야 할 것이다.> ***

고국 정치사회

문창극(문리대 정치 68)동문이 국무총리 후보로 내정됐다...

일보와는 극도의 경쟁 대립 관계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까지...

“오도된 여론으로 국가 중대사 결정돼...”



선진화 시민운동 상임대표인 서경석 목사(사진)는 최근 문창극 총리 후보자 사퇴에 대해...

서 목사는 조선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문 후보가 청문회까지 가서 진실을 밝히고 국민들이...

서 목사는 새누리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새누리당 지도부가 여론에 의해 성급하게 움직였다...

서 목사는 또 “새누리당 지도부가 문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주 성급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다...

그는 “KBS가 왜곡한 데 대해 절대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 KBS는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절망을 안겨줬다...”

더 심각하게 왜곡했다. 우리들로서는 이제 KBS에 대한 규탄운동에 총력을 기할 것이다...

“문 후보가 청문회까지 가서 진실을 밝혀 얼마나 여론이 오도됐는지 밝히고 국민들이 청문회를 보고나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주 성급하고 잘못된 행동이었다. 진실에 입각하지 않고 오도된 여론에 의해 좌지우지된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1시간 10분짜리 문 후보의 교회 강연 동영상을 다 봤다. 그걸 본 사람이면 누구든 문 후보가 친일·반민족적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 후보자 강연 내용 중 특정 부분만 택해 왜곡했다. KBS의 잘못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 KBS는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절망을 안겨주었다...”

“왜 자진사퇴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가 사퇴한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문 후보 퇴장과 민주주의 시계



배인준(문리대 70) 동아일보 주필

만약 문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였고 친일 프레임에 민심이 바뀌었다면 국민의 대선 선택이 왜곡됐을 수도...

한 번 상상해보자. 문창극 전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문 후보에게 적대적인 박지원 씨가 이 보도를 근거로 “식민사관을 가진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교육하겠다는 건가”라고 공세를 편다...

문 후보 발언의 전체 내용과 진의(眞意)를 접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식민사관을 가진 대통령=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낙인과 등식에 심한 충격을 받는다...

선거가 끝난 뒤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서양사학자)는 TV에 출연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교회 강연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동아일보 사설(6월 25일) 공영방송 KBS

문창극 보도 ‘언론본분 망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7월 1일 KBS 1TV ‘뉴스9’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보도의 공정성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KBS는 “문창극 후보자가 교회 강연에서 일체의 식민 지배와 이 어진 남북 분단이 하나님 뜻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온누리교회의 2011년 강연 영상물 중 일부를 발췌해 보도했다...

방송이 나가자 ‘나는 꿈수다’의 멤버 김용민씨가 “간밤에 ‘문창극’ 씨 반민족 반역사적 망언이 드러나면서 인터넷 여론이 들끓는다”고 트위터에 올리는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부터 문 전 후보자가 친일 반민족적이라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MBC 방송을

들이 이상할 정도다”라고... 문 후보의 할아버지가 항일투쟁 중 전사한 사실도 밝혀진다...

문 전 후보에게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그가 총리 후보자였으니 망정이지 진짜 대통령 후보였고 그 맹목적 친일과 프레임에 걸려 낙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현실로 돌아오자.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는 얼마 전 형식상 자진사퇴를 했다. 그 사퇴의 변에서 이런 말을 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입니다. 발언 몇 구절을 따내 그것만 보도하면 그것은 문자적인 사실 보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훼손시킨다면 그것은 진실보도가 아닙니다...”

언론이 국민을 오도하면 민주주의가 위협해진다는 경고는 적확하다. 국민의 투표 및 여론형성은 진실에 입각해 이루어져야만 민주주의의 표출이 된다...

문 전 후보는 이런 말도 했다. “법을 만들고 법치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곳은 국회입니다. 이번 저의 일만 해도 대통령께서 총리 후보를 임명했으면 국회는 법 절차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오도된 여론이 국가를 흔들 때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습니다.”

법을 먼저 어겨 국민을 오도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에 나는 공감한다.

문 전 후보가 사퇴한 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 이런 말을 국민에게 전했다.

“국회 인사 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 청문회까지 가지 못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는 부디 청문회에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에 대해서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 개인과 가족이 불명예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기록해 둘 일이 있다. 문 전 후보 인사청문회는 박 대통령이 청문 요청안에서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언론과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여야 정당·정치인들이 문 전 후보를 총리직에서는 버렸지만, 그의 말에 담긴 민주주의를 위한 경고는 살려냈으면 한다...

기원전 90년 사마천(司馬遷)이 완성한 중국 ‘사기(史記)’는 2100년의 긴 세월에도 잊혀지지 않는 커녕 인간과 정치와 국가흥망을 통찰하는 불멸의 지혜로 빛나고 있다...

나라가 흥할 조짐인가, 망할 조짐인가. 참으로 어두운 생각이 든다. *** injoon@donga.com

KBS 정기 시청자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청자위원이 ‘문창극 조작음해 보도’를 문제 삼았다.

류근일(조선일보 전 주필)·이종덕씨 등 각계 인사 400여 명은 22일 KBS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KBS가 교회 강연의 일부만 인용해 문창극 씨를 친일, 반민족으로 몰아간 것은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너무나 중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KBS는 지난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방송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한국언론학회로부터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성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현재는 노조 파업의 여파로 길환영 사장이 물러나 사장이 공백 상태다. KBS 이사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사명감을 지닌 새 사장을 조속히 선임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해야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와 함께 KBS의 적폐를 바로 잡는 개혁이 요구된다.***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703) 462-9083

CA 남가주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19401 Vermont Ave. Suite C-201
Torrance, CA 90502
kangdon@att.net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300, L.A., CA 90010

신대식 공인회계사
* 신대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Kim & Kang CPA's
(김경우 강정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A, CA 90010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530-3630
12912B 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STANLEY Cha, CPA
차기민(공대 85)
213-739-5700, 714-525-1821
schacpa@gmail.com
3440 Wilshire Blvd. #807 LA CA 90010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Jun Chang CPA
장 준(인문대 85)
818-772-2811 213-481-0100
junchangcpa@hotmail.com
19520 Nordhoff St. #16 Northridge, CA 91324
1100 Wilshire Blvd. Suite 2904 LA, CA 90017

재경/보험

AXA Advisor
Paramount Planning Group
조임현(간호대 72)
213-487-3253
3435 Wilshire Blvd. Ste.2500 LA CA 90010
im.cho@axa-advisors.com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엔지니어링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건축/컨설팅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의료/약국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식품/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치과병원

황준오 D.D.S.
황준오(치대 73)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ddsshpa@yahoo.com

재경/ 컨설턴트

Michael Kim, CEO
김기형(상대 75)
3435 Wilshire Blvd. #2820 LA. CA 90010
213-505-8102(O) 626-722-7836
e-mail Michaelk@UnitedProjects.US
www.UnitedProjects.US

서비스 /자동차/재경/보험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비영리법인 애양 극지에너지

International Society of Off 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 (공대 56)
(650)254-1871. 495 N.Whisman Rd.
Ste.300 Mt.View CA 94043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9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변호사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부동산/교외

Teamspirit Investment & Dev.
이종모(간호대 69)
714-396-0624 949-251-0404
30 Corporate Park, Ste.207, Irvine
CA 92606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리테일러/보석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627-0547
650 S. Hill St. #E 8 LA, CA 90014

클리닉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농대 80)
909-882-3800(B) 714-323-8612(C)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우주개발/기술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공대 64)
714-952-2240
10874 Hope St.P.O Box6034 Cypress CA 90630
jc@taycoeng.com www.taycoeng.com

NY-NJ 뉴욕/뉴저지

공인회계사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917)647-0606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changsookimcpa@hotmail.com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리테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건축/부동산

Evergreen Realty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김주현 건축사무소
김주현(공대 93)
347-213-3516
150 S. Middle Neck Rd. #10
Great Neck NY 11021

북가주

두리 하나 결혼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터 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8)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엔지니어링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Offshore & Polar Engineers
정진수(공대 56) 650-254-1871
P.O Box 189,Cupertino, CA 95015-0189
www.isope.org:jschung@isope.org

조지아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공대 76)
404-579-8282
4132 Buford Hwy Duluth GA 30096

PA 필라델피아

동물병원/건축 설계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목(수의대 68)
215-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Timothy Haah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100 Blue Bell PA 19422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공대 61)
(267) 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X 텍사스

산업/건축

C&C Industries INC.
진기주(상대 60)
713-466-1644
10350 Clay Rd., Ste.250 Houston TX 77041
kc@candcvalve.com www.candcvalve.com

MD,VA 워싱턴DC

치과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 220-2828 (301)926-9692
6201 Greenbelt Rd.SieU-10. College Park MD 20740
8931shady Grove Ct.Gaithersburg MD20877

부동산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모터/기계/전기

Drivetech, Inc
엄달용(공대 69)
703-327-2797
Carrington Drive, Chantilly, VA 20152

재경/보험/컨설팅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203 Rockville MD 20850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자연대 82)
703-663-8400(0) 703-785-8467(C)
1952 Gallows rd.Ste 214 Vienna, VA 22182

NE 네바다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89113

OR 오레곤

Flonomix Inc.
박희진(농대 78)
612-418-5393
P.O.7416 Beaverton OR.97007

동창회비·광고 및 업소록비·기타 후원 동문(2014.7.1 ~ 2014.7.30)

- ▶Alabama
유성무(상대 66)
- ▶Arizona
김영철(공대 55)
지영환(의대 59)
- ▶California
강재호(상대 57)
강정훈(미대 56)
강중경(공대 48)
강천호(사대 58)
계지영(문리 60)
고영순(음대 59)
고재철(공대 57)
권영덕(공대 54)
권오형(사대 61)
김건진(문리 62)
김계운(의대 57)
김광은(음대 56)
김기태(의대 54)
김동산(법대 59)
김석홍(법대 59)
김영덕(법대 58)
김영희(사대 56)
김 정(치대 59)
김정희(음대 56)
김혜숙(약대 77)
남장우(사대 56)
문인일(공대 51)
박경호(사대 53)
박부강(사대 54)
박인창(농대 65)
박찬호(자연 81)
박취서(약대 60)
배동원(공대 65)
방정자(간호 61)
배병욱(음대 58)

- 성낙호(치대 63)
신광재(공대 73)
신대식(상대 60)
신우식(치대 59)
심기린(상대 57)
심상은(상대 54)
심진숙(간호 68)
안병일(의대 63)
양은혁(상대 56)
양창효(상대 54)
염동해(농대 74)
유희자(음대 68)
이정근(사대 60)
이현숙(사대 62)
임동호(약대 55)
임문빈(상대 58)
정동구(공대 57)
정동주(가정 72)
정재훈(공대 64)
제영혜(가정 71)
조동준(의대 57)
조정시(공대 60)
주정래(상대 65)
지종근(농대 56)
차재철(의대 62)
최영호(간호 69)
탁혜숙(음대 67)
홍춘만(문리 58)
황동하(의대 65)
황준오(치대 70)
- ▶Florida
전영자(미대 58)
황현상(의대 55)
홍순호(수의 74)
- ▶Georgia
김순옥(의대 54)
김영서(상대 54)
방창모(문리 49)
오경호(수의 60)
이영진(공대 76)
임수암(공대 62)
임한웅(공대 60)
정광호(공대 60)
정일화(상대 55)
최재학(사대 56)
- ▶Hawaii
김승태(의대 57)
김용수(농대 75)
장광수(사대 50)
- ▶Heartland
김경숙(가정 70)
김명자(문리 62)
이상강(의대 70)

- ▶Michigan
고광국(공대 54)
김국화(공대 56)
남성희(의대 58)
서영일(의대 62)
하계현(공대 64)
- ▶Minnesota
김영남(사대 53)
변우진(인문 81)
정승훈(공대 60)
최희수(문리 67)
홍 건(의대 64)
- ▶New England
김명자(문리 62)
노인규(의대 52)
- ▶NY & NJ
계동휘(치대 67)
김봉린() 54)
김석식(의대 58)
김영봉(의대 83)
김용술(상대 56)
김정순(법대 53)
김정희(간호 69)
김태양(사대 61)
배명애(간호 47)
박순영(법대 56)
박중섭(사대 74)
배상규(약대 61)
백낙환(약대 56)
서병선(음대 65)
선종철(의대 57)
성기로(약대 59)
손경택(농대 57)
송병문(공대 62)
심영석(공대 76)
양명자(사대 63)
우상영(상대 55)
유재섭(공대 65)

- 유택상(문리 58)
윤인숙(간호 63)
이경태(공대 63)
이국진(사대 57)
이만석(공대 58)
이상복(의대 56)
이재진(의대 59)
이재원(법대 60)
이전구(농대 60)
임공세(의대 63)
정창동(간호 45)
조종수(공대 64)
조환환(치대 65)
최영혜(간호 64)
한영수(의대 61)
한인수(사대 73)
- ▶Ohio
최인갑(공대 57)
- ▶Oregon
김삼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최동근(문리 50)
한국남(공대 57)
한영준(사대 60)
- ▶Philadelphia
김영우(공대 55)
신성식(공대 56)
양운택(의대 58)
전희근(의대 54)
정덕준(상대 63)
- ▶Rocky Mt.
이석호(공대 66)
- ▶Carolina
이법세(의대 56)
- ▶Texas
김동수(의대 60)

미주 동창회 대도약을 위한 후원

- ▶김부근(의대 54) 100
- ▶강연식(사대 57) 125
- ▶석규범(문리 61) 200
- ▶김인국(문리 50) 300
- ▶최지원(의대 55) 500
- ▶권철수(의대 68) 500
- ▶문광재(의대 68) 500
- ▶김길평(상대 62) 501
- ▶방은호(약대 43) 600
- ▶신창민(법대 60) 1,000
- ▶곽노섭(수학 53) 1,000
- ▶권기현(사대 53) 1,000
- ▶조순자(문리 53) 1,000
- ▶한재은(의대 59) 1,000
- ▶최 철(의대 62) 1,000
- ▶정재훈(공대 64) 1,000
- ▶이준행(공대 48) 2,000
- ▶차재철(의대 62) 3,000
- ▶강신호(의대 51) 3,000
- ▶이상강(의대 70) 5,000
- ▶손재욱(가정 77) 10,000
- ▶이병준(상대 55) 10,000

일반광고 업소록

- 김동수(의대60)125
- 임필순(의대54)100
- 정창동(간호45) 50
- 한영준(사대60)25
- 김혜정(문리82)400
- 이준영(치대74)120
- 정재훈(공대64)120
- 이영진(공대76)120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다음의 Tax 번호로 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TIN : 13-3859506

*동문들이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미주 동창회는 물론 모교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 후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4년 7월 ~ 2015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주소: 전 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록 광고비(6개월)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연 \$200 <input type="checkbox"/>	2013.7~2014.6 \$75 <input type="checkbox"/>	2014.7~2014.12 \$120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3.5" x 2") \$120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input type="checkbox"/>
연 \$500 <input type="checkbox"/>	2014.7~2015.6 \$75 <input type="checkbox"/>	2015.1~2015.6 \$120 <input type="checkbox"/>	1/6면 (5" x 4.5") \$200 <input type="checkbox"/>	미주동창회 대도약후원\$ <input type="checkbox"/>
연 \$1,0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 x 4.5") \$400 <input type="checkbox"/>	중신 이사비 \$ 3,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1/2면 (10" x 6.7") \$600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 <input type="checkbox"/>
			전면 (10" x 13.5") \$1000 <input type="checkbox"/>	
			전면(Back 10" x13.5")\$1500 <input type="checkbox"/>	

보낼 곳:1952 Gallows Rd., Suite 206 Vienna VA 22182 Tel(Fax):703-462-9083 e-Mail:snuuusa12@gmail.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UAA-USA'

Visa() Master() American Express() 기타() 전화 <703-462-9083>로() Check No.()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UAA-USA



고품격 한국여행

新 한국기행

고품격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한국 패키지 여행

한국 최초!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관광지를
‘빠르고 편안한 28인승 딜럭스 리무진 버스’를 이용하여 관광을 즐기고
에이스 여행사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느낄 수 있는 고품격 한국 패키지 여행



SKYPASS 마일리지를
新(신)한국기행 여행상품 구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E TRAVEL SERVICE
 4055 Wilshire Blvd. Suite 400
 Los Angeles, CA 90010
 213-365-9990 -B
 213-365-9996 -F
 acetravella@msn.com
 담당자 Carol Lee

에이스 여행사
 Group reservation specialist
 Hotel, Meeting, Mission, Tours and Business trip

미주 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2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강수상(의) · 이병준(상) · 오인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영목(공) · 이진구(농) · 송순영(문)

명예회장 : 김은중(상)

제12대 회장 : 오인환(문)

차기 회장 : 손재옥(가정)
 관악후원회 부회장 : 김인순(가정)
 Brain Network 담당 부회장 : 이채진(문)
 미주류사회 담당 부회장 : 공순옥(간)
 관악세대 담당 부회장 : 이원영(사회)
 사회봉사 담당 부회장 : 권기현(사대)

상임고문 : 박윤수(문) · 이영목(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정평희(공) 총무국장 : 한정민(농)
 조직국장 : 백옥자(음) 재무국장 : 유홍열(자연)
 광고국장 : 함은선(음) 사업국장 : 김정식(농)
 섭외국장 : 이우진(농) 기금모금위원장 : 권철수(의)
 IT개발위원장 : 손재옥(가정)

회보 임원
 발행인 : 오인환(문)
 주필 : 백순(법)
 편집위원장 : 장경태(사)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윤경의(공) · 서윤석(의) · 이윤주(상) · 이해덕(상)
 정평희(공) · 김정식(농) · 진학송(약) · 함은선(음)
 이나래(경) · 각 지역 동창회 편집간사

논설위원장 : 이항열(법)
 논설위원 : 김일훈(의) · 고병철(법) · 조동준(의) · 이채진(문)
 최용원(공) · 정홍택(상) · 윤상래(수의) · 김창수(약)
 차민영(의) · 이석구(문) · 김용현(경) · 유재풍(법)
 장석정(법) · 하용출(사) · 민경훈(법) · 이원영(정)

회칙위원회
 위원장= 한재은(의)
 위원은 서중민(공) · 이민언(법) · 윤상래(수의)
 김지영(사) · 신응남(농) · 함은선(음)

감사 : 박평일(농) · 주기목(수의)

*사진·취재·기사작성·편집·디자인= 이기준 편집주간
 snuaausalkj@gmail.com. snuaausa12@gmail.com
 *인쇄= Silver Communications
 102-A Executive Dr., Sterling, VA 20166

각 지역 동창회 회장단

남가주	회장	이서희(법대 70) 213-840-2064 sleelapt@gmail.com	회계년도 Feb-Feb
	차기회장	박혜옥(간호대 69) 818-952-2871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 408-891-0200 president@snuaa-nc.org	Jan-Dec
	부회장	박희레(간호 73) 831-818-2959 acuheerei@hotmail.com	
뉴욕	회장	곽승용(의대 65) 347-506-0478 syngkwak@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회장	장수인(음대 76) 978-821-9434 sooihnee@comcast.net	
	차기회장	이경애(인문 73) 978-479-0046 kyungaelim@gmail.com	
달라스	회장	최연(공대 70) 817-919-3057 younchoy@sbcglobal.net	
	차기회장	오기영(공대 73) 214-457-7974 kiyoungoh@gmail.com	
룩키마운틴스	회장	김영일(법대 64) 719-321-9989 youngisaackim@hanmail.net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변우진(인문대 81) 952-926-0040 woodlaw@yahoo.com	
	차기회장	조해석(공대 84) 952-807-6559	
샌디에고	회장	최홍수(자연대 87) 858-259-5273 heungsoo.choi@knobbe.com	Jan-Dec
	부회장	김주성(농대 83) 858-213-5666 briankim00@yahoo.com	
시카고	회장	김호범(상대 69) 847-657-8919 hkim@moogong.com	Jan-Dec
	부회장	김용주(공대 69) 630-235-9387 kimjongjoo@msn.com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56) 520-271-2601 younhwan-oh@yahoo.com	
	차기회장		
앨라스크	회장	윤재중(농대 55) 907-223-0887 jaejyoon@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 907-561-0818	
오레곤	회장	김기린(사대 75) 360-213-5476 blueberryfield@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 DC	회장	장경태(사대 75) 703-901-3770 jangkent@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이원섭(농대 77) 206-954-1871(C) wonlee@qbmintl.com	
	수석총무	임헌민(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회장	정경완(자연대 83) 801-897-4060 Kyungwan@mathradar.com	
	부회장		
조지아	회장	김동현(상대 68) 770-549-2500 dhkimkim@hotmail.com	
	부회장	강창석(의대 73) 314-363-8396 kang5@gmail.com	
중부 텍사스	회장	김성근(법대 78) 512-750-4680 hi5chris@gmail.com	
	부회장	이주희(음대 89) 512-663-0931 Juhee.williamson@gmail.com	
필라델피아	회장	한중희(공대 80) 484-354-3547 jhan9@its.jnj.com	Jan-Dec
	부회장	유기병(문리 64) 215-822-5248	
플로리다	회장	조동건(공대 69) 561-213-8228 dcho0806@bellsouth.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정신호(자연대 78) 919-928-9696 sinho.jung@duke.edu	
	차기회장	이상구(자연대 78) 919-610-2830 slee109@nc.rr.com	
테네시	회장	박재현(자연대 81) 865-696-9066 jae.park99@gmail.com	Jan-Dec
	부회장	백재준(농대 85) 865-974-8216 865-671-3602 sbaek2@utk.edu	
하와이	회장	김용수(농대 75)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성낙일(해양 77)	
하틀랜드	회장	이상강(의대 70) 918-687-1115 wanjunhada@gmail.com	
	차기회장		
휴스턴	회장	이호성(공대 72) 281-877-6584 hlee@eagle.org	Jan-Dec
	부회장	최인섭(공대 75) inchoi@msn.com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명규(농대 69) 778-378-7339 nycmikelee@gmail.com	
	부회장	김종욱(공대 70) 604-524-0101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 403-620-8261 dalhousiedq@hotmail.com	
	부회장		

A Tasty Gift From The Sea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Dish Pizza Salads Soups Sushi

USDA ORGANIC

Sea's Gift
Roasted Seaweed Snacks
HAPPY SEEDS INCORPORATED

SUSHI NORI
SUSHI SEEDS / ASH ROCK
가래장 / 녹시리

대표 이승훈(상대 74)

Jayone 562-633-7400
www.jayone.com 562-633-7474

facebook.com/Jayone.Foods
twitter.com/JayoneFoods
youtube.com/user/Koreanfoodmart

877-HAPPY-81
장경태(사대 75)

novita usa
Something better for you

JW 토닉 샴푸

HAPPY SEEDS INCORPORATED

JW TONIC
for your healthy scalp & hair

세정력의 차이!
욕실품격의 완성
노비타 비데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82入, 문리대) www.duo.co.kr

좋은사랑 만나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 듀오

- 소비자 가장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모와 믿음, 서비스까지 고객이 인정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배태량 커리어매니저: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리어매니저가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본국 회원과의 만남을 원할 경우, 2만 6천명이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뉴욕지사 2050 Center Ave. Suite 540 Fort Lee, NJ 07024 문의 LA 213-383-0077 / NY 201-242-0505

재미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하는 한스여행사!

Homecoming Day 한국 방문과 함께 하는 한스 관광만의 딜릭스 여행

중국 & 동남아
(새로운 한스만의 차별화된 일정·전일정 딜릭스 호텔 현지 특별식사, 노골선과 제한된 소핑으로 맘치고 제대로 보는 일정)

중국 --여기를 안다면 중국을 모른다!
1. 서안, 장가계, 계림 5박6일 \$1850+국제선 항공 (국내선3구간 포함) 10월23일-10월28일
간시항을 만나는 역사적인 고대서안, 천하불경 장가계원가계, 한복의 수목화 계림

동남아 동남아 여행의 하이라이트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1.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 캄보디아(앙코르와트) 5박6일 \$1690 + 국제선항공(국내선 1구간 포함) 10월28일-11월2일
70일28일-11월2일 언제나 가고싶었던 하롱베이의 여유있는 유람과 인류 최고의 신비유적지 앙코르와트

2.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캄보디아(앙코르와트) + 타이랜드(차양마이&방콕) 9박10일 \$2890+ 국제선항공(국내선 3구간 포함) 10월28일-11월6일

중국+동남아 중국과 동남아를 동시에 갈는 일정으로
1. 서안, 장가계, 계림 + 베트남(하노이&하롱베이) + 캄보디아(앙코르와트) 10박11일 \$3100+ 국제선항공 (국내선 3구간포함) 10월23일-11월2일
2. 서안, 장가계, 계림 + 베트남 캄보디아 타이랜드 14박15일 \$ 3850 + 국제선 항공(국내선 4구간 포함) 10월23일-11월6일

고국 제일 억거리와 태고의 자연을 간직한 우주에서 한국의 나폴리 풍경과 부산까지~
1. 고국 남도의 가을 절경을 따라서---! **남도 5박6일** \$1100 목요일 출발 서울-부산-경주-여수-통영-거제-부산 (부산에서 개별해산 전일정 딜릭스 호텔 숙박, 각지방 토속 음식제공, 노골선)
2. 고국남도의 가을 절경을 따라서---! **남도+제주 7박8일** \$1479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제주도 2박3일 * (남도 딜릭스 호텔 및 제주도 롯데호텔 숙박, 제주 왕복 항공 별도)

한스관광 HANS TRAVEL
Toll Free: 800-963-4267 / T. 703-658-1717, 301-770-1717, 410-480-9898
Fax: 703-658-3110, www.hanstravel.com, 3811 Little River Inpk, Suite 102, Annandale, VA 22003

재미 서울대 여행동아리와 함께 했던 여행지들

1차 2007년) 동해 크루즈 여행 2차 2008년) 히잡도르 나일 크루즈 3차 2009년) 인도, 인도 여행 4차 2010년) 러시아, 팀북투 5차 2011년) 페루, 브라질 여행 6차 2012년) 불린도 3대륙 여행 7차 2013년) 아프리카 시리리 투어 8차 2014년) 페레릭스 2국 투어

www.wilshirebank.com

행장 유재환(상대67)



성공 비즈니스를 만드는 참쉬운 용자공식!
월셔은행 EZ Loans

**EZ
비즈니스용자**

-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신속한 서비스 용자
- 운영자금 / 장비구매 \$100,000 최대용자
- 사업체구매 \$300,000 최대용자

**EZ
프로페셔널용자
& 신용대출**

- 사업체구매, 사무실 확장 또는 운영자금을 필요로 하시는 비즈니스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용자
- 최대 \$200,000까지 용자 가능

▶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세요

고객은 꿈을 꾸고, 월셔은행은 이룹니다!

